

2025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활동수기집

[2025年CPIK教师活动手记]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 **나의 CPIK 이야기** ----- 2
진천중학교 문이이
- **‘지루한 교실’에서 ‘온기 있는 교실’로: 신규 중국어 교사의 성장 이야기** ----- 6
오송고등학교 양페이이
- **슬기로운 교사 생활** ----- 14
천안고등학교 장전란
- **온양의 사계절** ----- 22
온양여자고등학교 유문정
- **진심으로 한국을 느끼며** ----- 30
부여고등학교 쉬엔샤오
- **‘갈등’이 ‘불꽃’이 되기까지: 중한 파트너 교사들의 ‘협력 수업’ 성장 기록** ----- 38
여천고등학교 양광
- **한반도 끝에서 만난 중국 문화의 시작** ----- 48
해남동초등학교 두자치
-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두 해** ----- 56
도원초등학교 방영학
- **교류와 체험 속에서 흐르는 문화** ----- 64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진섬이
- **“함께”에서 시작된 인연** ----- 72
고창고등학교 강산
- **언어로 마음을 잇다, 문화로 세상을 연결하다** ----- 80
고창북고등학교 용회여
- **나의 2025년 — 도전과 성장의 해** ----- 84
전주신흥고등학교 포양
- **교사 성장기: 시행착오와 부단한 노력 속에서 더 나은 나로 성장하다
CPIK 프로그램 1년의 성찰과 성장** ----- 92
대구글로벌교육센터 가오원치
- **바다는 깊고 정은 끝이 없듯 행운과도 같은 당신과의 만남** ----- 100
강릉여자고등학교 진자운

- 가족의 이름으로, 중국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 110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이요남
- 교류를 통해 더 큰 세상을 만나다 -한국에서의 교육과 생활을 기록하며- ----- 124
강원국제교육원 가지용
- 산과 바다가 서로 어우러져, 두 나라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 132
치악고등학교 두영영
- ‘한(韓)’껏 즐기는 강원도 문화 체험 여행 ----- 138
홍천여자고등학교 주의영
- 산과 바다를 넘어 이루어낸 가르침과 배움의 동행 ----- 146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진추이
- 한국의 교실에서, 씨를 뿌리며 자라다 ----- 156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풍로
- 교수 활동 경험 탐구 ----- 164
서창중학교 악문령
- 제주에서 중국어 교사로 보낸 1년: 올레길의 발자취 속에서 체득한 문화와 나의 성장 --- 172
서귀포중학교 진양
- 나의 CPIK 성장기 ----- 178
당곡고등학교 왕이쉬에
- CPIK과 함께 성장한 나의 모습 ----- 186
명지중학교 진지현
- 허끝에서 피어난 문화 교류의 우정: 나와 한국 학생들의 미식(美食) 기억 ----- 194
송의여자고등학교 리우씨
- 한국에서, 나는 언어의 다리를 놓았다. —— 교실에서 무대까지 이어진 문화의 여정 --- 198
중동중학교 허영희
- 나의 CPIK성장 이야기 ----- 206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오설영



2025年 CPIK教师活动手记

- **我的CPIK故事** 4
文怡怡
- **从“枯燥”到“有温度”的课堂：中文教师的成长故事** 10
杨培艺
- **机智的教师生活** 18
张振澜
- **温阳的春夏秋冬** 26
刘雯静
- **用心感受韩国** 34
宣潇
- **从“摩擦”到“火花”：中韩搭档“合作教学”成长手记** 44
杨光
- **在韩半岛的尽头，遇见中国文化的开始** 52
杜嘉旗
- **在韩两年的幸福时光** 60
房英鹤
- **让文化在交流和体验中流动** 68
陈纤怡
- **从“함께”开始的缘分** 76
姜珊
- **语言是桥，连通心灵；文化是窗，望见世界** 82
龙荟茹
- **我的2025——赴韩任教，挑战与成长的一年** 88
浦杨
- **教师成长经历：在摸索与创新中 成为更好的自己 CPIK项目中的一年的反思与成长** .. 96
杲文琦
- **海深情不尽，有幸与君逢** 106
陈紫云

- 以家人之名，感谢汉语让你我相遇 ----- 118
李焱南
- 《在交流中遇见更大的世界》——记我在韩国的教育与生活之旅 ----- 128
贾志龙
- 海相亲同日月，春风两国共长安 ----- 136
杜滢莹
- “韩”畅淋漓的江原道文化体验之旅 ----- 142
周依莹
- 跨越山海的教学相长 ----- 152
陈秋伊
- 在韩国的课堂上，播下种子，伴随成长 ----- 160
冯璐
- 之授课经验的探索 ----- 168
岳文铃
- 我在济州教中文的一年：在偶来小路的足迹里，体会文化与成长 ----- 176
陈阳
- 我的cpik成长之路 ----- 182
王以雪
- CPIK与我的成长 ----- 190
陈芷献
- 舌尖上的跨文化情谊：我与韩国学生的美食记忆 ----- 196
刘茜
- 在韩国，我用汉语搭起一座桥 ——从课堂到舞台的CPIK文化旅程 ----- 202
何泳希
- 我的CPIK成长日记 ----- 208
吴雪莹





나의 CPIK 이야기

진천중학교 문이이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낯설고 긴장된 마음에서, 지금은 진천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자유롭고 행복하게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CPIK 프로그램과 한국에 대한 저만의 깊은 이해와 사랑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제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생활할 준비를 미리 했지만, 부산에서 충청북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완전히 혼자 살아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린 저의 마음을 알아준 담당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긴장을 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생활용품을 준비해 주시고, 학교와 주변 시설을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세심한 배려는 마치 제 마음의 불안을 녹여주는 약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저는 그 따뜻함 덕분에 이곳이 낯선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교단에 처음 섰던 순간, 저는 CPIK 프로그램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열정적인 반응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며 “니하오”라고 인사할 때마다, 저는 언어 교육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언어는 서로 다른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즐겁게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이해하며, 더 넓은 세계를 탐색하길 바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여유로운 휴일 덕분에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한국의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3월의 진천에서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벚나무 아래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낮과 밤, 서로 다른 벚꽃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4월의 서울에서는 Coldplay 콘서트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서울 하늘은 정말로 “full of stars”였습니다. 우스터 미술관에서 모네의 <수련>을 직접 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세계라는 책의 또 한 페이지를 넘긴 듯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의 풍부한 예술 분위기와 다양한 전시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느꼈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술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언젠가 70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멋지고 진지하게 살아가며, 아름다운 그림과 세상의 빛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의 강릉에서는 바다의 파도와 바람

이 제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들과 바닷가 카페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
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낭만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6월의 수원에서는 네모난 모양으로 다듬어진 나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들은 저마다 개성이 있고, “조화 속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다른 도시를 여행하
며 다양한 음식과 각 지역의 커피 맛을 즐기는 일은 저에게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행 중 만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울역에서 길을 헤맬 때 다가와 영어로
도움을 제안해 준 젊은 여성, 버스 정류장을 찾지 못해 헤맬 때 직접 안내해 주신 아주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며 미소 지어 주신 택시 기사님, 그리고 제 취향을 기억해 주고 선물을 건네 준 교무실의
선생님까지 이 모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제 한국 생활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학생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동안 저는 스스로와 대화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이 1년 동안 저는 한층 성장했고,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CPIK는 저에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성장과 이해의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는 단방향의 ‘가르침’ 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일이라는 것ですよ. 학생들은 제 수업을 통해 조금씩 중국을 알아가고, 저는 발로 걷고 마음
으로 느끼며 진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의 매 순간,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한중 문화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교육’의 의미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임을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국제중국어교육의 길을 계속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따뜻함을 나눠준 모든 학생과 동료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CPIK 프로그램
덕분에 한국에 와서 ‘세계’라는 책의 새로운 한 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언어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서로의 이해와 우정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我的CPIK故事

文怡怡

我来到韩国已经快一年了，从初到釜山再到镇川，现在已经能够自如地融入当地的生活了。还可以自由，幸福地去不同城市旅游。我逐渐对CPIK项目和韩国有了更深刻的理解。

起初我的韩语水平很不理想，即便早已做好独自生活一年的准备，但从釜山前往忠清北道的车上，我仍然对接下来的生活感到忐忑不安，因为这是我第一次真正意义上的独自生活。我的搭档老师看出了我的紧张与不安，并用温和的话语关心我，缓解了我紧张的情绪。她帮助我一起购买生活物品，向我介绍学校和周围的设施，让我在最短时间内熟悉了新环境。她体贴的性格像是在慢慢消除我对跨文化的障碍，让我在异国他乡感受到温暖。

当我走进班级，讲第一节课的时候，我真正感受到了 CPIK 项目的魅力和真正的意义。孩子们的热情回应、愉快的课堂氛围对我来说是最大的鼓励。当所有学生见到我并跟我用汉语说“你好”的时候，我体会到了汉语教学的力量，语言能够起到桥梁作用。我希望孩子们能够快乐地学习汉语知识，了解中国的文化，探索不同的世界。

韩国人对待生活的态度也让我倍感感动。因为有充足的假期，所以我有时间去体验、探索、享受生活，去不同的地方旅行，感受韩国各个城市的风土人情。3月的镇川，樱花盛开。我喜欢看人们牵着小狗在樱花树下散步，可以说白天和晚上是两个不同的世界。4月，在首尔看了Coldplay 演唱会，那一晚首尔的夜空如那首歌一样，full of stars。去看了伍斯特美术馆的展览，看到了莫奈的睡莲，这不仅是一幅画，于我而言的是一本宝贵的书籍。我惊叹于首尔艺术氛围的浓厚，精彩各异的展览让我看花了眼，美术馆里欣赏画作的爷爷和奶奶让我感到平静。欣赏艺术不仅是年轻人的爱好，也是老年人的爱好。我希望我也能在70岁的时候，依旧认真、充实地生活，去看漂亮的画，感受世界的美丽。5月，江陵的浪花和海风让我的内心感到宁静，我和朋友们坐在海边的咖啡店，听着海浪声，看着沙滩上一同放烟花的浪漫情侣。在此非常感谢他们与我“分享”这浪漫的烟花美景。6月，水原独特的方形树不禁让人赞叹，让我想到了“和而不同的城市之美”。每月我都会去往不同的城市，品尝不同城市的美食和不同风味的咖啡。

除了美丽的风景外，旅途中给予我帮助的韩国人更让我倍感温暖。我记得在我第一次到首

尔，站在路牌下纠结向左还是向右时，主动用英语来询问我是否需要帮助的年轻女孩儿；在我找不到公交站时候，直接带我去找公交站的一位姨母；祝我们旅途愉快的出租车司机；在办公室不经常交流但是记住我的喜好，送我漂亮礼物的老师…

我是很容易感到幸福的人。热情的学生、美丽的风景、善良的陌生人共同构成了我在韩国是的美好记忆。

独自生活也让我拥有了能够安静下来和自己独处的时间，从而获得内心的平静，规划自己的未来。我感觉自己在这一年里不断成长，践行了用包容的心态看待文化差异，用积极的方式去适应新的环境。CPIK 于我而言，不仅是一份工作，更是一场关于成长与理解的旅程。我渐渐明白，真正的文化交流不是单向地教学，而是彼此的理解与分享。学生们通过我的课堂一点一点地了解中国，我也通过用脚丈量、用心感受到了真实的韩国。每一节课、每一次微笑，都是中韩文化互相靠近的时刻。我深深体会到“教育”的意义不仅仅是知识的传递，更是心与心的连接。这让我坚定了未来继续从事国际中文教育的信念。

感谢每一位学生与同事，让我体会到教育最纯粹的意义；感谢每一个在旅途中给予我帮助的陌生人，让我相信温暖可以跨越国界；感谢 CPIK，让我有机会来到韩国，翻开世界的下一个篇章，在文化交流中找到成长方向。未来，我将继续以一颗真诚的心，在语言与文化之间搭建理解与友谊的桥梁。



‘지루한 교실’에서 ‘온기 있는 교실’로: 신규 중국어 교사의 성장 이야기

오송고등학교 양페이이

1. 한국에 처음 와서: 지루했던 중국어 수업

2025년은 나에게 특별히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나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CPIK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교육여정을 시작했다. 처음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에게 중국어라는 새로운 문화의 문을 열어주리라 상상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내가 근무한 학교는 충청북도에 위치한 한 남여공학 고등학교였다. 첫 수업 날, 학생들은 가지런히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무표정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 첫 수업은 병음 수업이었고, PPT도 정성껏 준비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다. 학생들에게 중국어는 선택 과목이라서인지, 대부분은 점수에 신경 쓰지 않았다. 어떤 학생은 책을 읽고, 어떤 학생은 한국어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과장된 억양과 손짓으로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돌아온 것은 몇 개의 예의적인 미소뿐이었다.

신입 교사였던 나는 외국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의 첫 수업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왜 그들은 중국어에 흥미가 없을까? 언어가 낯설어서일까, 아니면 수업이 너무 단조로워서일까?” 나는 문제의 원인이 학생이 아니라 나의 교수 방식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음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회화 능력을 키워보려 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대화를 만들어보라고 했지만, 교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학생들은 틀릴까 봐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실은 더 조용해졌다. 나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내가 정말 교사로서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2. 교수 혁신의 탐색: AI·멀티 모달·과제 중심 교수법의 융합 시도

처음의 좌절을 겪은 후, 나는 교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은 한국의 고등학교 환경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문자나 음성 중심의 입력만으로는 학습 흥미를 자극하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멀티 모달 교수법(multi-modal teaching)’의 개념을 기반으로, 시각·청각·동작·상호작용에 AI 기술을 결합하고, 동시에 과제 중심 교수법(Task-based Learning)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쇼핑’단원에서 나는 ‘AI + 멀티 모달 + 과제형’수업을 설계하였다. 주제 활동은“쇼핑 달인 되기”였다. 이 활동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1. 어휘 퀴즈(‘Quizlet’플랫폼 활용)
2. ‘쇼핑 표현’ 미션 클리어
3. 역할극 수행

첫 두 단계에서 학생들은 미션을 통과할 때마다 ‘인민폐(가상 화폐)’를 얻는 구조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Quizlet 플랫폼을 활용하여 ‘쇼핑’관련 어휘를 복습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퀴즈 게임이었지만, 곧 학생들의 학습 열정이 완전히 불타올랐다. 그들은 정답을 외치며 경쟁했고, 친구를 응원하며 환호했다. 교실의 분위기는 더 이상 딱딱하지 않았고, 리듬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처음으로 디지털 게임이 언어 학습을 얼마나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AI를 활용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작했다. 예를 들어 가격표가 붙은 옷 사진 등을 만들어 학생들이 가격 표현과 쇼핑 관련 어휘를 연습하도록 했다.



□ Quizlet을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사진 □



□ AI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 □

세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AI가 생성한 ‘흥정하기’상황 영상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중국인의 실제 대화 방식을 보며 열심히 따라 연습했다.

그 후, 학생들은 이전 단계에서 얻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실전 흥정 게임’을 진행했다. 즉, 교사에게서 간식을 사는 활동이었다.

나는 상인 역할을 맡아 학생들과 흥정했고, 학생들은 배운 표현을 활용해 최대한 싸게 사려 노력했다.



ㅣ AI로 제작한 상황 영상 ㅣ



ㅣ CPIK 선생님이 상인 역할을 맡아 학생들과 대화 ㅣ

두 차례 라운드가 끝난 후, 학생들은 역할을 바꾸어 직접 상인이 되어 친구와 대화하며 돈을 벌었다. 나는 발음을 교정하고 중국식 예절 표현을 알려주었다. 교실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평소 조용하던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ㅣ 학생들이 상인 역할을 맡아 대화 ㅣ

최종 ‘흥정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문장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배운 어휘와 문형을 통합하여 표정·역양·간단한 협상 전략까지 활용했다. 이는 그들의 언어 지식이 실제 의사소통 능력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존재’에서 ‘참여자’로 변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말했다. “선생님, 요즘 중국어 수업은 예능 프로그램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고, 몽클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꿈꾸던 교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다. 수많은 시도와 반성을 거치며 나는 마침내 나만의 교수 방향을 찾게 되었다.

3. 맺음말: 성장은 학생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나는 처음의 혼란과 불안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동안, 나는 그들의 시선과 반응 속에서 진정한 교사로 성장하고 있었다.

첫 실패의 수업에서 시작해 ‘AI+과제형+게임화’수업에 이르기까지, 나는 깨달았다. 교수 혁신은 새로운 기술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을. AI 도구, 상호작용 플랫폼, 게임화 교수법은 모두 수단일 뿐이다. 진정한 핵심은 여전히 ‘사람’이다. 학생이 이해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제 나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AI 그림을 보고 웃거나, 역할극 중에 몰입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보람으로 바뀐다.

신규 교사인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AI와 교육의 융합을 계속 탐색하며, 기술이 문화 소통의 다리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랑과 인내, 창의력으로 ‘온기 있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싶다.

진정한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우며 더 넓은 세상을 함께 발견하는 일이다.



从“枯燥”到“有温度”的课堂： 中文教师的成长故事

杨培艺

1. 初到韩国：无聊乏味的中文课

2025年对我来说是一个格外难忘的年份。我从中国来到韩国，通过CPIK项目开启了自己的教育旅程。第一次推开教室门时，我满怀激动与期待，想象着自己为学生们开启一扇通往中国文化的新大门的样子。然而现实并没有想象中那样美好。

我任教的学校是一所位于忠清北道的普通高中。第一堂课那天学生们整整齐齐地坐着，但面无表情。我带着微笑做了自我介绍，但学生们几乎没有反应。第一节课是拼音课，我认真准备了PPT，可教室里的气氛依旧冰冷。也许是因为中文在学校属于选修课，大多数学生对成绩并不上心。有的学生低头看书，有的学生则用韩语小声聊天。我试图用夸张的语调和手势来活跃课堂气氛，但换来的只有几丝礼貌性的微笑。

作为一名新任教师，我几乎没有教外国学生的经验，所以在韩国的第一堂课对我来说是巨大的打击。“为什么他们对中文毫无兴趣？是因为语言很陌生吗？还是因为课堂太单调？”我开始反思，问题的根源或许并不在于学生，而在于我的教学方式。于是下一节课，我尝试提升学生的口语能力，让他们自己编对话，但教室再次陷入沉默。学生们因为害怕出错而不愿开口。我准备得越充分，教室反而越安静。我感到深深的挫败，甚至开始怀疑：“我真的适合当老师吗？”

2. 教学创新：尝试融合AI·多模态·任务型教学

经历最初的挫折后，我开始重新审视课堂。在韩国高中，传统的讲授式课堂存在一定局限性。尤其对外语学习者而言，仅靠文字或语音输入很难激发学生们的学习兴趣。因此，我决定以“多模态教学”为核心理念，将视觉、听觉、动作、互动等多种方式与AI技术相结合，引入了任务型教学法。

在“购物”单元中，我准备了“AI + 多模态 + 任务型”综合课堂，主题活动名为“成为购物达人”。活动分为三个阶段：

1. 词汇竞猜（使用 Quizlet 平台）
2. 学习“购物”相关的表达方式
3. 角色扮演

在前两个阶段中，学生每完成一个任务就能获得“人民币（虚拟货币）”。第一阶段学生通过使用Quizlet平台复习“购物”相关词汇。虽然只是简单的竞猜游戏，但学生的学习热情很快就点燃了。他们抢答、竞争、为朋友加油、呐喊，课堂气氛已不再僵硬，而是充满节奏感与期待感。那是我第一次真正体会到：数字游戏能够让语言学习变得如此有趣、生动。



丨 学生利用 Quizlet 答题的照片丨



丨 AI 生成的图片丨

第二个任务中，我利用 AI 制作了各种图片，例如带价格标签的衣服照片等，让学生练习价格表达和购物相关词汇。

第三阶段，我先播放了AI 生成的“讨价还价”情境视频。学生们一边听中国人的真实表达方式，一边认真跟读。

随后，学生使用前面阶段获得的虚拟货币进行“实战讨价还价游戏”——在老师购那里买零食。我扮演商贩，与学生一一讨价还价，而学生则尽可能运用学到的表达方式努力争取更便宜的价格。



┃ AI 制作的情境视频 ┃



┃ CPIK老师扮演商贩与学生对话的照片 ┃

两轮结束后，学生们交换角色，由他们自己当商贩，与同学对话并“赚钱”。我则负责纠正发音，并教授中式的礼仪表达。平时安静的学生们也开始积极参与，课堂笑声不断。



┃ 学生扮演商贩进行对话的照片 ┃

在最终的“讨价还价”环节，学生们不再死记硬背句子，而是能够整合词汇与句型，并加入表情、语调，甚至加上了简单的协商策略。这说明他们的语言知识真正转化成了实际交际能力。通过这节课，学生从“被动地听课”变成了“积极地参与”。下课后，一个学生对我说：“老师，最近中文课像综艺节目！太好玩了！”听到这句话时，我笑了，同时也深受感动。就在那一刻，我看见了梦想中的课堂。经过无数次尝试与反思，我终于找到了属于自己的教学方向。

3. 结语：成长从理解学生开始

回望过去的一年，我从最初的混乱与不安中走了出来，如今已经能够自主设计课堂，也能分析学生的学习数据。学生学习语言的过程中，我也在他们的目光与反应中一点点成长为真正的教师。从最初失败的那节课，到后来“AI+任务型+游戏化”的课堂，我逐渐明白，教学创新并非是一味地追求新技术，而是寻找适合学生的方式的过程。AI 工具、互动平台、游戏化教学都可以成为一种方式，而真正的核心始终是“人”。当学生感到被理解、被尊重时，他们才会真正敞开心扉，积极投入到学习当中。现在，每当我看到学生们看着 AI 图画开怀大笑、全情投入角色扮演中时，过去的所有迷茫都化为零。

作为一名新手教师，我依然在成长路上。我也希望今后继续探索 AI 与教育的融合，让技术成为文化沟通的桥梁。还希望自己始终保持初心，用爱心、耐心与创造力，打造“有温度的一趟课”。真正的教育，不只是传授知识，而是彼此学习，共同发现辽阔世界的过程。



슬기로운 교사 생활

천안고등학교 장전란

2년의 임기가 순식간에 흘러가 버렸다. 임기의 끝자락에 서 있자니,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과 지난해 중국어 수업의 순간들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처음 마셨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은은한 쓴맛, 첫 협력수업에서의 어색함, 수업에서 게임이 막혔을 때의 당황스러움... 그 수많은 '처음'들이 모여, 국제 중국어 교사로서의 서툰고 풋풋했던 출발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들어온 고1 학생들 앞에 서 있는 나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단지 업데이트된 교안만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고 더 여유로워졌다는 걸 실감한다. 한국어는 더 이상 소통의 장벽이 아니며, 수업의 흐름도 내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수업 내용 또한 단순한 회화 수업을 넘어 문화 수업과 회화 수업이 교차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삶에는 초반의 '허둥지둥'은 줄고,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면서 확신도 생겼다. 그 변화는 매번 자연스러워진 대화 속에 깊이 스며 있다.

1. 수업 주도: '결에서 돕는 것'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교사로

작년 1학기, 나는 파트너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손바닥을 몰래 짝 쥐곤 했다.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던 나는 따라 읽기와 복습용 미니 게임 정도만 말할 수 있었다. 나를 향한 학생들의 호기심이 무덤덤함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내심 "진짜 선생님 같지 않다"는 좌절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소외감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했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어 매 순간 학생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학생이 중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몸짓으로 표현하고, 몸짓으로도 이해되지 않으면 파트너 선생님께 통역을 부탁했다. 최종 목표는 언제나 '소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올해 새 고1 학생들을 마주했을 때, 내가 유창한 한국어로 "중국 과자 먹어본 적 있어요?"라고 물었고, 학생들이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사진과 제스처로 문법을 설명하자 학생들이 이해한 뒤 조심스럽게 중국어 문장을 내뱉었을 때, 나는 교실의 분위기,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몸소 느꼈고, 스스로의 성장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지금은 대부분의 수업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 파트너인 김 선생님은 '호흡이 잘 맞는 팀메이트' 역할

에 더 가깝다. 학생들이 단어 암기에 어려움을 느끼면, 그는 한국어의 한자어를 활용해 단어 구조를 비교해 주고, 학생들이 문법 포인트를 헛갈리면 한국어로 핵심을 짚어주어 이해의 길을 터준다. 수업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으면, 수업 내용에 맞춰 갑자기 ‘아재 개그’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환기하기도 한다. 그렇게 나는 교실의 한가운데에서 자신 있게 서서, 미소와 함께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말하며 매일의 수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수업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은 파트너 선생님의 도움 때문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 쌓아온 내 경험과 실력에서 비롯되었다. 거울 앞에서 한국어를 연습하던 시간들, 매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학생들의 질문을 예상해 대비하던 노력이 쌓여, 마침내 교실을 언어 장벽으로 인한 ‘방관자’가 아닌 학생과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2. 문화 수업: ‘허둥지둥’ 속에서 쌓인 진짜 실력

올해 수업 조정의 ‘하이라이트’는 하반기에 새로 편성된 중국 문화 수업이었다. 내가 한 번도 깊이 다뤄본 적 없는 분야로, 순수하게 문화만으로 채워지는 수업은 언어 표현의 난도가 훨씬 높았고, 준비해야 할 자료의 양도 방대했다. 처음으로 ‘중국 전통 명절’ 수업을 준비하며 나는 비로소 ‘도전’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춘련 붙이기’, ‘나이 세는 법’ 등 표현 하나 번역하는 데도 한참이 걸렸고, 한중사전을 찾아보고 파트너 선생님께 물어보기를 반복하며 ‘하나라도 틀려 학생들이 오해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했다.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미니 춘련과 복(福)자까지 준비했고, 수업에서 제대로 쓰지 못할까 봐 집에서 ‘복자 쓰기’를 몇 번이나 연습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 수업은 시작부터 조금 당혹스러웠다. 전통 명절의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단오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굴원을 기리기 위해 쫄쫄라는 음식을 만들었다”고만 소개했더니 학생들이 몹시 의아해했다. 순간 한국어 문장이 잘 떠오르지 않아 말이 막혔는데, 김 선생님이 재빨리 받아 설명을 이어가며 굴원이 강에 몸을 던진 이야기, 그리고 쫄쫄를 앞으로 싸게 된 이유 등을 자세히 덧붙여 겨우 어색함을 넘길 수 있었다. 수업 후 김 선생님과 강의 협의하면서 그는 “다음에는 학생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을 미리 정리해 두고 자료를 준비하면 좋겠다”, “복잡한 문화 개념은 비교를 활용해라”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설과 한국의 설날을 비교하면 학생들이 훨씬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 전통 부채’를 가르칠 때 나는 그의 조언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 한국 전통 부채와 중국 전통 부채의 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차이점을 찾게 한 뒤, 쉬운 한국어로 ‘부채의 길상 문양’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직접 부채를 꾸미는 시간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호기심과 참여도는 최고조에 달했다. “선생님, 중국·한국 문양을 합쳐서 그려도 돼요?”, “저 여기에 구름무늬 넣고 싶어요”, “이 문장의 중국어는 어떻게 써요?”라며 질문이 쏟아졌고, 학생들은 두 나라의 미학을 결합해 자신만의 종이부채를 완성했다.

매주 50분씩 두 번 진행되는 문화 수업에서, 나와 파트너 선생님은 ‘책에만 갇혀 있는 수업은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에게 중국 전통문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을 체감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수업마다 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확장해 나갔다. 음식 문화를 배운 날에는 중국 야시장 먹거리를 영상으로 살펴보고, 전통 건축을 배운 날에는 갑자기 ‘중·한 현대 주거 습관 비교’를 하기도 했으며, 언어의 동음 금기를 배우고 나서는 현재 중국 젊은이들이 즐겨 쓰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학생들이 “한 번도 못 먹어본 구운 냉면(烤冷面)을 꼭 먹어보고 싶다”며 수다를 떨고, 서로에게 “520”, “886” 같은 방금 배운 표현을 장난스럽게 써보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 밤새 자료를 찾고 수없이 번역을 고쳐 쓴 시간이 모두 값지게 느껴졌다. 문화 수업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다. ‘중국어 학습’이 ‘중국 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나 자신도 그 다리를 놓는 과정속에서, ‘회화만 가르치는 교사’에서 ‘문화의 온기를 전달하는 연결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3. 연결: 사소한 디테일 속에 새겨진 성장의 흔적

올해는 단지 강의 실력의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학생들, 동료들과 훨씬 가까워졌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작년에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그들의 관심사와 진로고민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학생은 인터넷에서 본 중국 유행 밈을 나에게 보여주며 의미를 묻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궁금한 점을 직접 찾아와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학교의 ‘편지 쓰기 행사’에서는 작년과 올해 학생들이 쓴 편지를 받았는데, 또박또박 적힌 “선생님, 중국 문화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중국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어요”를 보면서 큰 따뜻함을 느꼈다.

교무실의 동료 선생님들도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수업을 준비하다가 막힐 때면 어느새 나의 ‘조력자’가 되어 실생활의 한국 문화가 어떤지 직접 알려주었고, 덕분에 나는 수업을 더 현실적이고 풍성하게 구성할 수 있었다. 생활 속에서 지칠 때면 교무실에서 나누는 짧은 수다와 여행 다녀온 선생님들이 건네는 여러 지역의 간식들이 늘 내겐 소중한 선물이었다. 특히 내 파트너인 김선생님은 문화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한국어 번역을 일일이 확인해 주었고, 한국 학생들의 학습 습관도 세세히 알려주어 수업이 더욱 ‘현지화’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이해와 도움 덕분에, 한국에서의 수업이 ‘혼자 싸우는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작년에는 긴장해서 단독으로 수업조차 못 하던 초보 교사였다. 그런 내가 올해는 수업을 주도하고 문화 수업까지 책임지는 교사가 되었다. ‘요령’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다. 첫 따라 읽기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입을 열까?”를 고민했던 순간들, 첫 문화 수업에서 ‘허둥지둥’하면서 복기를 통해 배운 교훈들, 매번 닦치는 문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 모든

끈기가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병음조차 못 읽던 상태에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중국어로 말하게 되었고, “중국에 이렇게 있었어요?”에서 “선생님, 중국 문화를 더 알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모습들에서 나의 성장 역시 엿볼 수 있었다.

중국어의 국제 교육의 여정에서, 나는 이제 첫걸음을 뗀 것뿐이다. 작년의 기억은 ‘서툴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었고, 올해의 경험은 ‘도전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실, 새로운 학생들, 그리고 새로운 어려움들이 늘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난 2년 동안 쌓은 ‘요령’을 가지고 계속 걸어갈 것이다. 수업 중 반짝였던 아이디어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악물고 버틴 순간들, 그리고 사소한 디테일 속에서 조용히 쌓인 따뜻한 소통들. 나는 알고 있다. 매번 교단에 설 때마다, 나는 중국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과의 대화는 단순한 강의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과정에 내게는 2년 간의 CPIK 교사 경력을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학생들도 성장하고, 나도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机智的教师生活

张振澜

两年任期一挥间，站在任期终点前，刚在釜山落地时的兴奋、去年一年的汉语教学时光还历历在目—初到时冰美式的微苦、第一堂合作课的局促、课堂游戏卡壳时的慌张，那些细碎的“第一次”拼凑出我作为国际中文教师的青涩起点。而今站在新高一的课堂前，手里握着的不仅是更新过的教案，更是一份沉甸甸的从容：韩语不再是沟通的壁垒，课堂节奏由我稳稳把控，连课程内容都从单一的会话课，延伸出了文化课与会话课交织的新维度。这一年的生活中，少了些初来乍到的慌忙，多了些直面挑战的笃定，藏在每一次顺畅的对话里，也埋在每一节文化课的汗水中。

1. 课堂主导：从“搭把手”到“掌方向”

去年第一学期，我总在搭档老师讲课时悄悄攥紧手心—韩语水平有限的我只能负责带读和复习课的小游戏，看着学生们对我从好奇到平淡，心里满是“不像真正教师”的挫败。经过观察与分析这种游离在外的状态的原因，我对自己提升要求、改变方式，一方面坚持学习韩语，另一方面尽力开口，抓住每一个机会跟学生互动，汉语听不懂用肢体动作，肢体动作也理解不了再请搭档翻译，始终记得最终的目的是沟通。今年面对高一新生，当我用流利的韩语问出“大家有没有吃过中国的零食？”，看着学生们七嘴八舌分享时；当我用图片影响和肢体语言表现语法，学生理解后试探着说出汉语句子时，我真场地感受到了课堂与师生氛围的改变，也为努力提升的我自己感到欣慰。

现在的课堂基本由我主导，搭档金老师更像“默契队友”：当学生记生词有困难时，他会用韩语中的汉字词对生词进行分解对比；遇到学生对语法点存疑时，他会补一句韩语解释帮学生打通思路；课堂氛围稍显沉闷时，他会配合课程内容突然蹦出个“大叔笑话”逗笑大家。而我则能够更自信地站在教室中间，微笑着以一句“早上好”开后每天的课堂。这种掌控课堂的底气，不仅来自搭档老师的配合与帮助，更来自于我在去年的实践中增长的经验与技能—一年间空闲时对着镜子练韩语的时光，每次备课时提前设想学生疑问的准备，让我终于能把课堂变成和学生平等对话的空间，而不是隔着语言屏障的“旁观者”。

2. 文化课：在“手忙脚乱”里长本事

今年课程调整的“重头戏”，是下半年加入的中国文化课这是我从未涉足的领域，纯用文化内容填满的文化课，不仅对于语言表达有着更高的要求，备课内容容量上也达到了新高度。第一次备“中国传统节日”课时，我才算真正懂了“挑战”二字。光是翻译“贴春联”“守岁”就费了半天劲，查了韩汉词典又问搭档老师，生怕一个词译错让学生误解；为了让学生有直观感受，我还准备了迷你春联、福字，提前在家练了好几遍“写福字”，怕到课堂上拿不出手。

然而这节文化课开场就有点“慌”，由于传统节日内容较多，讲到端午节的由来时，我简单地介绍道“人们为了纪念屈原，做出了粽子这种食物”，就有学生十分不解，我一时没组织好韩语，金老师及时接过话茬，补充了屈原投江的故事以及粽子用粽叶包表的原因，才没冷场。课后我和金老师复盘，他建议我下次备课时把学生可能问的问题列出来，提前查好资料；遇到复杂的文化概念，不如用对比的方式。比如把春节和韩国的春节（）对比，学生更容易理解。后来教“中国传统扇”时，我就照这个方法，提前准备了韩国传统扇和中国传统扇的图片让学生找不同，再用简单的韩语讲“扇子上的吉祥图案”。在最后的画扇子实操环节，学生兴趣十足，参与度很高，争相提问“老师，我能不能把中韩图案融合起来画？”“我想加上一个云纹”“老师，能不能告诉我这句格言的中文怎么写？”，结合两国经典美学图案创造属于自己的纸扇。

在每周两节50分钟的文化课中，我和搭档一致决定不能局限于书本，不仅要让学生了解中国传统文化，更要让他们接触到当代中国的文化，于是每节课我都会根据自己的生活经验加以扩展。学完了饮食习惯，我们就会看一看中国的夜市小吃；学完了传统建筑，我们就会突然来一场“中韩现代居住习惯大比较”；学完了谐音禁忌，我们就会扩展现在中国年轻人爱用的流行语。当学生讨论着一定要尝试一下没听说过的烤冷面，彼此拽着刚学的“520”“886”玩闹的时候，我忽然觉得那些熬夜查资料、反复练翻译的辛苦都值了。原来文化课不只是教“知识”，更是搭一座桥——让学生从“学汉语”变成“喜欢中国文化”，而我自己，也在这座桥的搭建过程中，从“只会教会话”的老师，变成了能传递文化温度的“中间人”。

3. 联结：藏在细节里的成长印记

今年的成长，不止于教学技巧，更在于和学生、同事的联结更紧密了。去年我只能用简单的韩语和学生打招呼，今年却能听他们聊兴趣、聊学业——有的学生在网上刷到了中文网络热梗会和我分享，也会好奇地跟我探讨具体是什么意思；在学校的“写信日”，我收到去年和今年学生的信，用拼音或汉字工工整整写着“老师，谢谢您教我们中国文化”“因为您，我对中国的印象改变了”。这些细碎的瞬间，比任何评价都让我觉得温暖。



办公室的同事们也给了我很多帮助：备课遇到瓶颈时，办公室老师们就成了我的“调查问卷”，让我能够了解到真实的韩国文化，从而做出更完善的课堂准备；生活感到疲惫时，和办公室老师的几句闲聊、老师们旅行带回的特色小吃总能给我带来新的活力。尤其是我的搭档金老师，每次备完文化课，他都会帮我核对韩语翻译，还跟我分享韩国学生的学习习惯，让我的课堂更“接地气”。这种互相理解、互相支持的氛围，让我觉得在韩国的教学不是“一个人战斗”，而是和一群人一起，把汉语和中国文化慢慢传递出去。

回头看这两年，从去年那个紧张到不敢单独讲课的新手，到今年能主导课堂、扛起文化课的教师，“机智”从来不是天生的—是第一次带读时琢磨“怎么让学生愿意开口”，是第一次上文化课手忙脚乱后学会复盘，是每一次遇到挑战时不退缩、想办法解决的坚持。学生们从不会说拼音到能用地道的汉语说“老师，新年快乐”，从“不知道中国有这些”到主动想了解中国文化，这些变化，也是我成长的最好证明。

国际中文教育这条路，我才刚走了一小段。去年的记忆教会我“接纳青涩”，今年的经历则让我学会“拥抱挑战”。未来还会有新的课堂、新的学生，或许还会有新的难题，但我会带着这两年的“机智”—那些在课堂上的灵光一闪，那些在挑战中的咬牙坚持，那些藏在细节里的温暖联结，继续走下去。因为我知道，每一次站在课堂前，不只是教汉语，更是在传递一份热爱；每一次和学生的对话，不只是教学，更是在见证彼此的成长。在我的心目中，这就是这两年cpik教学生涯最珍贵的地方：在成就学生的同时，也成就了更好的自己。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온양의 사계절

온양여자고등학교 유문정

성인이 된 이후, 집을 떠나 학업을 이어오면서 설령 고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의 사계절을 온전히 느껴본 적은 없었다. 봄과 가을은 늘 학교에서 보내고, 여름과 겨울은 고향에서 보냈기 때문에, 사계절에 대한 기억도 자연스럽게 학교와 고향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온양에서, 이 이국의 땅에서 처음으로 한 곳의 사계절을 온전히 경험했고, 그곳에서의 기억들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차곡차곡 쌓여갔다.

온양의 봄

봄은 만물이 생기를 가득 품는 계절이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작은 씨앗도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땅을 뚫고 올라온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기다. 3월 초, 막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근무하게 될 학교에 도착했고, 처음으로 중국어 교실에 들어가 보았다. 학생들 역시 이번 학기에 중국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터라 모든 것이 새로웠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생들.

이 학교에 오기 전, 나는 전임 선생님이었던 선배에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근무하게 될 학교는 여고이며 학생 수도 많고 중국어반도 많다는 것이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교단에 올라 학생들을 마주했다. 개학 후 첫 수업 때, 나는 준비해 간 PPT로 자기소개를 했고, 학생들은 매우 진지한 태도로 수업에 임해주었다. 중국에서 온 선생님이 대해 호기심이 많아 보였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중국어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큰 소리로 읽기만 하면 아이들은 꼭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따라 읽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귀여웠다! 봄이라는 계절 속에서, 아이들의 진심 어린 태도에 내 마음도 서서히 따뜻해졌고, 벚꽃이 활짝 피는 시기에는 아이들과 함께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도 찍었다. 마치 내가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온양의 여름

어느새 벚꽃은 모두 지고, 그 자리를 싱그러운 벚나무잎들이 대신하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중국어를 배우면서 나와 학생들은 서로에게 점차 익숙해졌고, 서로에게 맞는 학습 방식도 함께 찾아갔다. 학생들은 따라 읽는 연습을 거듭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읽어주지 않아도 단어와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린 서로 호흡이 잘 맞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중국어 수업 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끝났다.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선생님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이었다. 우리는 학교에서 걸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내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한국 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산책할 때면 늘 조용히 옆에서 함께 걷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날, 중국어에서 ‘인사 표현’을 배운 뒤였던 몇몇 학생들이 나를 멀리서 보고는 뭔가 몹시 급한 듯 옆 친구와 소곤소곤 속삭이며 아주 분주해 보였다. 우리는 그 학생들 옆을 지나쳐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들이 뛰어오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는 큰 목소리로 “老师好!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외쳤다.

알고 보니, 우리가 지나가는 순간 그 아이들은 ‘선생님께 중국어로 어떻게 인사하더라?’를 다급하게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사 표현을 맞게 확인한 뒤, 다시 나를 따라와 용기 내어 한목소리로 “老师好!”라고 말한 것이었다. 그 순간 내 옆에서 걷고 있던 한국인 선생님들도 놀란 듯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나 역시 너무 기쁘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你好!”라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면서도 온기가 맴돌았다. 아이들이 수업에서 배운 인사를 기억해 준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으며, 중국어에 대해 아이들이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중국 문화 체험 수업을 함께했다. 아이들과 함께 판다 종이접기를 만들고, 손목에 차는 매듭 팔찌를 만들기도 하며, 같이 버블티도 만들어 마셨다. 당나라 시를 활용한 부채를 함께 꾸미기도 했다. 여러 번의 체험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중국 문화를 점점 더 이해하고, 중국어 수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온양의 가을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중국어 교실에 전환점이 찾아온 시기이기도 했다. 그 학기에 있었던 학교의 교과 전시 활동이 중국어 수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행사 당일, 나는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중국어 홍보 부스를 정성껏 꾸몄다. 나는 아름다운 중국 전통 옷을 입고 부스의 ‘움직이는 간판’이



되어, 찾아오는 학생들을 미소로 맞이했고 판다 볼펜과 중국 특색있는 간식들을 나누어 주었다. 테이블 위에서는 중국어 수업의 재미있는 순간들을 볼 수 있었고, 학생들은 선배들이 중국어로 인사를 하거나 판다 종이접기를 만드는 영상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3학년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중국어로 “중국어 공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선생님도 재미있고, 우리 수업도 정말 재밌어!”라고 말했다. 이러한 추천은 어떤 홍보 문구보다도 더 설득력 있었다. 그때 1학년의 한 여학생이 내게 “선생님, 중국 전통 옷 너무 예뻐요!”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기쁘면서도 몽클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언어의 장벽을 넘는것은 단순히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매력을 느낄 때 비로소 더 멀리 퍼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과 전시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더 많은 학생이 중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는 중국어’를 기획했다. 1학년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여러 반에 들어가 몇 분간 짧게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는 항상 간단한 중국어 인사로 시작했다. “大家好!我是汉语老师!(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你好,老师!(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따라 말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정확히 발음해 냈다며 활짝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날 수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다. 또 나는 중국 매듭, 부채, 귀여운 판다 인형 같은 소품들을 챙겨 가 아이들과 소통했다. 학생들은 신기해하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중국어로는 뭐라고 해요?”라고 질문하며 모여들었다.

한편, 파트너 선생님과 나는 2학년 중국어 수업에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중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스스로 학습 경험을 공유하도록 격려한 것이다. 어떤 학생은 학급 회의시간에 중국어로 간단한 당나라 시를 낭송했고, 또 어떤 학생은 조별 활동 시간에 자신이 만든 중국 전통 공예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소소한 공유들이 학교 전체로 조용히 퍼져 나가면서 더 많은 학생이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늦가을 새 학기 선택 과목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중국어를 선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파트너 선생님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교장 선생님도 우리를 칭찬하며 앞으로도 중국어 수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다. 나는 큰 성취감을 느꼈다. 비록 우리가 지방의 여자고등학교에서 아주 소소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열정과 노력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학생이 중국어를 접하고, 중국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황금빛 가을은 자연의 수확뿐만 아니라, 중국어 교육의 길에서 작은 결실을 본 계절이었다. 앞으로도 도전은 계속되겠지만, 온양의 이 가을은 내게 확신을 주었다. 언어와 문화라는 씨앗은, 정성껏 가꾼다면 언젠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온양의 겨울

처음 온양에 도착했을 때 겨울의 끝자락이었다. 공기는 차갑지만 맑고 신선한 기운이 가득했다. 그날 나는 부산에서의 CPIK 사전 연수를 막 마치고, 긴장과 기대를 안은 채 파트너 선생님의 차를 타고 지금은 낯설지만 곧 익숙해질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학교로 가는 길, 파트너 선생님은 중국어로 학교의 상황, 숙소 배정, 학생들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친절하고 말투와 부드러운 태도는 겨울의 차가움을 녹이듯 나의 걱정을 조금씩 덜어 주었고, 처음 겪는 이국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사라졌다.

이번 겨울, 나는 이미 온양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고, 파트너 선생님과도 호흡이 잘 맞았다. 모든 수업 준비, 수업 운영은 자연스러울 만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는 한국어로 문법과 문화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는 발음과 낭독을 맡아 중국어의 성조와 억양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심지어 우리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하면 수업을 더 흥미롭게 만들 수 있을지, 학생들의 관심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곤 했다. 그녀는 늘 나에게 새로운 교수법을 과감히 시도해 보라며 응원했고, 나는 그녀에게 한국어 발음이나 학생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종종 조언을 구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깊이 깨달았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나 함께 성장하는 여정이 라는 사실을.

온양의 겨울은 비록 춥지만, 그곳에는 사람 냄새가 가득했다. 겨울의 중국어 교실은 언제나 진한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파트너 선생님, 학생들과의 우정도 점점 깊어져 갔다.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 나에게 연말 공연을 보러 와달라고 초대했고, “선생님 덕분에 중국어에 흥미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주기도 했다. 또 한 학생은 아직 중국어로 나와 편하게 대화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중국어를 배웠다. 어느 날 그 학생이 용기 내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대학 가면 중국 언어문학을 전공할 거예요. 내년 대학에 합격하면 꼭 중국에 가보고 싶어요. 중국 유학도 준비하려고요.” 그 말에 나는 깊이 감동했다. 작은 교실, 추운 겨울 속에서도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을 뜨겁게 데워 주었고, 1년 동안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온양의 사계절은 내게 수없이 많은,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다. 초봄의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한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풍성한 결실, 그리고 겨울의 따스한 마음이 녹아든 날까지. 나는 자연의 변화를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문화가 전달되고 또 이를 가르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온양은 내가 일하고 생활했던 공간을 넘어, 나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곳이다.

온양을 떠나는 날, 익숙해진 학교를 뒤돌아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 온양. 난 내게 사계절을 선사했고, 교육의 의미와 문화 간 소통의 힘을 느끼게 해줬어.”

온양의 사계절은 영원히 내 기억 속에 남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다.



温阳的春夏秋冬

刘雯静

成年以后，离家求学，即使在故乡，都没能够完整地去体会过一个地方完整的四季。春秋总是在学校里度过，夏冬则是在故乡，于是关于春夏秋冬四季的回忆也被拆成了学校与故乡。但是，就在韩国温阳，在异国他乡，完整的体会了一个地方的春夏秋冬，回忆也随着季节的变化而慢慢增长。

温阳的春

春天，是万事万物都充满生机的季节，随着气候逐渐变暖，小小的种子也泥土中生根发芽，破土而出，一切初始。三月初，刚刚开学，我第一次来到了我所任教的学校，第一次走进了汉语课堂。学生们也是这学期刚开始学习开始，一切都是新的，一切初始，新的老师，新的学生。在来到学校之前，我只大致的从前任学姐那里得知，我所任教的学校是一所女子高中，我们的学生有很多，汉语班级也有很多，所以我带着紧张的心情，第一次登上了讲台，见到了我的学生。记得开学的第一课，我带着准备好的PPT，做了自我介绍，学生们的态度都特别认真，对从中国来的老师特别好奇。在课堂上，虽然她们不懂汉语老师在说的话是什么意思，但是每次只要我一开口大声朗读，她们就像复读机一样，模仿我说的话非常可爱！在春天这个季节，我的内心被孩子们真诚可爱的态度逐渐温暖，伴随着樱花的盛开，也和孩子们一起去在樱花树下拍照，感觉韩剧的剧情发生在我的身上，这种感觉真的非常奇妙。

温阳的夏

不知不觉，樱花落了，取而代之的是樱花树绿的鲜艳的叶子，在经过一学期的汉语学习之后，我和同学们都逐渐适应彼此，我们互相探索出适合彼此的一套学习模式，同学们在一声声跟读之后，逐渐能够在我不领读的情况下，能够准确读出词汇，读出课文。在课堂上，我们相互配合，有学生们的积极配合，汉语课堂上的时间过得非常快，一眨眼一节课就过去了。

记得有一次，在午饭后，和办公室的老师们一起散步，大家在校园里走路散步，由于我的汉

语水平有限，并不能和韩国的其他老师顺利的沟通，每次散步只能和他们一起在旁边走路，但是，在一路上，自从孩子们学完关于汉语的问候之后，有一次几个学生，她们看到我之后，虽然还不太熟练，她们好像非常着急，和旁边的同学窃窃私语，我们已经走过去了，忽然，又跑过来，追上我，一起商量好齐声的和我说“老师好！”原来在我们刚刚经过的时候，她们是在着急的小声的和身边的同学确认，怎么和老师问好？老师好用汉语怎么说。确认好之后，她们再一起走到我的身边齐声的和我说“老师好！”当时身边的其他老师，分别也投来惊讶的目光，看着同学们，我也非常开心，和同学们一起问候，你们好！当时那种心情十分复杂，特别骄傲同学们能够记得课堂上的问候，觉得她们非常可爱，同时又觉得欣慰，孩子们对于学习汉语充满热情。之后在暑假结束之前，我们在结课之后，又带着孩子们一起体验了许多中华文化的课程，一起制作熊猫折纸，一起编手链，一起做珍珠奶茶，一起制作唐诗扇，在一次次体验中，我感觉到孩子们越来越了解中国的文化，越来越对汉语课感兴趣。

温阳的秋

秋天是收获的季节，也是汉语课堂迎来转机的时刻。这一学期，学校的课程展示活动为汉语课注入了新的活力。记得活动当天，我和搭档老师精心布置了汉语宣传展台。我穿上了精美的汉服，成为展台的“活招牌”，一边微笑迎接前来咨询的学生，一边分发小熊猫圆珠笔和中国特色小零食。桌上的循环播放视频展示了我们汉语课堂的有趣瞬间，学生们看到自己学长学姐们用汉语打招呼、制作熊猫折纸的视频时，眼里闪烁着兴奋的光芒。

三年级的同学们也积极参与，她们主动用汉语对学弟学妹们说：“学习汉语其实并不难，老师很有趣，我们的课堂也很好玩！”这种现身说法比任何宣传标语都更有说服力。一位一年级的女生对我说：“老师，汉服很漂亮！”听到她的话，我既开心又感慨：原来语言的传播，不仅仅在于课堂，还在于文化的魅力。

在课程展示之后，我们并没有停止努力。为了吸引更多学生选择汉语课，我和搭档老师制定了“走进班级”的计划。在一年级的早自习时间，我们挨个班级进行短短几分钟的汉语试讲。每次进入班级，我都会用简单的汉语问好：“大家好！我是汉语老师！”然后教他们用中文回答：“你好，老师！”虽然只是短短的一句问候，但学生们会因为成功模仿发音而露出笑容。接着，我会带上一些有趣的小道具，比如中国结、折扇，甚至一只可爱的熊猫公仔，用这些和他们互动。很多学生对这些感到新奇，结束后会围过来问：“老师，这些东西是什么？”“中文怎么说？”

同时，我和搭档老师也在二年级的汉语课堂上尝试新方法，鼓励选修汉语的同学们主动分享自己的学习体验。有学生在班会上用汉语朗读简单的唐诗，也有学生在小组活动中展示自己制作



的中国传统手工艺品。这些看似简单的分享却在全校范围内悄然传播，让更多学生对汉语产生了兴趣。

到了秋末，新的选课调查结果出来了。当得知有超过一半的学生选修汉语时，我和搭档老师都感到由衷的欣慰。校长也特意表扬了我们的努力，并表示学校会继续支持汉语课程的开展。那个时刻，我心中充满了成就感。尽管我们只是在温阳的这所小小的女子高中，做了一些微不足道的事情，但这份热爱和坚持，正让越来越多的学生接触到汉语，了解中国文化。

这金黄的秋天，不仅仅是自然的收获，更是汉语教育路上的一次小小的丰收。我明白，未来的路还会有挑战，但温阳的这一季，让我更加坚定地相信，语言和文化的种子，只要用心栽培，总有一天会开花结果。

温阳的冬

最初来到温阳时，正值冬末，空气中弥漫着寒冷而清新的气息。那一天，我刚结束在釜山的CPIK岗前培训，怀揣着紧张与期待，坐上搭档老师的车，驶向这个陌生却即将熟悉的地方。一路上，搭档老师用温暖的中文耐心地向我介绍学校的情况、住宿安排以及学生们的特点。她亲切的话语和温柔的态度，仿佛为我驱散了冬日的寒意，也让我渐渐放下了对异国生活的担忧。

这个冬天，我已经适应了温阳的节奏，也与搭档老师建立了深厚的默契。每一次备课、授课，我们都配合得非常熟练。她用韩语详细讲解语法和文化背景，而我则负责带领学生们学习发音和朗读，生动地展示汉语的音调变化。我们甚至会在课后讨论如何让课堂更加有趣、更贴近学生的兴趣。她常常鼓励我大胆尝试新的教学方法，而我也向她请教韩语发音和学生们的内心想法。在这个过程中，我深深体会到，教育不仅仅是教授知识，更是一场跨文化的合作与成长。

温阳的冬天虽然寒冷，但却充满了温暖的人情味。冬天的汉语课堂总是洋溢着浓浓的节日气氛。我与搭档和学生们的友情也在逐渐加深，学生在课堂上邀请我去看她们年末的表演，黑我说谢谢老师，让我产生了对汉语学习的热情，有一个学生，虽然汉语还没办法和我顺利交流，但是她特别努力，和我说老师，在大学我准备学习汉语言文学专业，明年我考上大学之后，一定会去中国看看，要准备在中国的研修。我非常感动，在小小的教室里，寒冷的冬天，我的心因为学生的热情而感动，感觉这一年的努力并没有白费。

这一年的温阳四季，带给我无数难忘的记忆。从初春的樱花初绽，到盛夏的绿荫葱茏，从金秋的硕果累累，到寒冬的热情相拥，我见证了自然的轮回，也参与了文化的交流与传递。温阳不仅成为了我工作与生活的一部分，也成为了我成长的一部分。走出温阳的那一天，我回头看着这片熟悉的校园，心里默念着：“谢谢你，温阳，让我完整地体验了的四季，也让我感受到教育的意

义与跨文化交流的力量。”

这四季的温阳，将永远留存在我的记忆里，成为我人生中一段美好的篇章。



진심으로 한국을 느끼며

부여고등학교 쉬엔샤오

“안녕하세요”라는 한 마디가 제 한국 생활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올해 2월, 중국 어 교육과 중화 문화 전파에 대한 가득 찬 열정 그리고 K팝에 대한 사랑을 품고, 저는 한 무리의 동료들과 함께 짐을 챙겨 한국이라는 땅을 밟았습니다. 그전에는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 짧게 서울에 머문 적이 있을 뿐 사실 한국은 저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 문화의 충돌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가장 익숙지 않았던 것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交际(교제)할 때 인사로 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중국에서도 예의를 갖춰야 하지만, 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 없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친구와 聊天(채팅)할 때면 저는 항상 웃으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미 근육 메모리가 생겼다고 말하곤 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 저는 매우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어서 만나서 인사하는 것을 회피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온 후에야 서서히 이런 교제 방식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직장에는 또 많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할 때 화장을 해야 하고, 점심시간에 늦잠을 자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사무실에서 실내화로 갈아 신어야 하고, 퇴근 후에는 동료끼리 더 이상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 등입니다. 직장 동료 회식 문화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으며, 흔히 ‘친목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에 막 왔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학교의 다른 선생님들께서 저를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저를 친목회에 데려가는 것 외에도, 자주 음식을 챙겨 주시거나, 저를 데리고 한국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순간들은 항상 제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으며, 이는 제가 초기에 마음 적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생활 측면에서도 적응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중국 음식은 종류, 색상, 맛에 있어서 모두 매우 풍부한 반면, 한국 음식은 단맛과 매운맛이 주를 이루며, 반찬의 종류는 중국에 비해 더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음식의 맛이 완전히 다르고, 저는 마침 새로운事物(사물)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

워하는 사람이어서 꽤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后来(후래) 마음을 고쳐 먹고 ‘와 버렸으니, 한번 시도 해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어느새 많은 뜻밖의 맛있는 음식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급식실에서 먹은 잡채와 탕수육, 학교에서 나눠 준 치킨버거, 친목회에서 먹은 한우와 회, 파트너 선생님께서 사 주신 삼계탕 等等(등등)이 점차 한국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단지 제가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으로 느껴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어요.

사회生活(생활), 직장, 식생활 등의 측면에서의 문화적 충돌과 마찰 외에도 문화적 차이 때문에 生活(생활) 속에서도 항상 작은 에피소드들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生活(생활)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할 수 있었지만, 마음가짐이 끊임없이 서서히 변해감에 따라 生活(생활)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2. 문화의 융합

비록 중한 문화 사이에 많은 마찰과 충돌이 있지만, 동시에 동아시아의 매우 대표적인 국가로서 두 나라의 문화에는 也有很多(역시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한국 生活(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한국어 어휘의 약 60%가 한자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발음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쉬웠고, 많은 단어와 문장의 대략적인 뜻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전통적인 집단주의이며 사회 윤리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계급秩序(질서)와 예절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한국의 사회 관계에 더 빠르게 적응하고 융합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교의 심리 선생님께서는 저를 매우 챙겨주셨는데, 그녀는 항상 친목회时(시) 제품情绪(정서)를 살펴주시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고, 항상 一些(일부) 중국 명절 때면 저에게 특별한 祝福(축복)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저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한국 모두 전통 명절을 매우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설날과 추석처럼重大的(중대한) 명절에는 가족团聚(단취), 조상祭祀(제사) 등의习俗(속습)이 있습니다. 가장 감동했던 것은 올해 추석 전이었습니다. 10월에는 连休(연휴)가 있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团聚(단취)하는 时期(시기)인데, 副校长(부교장)님께서 저 혼자 한국에 있어 외로울까 걱정되어, 特意(특의) 휴가 전에 한국 전통 点心(간식)을 사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를 매우 감동시키었습니다.

중한两国(양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윤리관에서든 审美(심미)와 생활 방식에서든, 비록 极具(겁급) 특색의 개성을 발전시켰더라도 여전히 뚜렷한 문화적 공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융합입니다.



3. 문화의 적응

문화는 충돌과 융합 속에서 끊임없이 맞추어져 적응해 나갑니다. 跨文化(과문화) 접촉은 사람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 요인에는 往往(왕왕)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生活(생활)한 这一年(1년) 동안 저는 아주 많은 신기한 体验(체험)을 얻었습니다. 비록 때로는 压力(압력)이 매우 크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这也(역시) 제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이 시간과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 또한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异国他乡(타향)에 身处(신처)함으로써 얻은 그 독특한 따뜻함을 体会(체회)했습니다. 제 看来(관래), 문화적 적응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善意(선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바로 제 주변에 항상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부여고등학교의 교장님, 副校长(부교장)님, 제 파트너 선생님, 그리고 그 외 저를 묵묵히 包容(포용)해 주신 선생님들과 学生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善意(선의)가 없었다면 저 또한 이 낯선 땅에서 依赖感(의렴감)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期间(기간) 동안 문화적 적응이 제 마음 상태에 미친 영향은 无疑(의무) 도전이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因为(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저는 더욱 용기를 내어 문제에 직면하고, 문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그로부터 经验(경험)을 흡수하여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总而言之(총而言之), 감사합니다, 这一年(1년), 제 23년 인생 中最(중최)独特(독특)한 一年(1년)에게. 몇 사람, 몇 가지 일, 몇 가지 食物(사물) 때문에, 저는 항상 前进(전진)하는 길에서 따뜻함을 느껴왔습니다. 이 순간, 우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은 더 이상 国籍(국적)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연결되고, 사랑 때문에 저는 더욱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用心感受韩国

宣潇

“你好”这句话正式开启了我的韩国生活。今年2月，我怀着对中文教育和中华文化传播的满腔热情，以及对 K-POP 的喜爱，和一群同事整理行李，踏上了韩国这片土地。在此之前，我仅在来看演唱会时在首尔短暂地待过几天，因此韩国对我来说几乎是一个陌生的地方。从那一刻起，我才真正开始用心感受在韩国生活的每一个瞬间。

1. 文化的碰撞

刚到韩国时，让我最不习惯的一点，是无论和认识的人还是陌生人交往，都要以鞠躬问候作为礼节。虽然在中国也讲究礼貌，但是否需要鞠躬并没有严格规定，更多取决于人与人之间的关系。每次和朋友聊天时，我都会笑着说：“现在我看到韩国人就会自动鞠躬，完全是肌肉记忆了。”毕竟在中国的时候，我是一个非常害羞、甚至会刻意回避当面打招呼的人。来到韩国之后，我才慢慢适应了这种社交方式。

韩国职场也有许多特别之处。例如：上班必须化妆；午休时间几乎不会有人睡觉；在办公室里要换上室内拖鞋；下班后同事之间基本不互相打扰等等。此外，职场同事之间的“聚餐文化”也随处可见，通常被称为“亲睦会”。刚到韩国的那段时间，有许多事情我都还没办法适应，幸好学校里的老师们对我非常照顾。除了带我参加亲睦会之外，他们还经常给我带吃的，或带我去品尝韩国的特色美食。这些温暖的瞬间，我一直珍藏在心，因为它们在我来到韩国初期快速适应环境、安定心情方面，给予了我非常大的帮助。

在饮食方面，我也需要适应许多新的变化。与韩国相比，中国菜在种类、色彩和味道上都更加丰富；而韩国食物以甜味和辣味为主，小菜的种类却比中国更多。刚开始时，我觉得中韩两国的味道差异非常大，而我又是个不太敢轻易尝试新事物的人，因此常常感到犹豫。但后来我调整了心态，告诉自己：“来都来了，就大胆尝试吧。”就这样，我渐渐发现了许多意想不到的美味。比如在食堂吃到的杂菜和糖醋肉、学校发的鸡肉汉堡、亲睦会上吃到的韩牛和生鱼片、搭档老师请我吃的参鸡汤等等，都让我逐渐意识到：韩国其实也有很多好吃的食物。只要我愿意停下

脚步、敞开心扉，就能发现这些美味的存在。

除了在社会生活、职场和饮食方面经历文化上的冲突和磨合外，生活中也常常因为文化差异而出现一些小插曲。刚开始的韩国生活确实充满了许多意想不到的困难，但随着心态一点点调整，我的生活也在慢慢变得越来越好。

2. 文化的融合

尽管中韩文化之间存在许多摩擦与冲突，但作为东亚具有代表性的两个国家，两国文化之间也有许多相似之处。这些相似点也让我能够更快适应韩国的生活。

韩国在历史上长期使用汉字，因此韩语词汇中大约有 60% 来源于汉字词。即使我韩语说得不太好，也能因为发音相近而更容易理解，并能大致猜到许多词语或句子的意思。

中国和韩国都是传统的集体主义国家，非常重视社会伦理关系，也非常注重等级秩序与礼节。这一点也帮助我更快适应并融入韩国的社会关系。学校的心理老师对我照顾有加，她在每次聚餐时都会关心我的情绪，主动与我聊天，在一些中国传统节日时还会特地向我送上祝福。这些细节我一直铭记在心。

此外，中国和韩国都非常重视传统节日。在春节和中秋这样的重要节日里，两国都有家庭团聚、祭祀先祖等习俗。最让我感动的是今年中秋节前夕。10 月有连休，在韩国这通常是家人团聚的时期，副校长担心我一个人在韩国会感到孤独，特意在放假前买了韩国传统点心送给我。这让我深受感动。

由于中韩两国隔海相望，无论在传统伦理观念上，还是在审美与生活方式上，虽然都发展出了各自独特的民族特色，但仍然保持着明显的文化共通性——这正是文化融合的体现。

3. 文化的适应

不断的冲突和融合当中，我也逐渐适应韩国的文化。跨文化交流会影响一个人的适应过程，而影响因素往往既包括外部因素，也包括内部因素。在韩国生活的一年里，我经历了许多新奇的体验。虽然有时也会感到压力很大，但这也意味着我的生活方式和思维方式正在随着时间与文化不断变化。在逐渐适应的过程中，我也切身感受到身处异乡所带来的那份独特而温暖的感受。在我看来，文化适应不仅需要时间，也需要发现善意的能力。正因为我身边一直有许多人给予我帮助——包括扶余高中的校长、副校长、我的搭档老师，以及所有默默包容我的老师和学生们——如果没有大家的善意，我在这片陌生的土地上也无法获得归属感。在这段时间里，文化适应带给我



的心理挑战毋庸置疑，但我并不害怕。正因为文化差异的存在，我才更加勇敢地面对问题、思考问题、解决问题，并从经历中不断吸收经验、持续成长。总而言之，谢谢你——这一年，我23年人生中最独特的一年。因为一些人、一些事、一些食物，我在前进的路上始终感受到温暖。此刻，我们之间隔着的已不再是国籍。因为爱，我们得以相连；也因为爱，我变得更加勇敢。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갈등’이 ‘불꽃’이 되기까지: 중한 파트너 교사들의 ‘협력 수업’ 성장 기록

여천고등학교 양광

나의 CPIK 이야기는 한국인 협력 교사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 CPIK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훨씬 전부터, 나는 한국의 중국어 교육 방식이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바로 한국인 교사와 중국인 보조교사가 함께 수업을 운영하는 ‘협력 수업’ 방식이다. 자연스럽게, 한국인 보조교사는 내가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1. ‘협력 수업’에 대한 나의 초기 인식

대학원 시절, ‘문화 간 의사소통’ 수업을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특정 국가의 중국어 교육 현황과 문화 교류 현황을 연구해 보라는 과제를 내어주신 적이 있다. 그때 나는 한국을 선택했고, CPIK 프로그램을 연구했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협력 수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관련 문헌을 찾아보았는데, 대부분의 글에서 중국인 보조교사는 ‘조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적혀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발음 교정을 담당하며 마치 ‘걸어 다니는 발음 기계’에 가깝다고 묘사된 글도 적지 않았다. 중국어 수업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었던 나는 그런 검색 결과에 적잖게 실망했다. 교실 뒤편에 앉아 한국인 교사의 수업을 지켜보기만 하는 역할이라면, 교수 역량을 향상하는데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욕심 없이 시간을 때우고 싶지 않은 이상, 이 프로그램은 절대 지원하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간다. 1년간 남미에 있는 공자학원의 자원봉사 교사로 근무한 뒤, 수많은 고민 끝에 나는 결국 한국을 선택했고, CPIK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었다. 그렇게 나는 한국인 협력 교사와 한 팀을 이루게 되었고, ‘협력 수업’ 방식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2. 나와 한국인 협력교사

파트너 한국인 교사를 처음 만난 곳은 현지에 있는 외국인출입국사무소였다. 그녀는 직접 마중 나와 나의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도와주었다. 그녀의 첫인상은 일 처리에 빈틈이 없는 교감 선생님 같았다. 말도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고 업무 처리도 체계적으로 해내는 사람이었다. 아니나 다를

까, 실제로 그녀는 학교에서 교육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중견 교사였다. 그녀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빠르게 도와주고 나서 바로 나를 데리고 숙소를 둘러보고, 학교를 안내해 준 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롯데백화점으로 이동했다. 이 모든 일이 두 시간 만에 깔끔하게 끝났다. 그리고 나를 환영한다는 의미로 근처의 한 고깃집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매우 다른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근에 유행하는 MBTI 유형으로 말하자면, 그녀는 I, 나는 E였고, 그녀는 T, 나는 J였다. 그녀는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반면, 나는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즐긴다. 취미 역시 달랐다. 그녀의 취미는 음악 감상, 영화 관람이었고 나의 취미는 운동과 여행이었다. 성격과 취향이 완전히 반대인 우리는 그렇게 한 팀이 되었다.

3. 나의 첫 ‘협력 수업’

부임지에 도착한 지 이틀 뒤, 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렸고, 한국인 교사와 함께 진행하는 ‘협력 수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입학식이 열리기 전, 우리 기수의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들은 부산과 여수에서 사전 연수를 받은 바 있는데, 그 때 협력 수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었다. 사전 연수 덕분에 실제 수업에 투입되기 전, 협력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다. 우리의 첫 수업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했다. 나와 관련된 몇 개의 숫자를 제시하고,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맞히도록 했다. 자연스럽게 나의 경험과 배경을 학생들과 공유했다. 한국인 교사는 통역을 도와주었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었다. 학생들 역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다. 첫 수업이 잘 마무리된 덕분에 앞으로의 수업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우리의 협력 수업은 그 이후로도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새로운 어휘의 발음을 가르치고, 한국인 교사는 그 어휘의 의미와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다. 이어서 나는 학생들과 함께 연습과 복습을 함께 진행한다. 자연스럽게 절반씩 수업을 담당했고, 수업 자료 또한 내가 먼저 중국어 버전을 제작하면, 한국인 교사가 필요한 부분에 한국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준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인 교사와 중국인 교사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협력 수업의 장점이 더욱 분명하게 느껴졌다. 중국인 보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고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한국인 협력 교사는 모국어로 설명을 덧붙여 단어와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학생들이 중국의 사회, 문화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중국인’인 나는 즉각적으로 답해줄 수 있고, 한국인 교사는 수업 전 단계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포인트나 쉽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우리의 협력 수업은 서로 장점을 보완하면서 진행되었다.



4. 수업 과정의 작은 ‘의견 차이’들

호흡은 상당히 잘 맞았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중 대표적인 네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Yuan’의 발음

한 번은 운모(韻母) 발음 수업을 마친 직후, 한국인 교사가 갑자기 미간을 찌푸리며 나에게 “선생님, Yuan을 어떻게 발음하셨나요?”라고 물었다. 뜻밖의 질문이라 다소 의아했지만, 나는 평소대로 몇 차례 발음을 다시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난감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교무실로 돌아온 후, 그녀는 내 발음이 어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당혹스러웠다. 누군가 중국인, 더구나 베이징 출신인 나의 표준 중국어 발음을 지적하다니. 그 즉시 나는 나의 중국인 친구들에게 내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대부분은 특별히 이상함을 못 느꼈다고 했지만, 중국어 교사인 친구 한 명은 아마도 ‘음위(音位) 차이’를 얘기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일상 회화에서는 잘 구분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 ian과 uan에서 ‘a’ 발음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현대 중국어』에서도 해당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모국어 화자로서 나는 그런 미세한 차이를 의식하면서 말한 적이 없었다. 스스로 발음을 고쳐보려고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봤지만, 이를 완전히 바로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인 교사는 내가 쉽게 교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난감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 순간, 나의 미안함은 의문으로 바뀌었다.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 의사소통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나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한국인 교사가 대신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인 교사는 내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한국어에서는 ‘a’ 소리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음위(音位)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의 발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어 시험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설명을 들으니, 그가 왜 처음부터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논의 끝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나의 개인적 발음 습관’으로 설명하고 해당 음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국인 교사가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2) ‘拜拜’의 성조

인사 표현을 다루는 수업을 준비하던 날, 한국인 교사는 평소처럼 미리 작성한 강의안을 내게 건넸다. 내용을 훑어보던 중, ‘拜拜’의 성조가 bài bài(4성·4성)으로 표기된 부분이 눈에 띄었다. 나는 표기 오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 교사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그녀는 “맞아요, 이 단어는 사성으

로 나옵니다”라고 답했다. 나는 곧바로 “아니에요, 실제로는 모두 이성(2성)으로 읽어요”라고 말했고, 그는 한동안 강의안을 들여다보며 고민한 뒤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아 『신화사전』과 바이두백과를 찾아보니, 전자는 4성만 표기했고, 후자는 별도로 2성 발음을 제시했다. 관련 문헌을 더 찾아보니, ‘拜拜’는 외래어였다. 18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유행했고 이 때문에 과거의 사전에는 2성 표기가 없었으며, 새로 편찬된 사전에만 2성 발음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평소 대화할 때의 언어 습관에 따라 2성으로 읽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지만 한국인 교사는 사전 표기를 따르는 것이 학습자의 혼란을 줄인다는 점, 특히 한국에서 사용되는 사전에 대부분 4성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입장 모두 타당했기에,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강의안에는 사전 표기(4성)를 유지하되, 수업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발음(2성)을 함께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표기해 두도록 안내하여 기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3) ‘印度(인도)’의 중음

국가 이름을 가르치는 수업을 마친 뒤, 한국인 교사는 또다시 나를 불러 세웠다. 내가 학생들과 함께 ‘印度(인도)’라는 단어를 읽을 때 ‘yìn du’처럼 앞 음절에 강세를 두어 읽었는데, 실제 표준 병음은 ‘yìn dù’라는 지적이었다. 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발음해 보았고, 실제로 내가 앞 음절을 더 강하게 읽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印度’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첫음절에 힘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했다. CCTV 뉴스 진행자의 발음도 찾아보았는데, 아나운서 역시 앞 음절을 더 강하게 읽는 것이었다. 이후 ‘원신이옌(文心一言)’이라는 AI 도구를 활용해 설명을 찾아보니, 중국어에서는 특정 국가명을 발음할 때 강조를 위해 첫음절을 강하게 읽는 특징이 있다는 답을 얻었다. 예컨대 ‘미국, 일본, 인도, 미얀마’ 등 단어는 실제 언어 흐름 속에서 첫음절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발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 교사는 실제 발음 방식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두 글자 모두 4성인데, 왜 읽을 때는 둘째 글자를 4성으로 읽지 않는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실제 회화에서 쓰이는 발음을 배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아이들은 막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단계이므로, 우선 이론대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인 교사는 설명했다. 학생들이 더 깊게 중국어를 배울 때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나는 그의 판단을 존중했고 수업 때도 표준 발음대로 읽었다.



(4) ‘有’의 비교문

‘有(you)’ 비교문을 가르치는 수업도 한국인 교사와 나 사이에 비교적 논쟁이 컸던 부분이었다. 한국인 교사가 준비한 강의안에는 “양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싸다(‘有’를 사용한 비교문)”라는 예문이 제시되었는데, 나는 중국어 화자로서 이 문장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다. 중국어에서는 보통 “양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싸다(‘比’를 사용한 비교문)”라는 ‘比’ 비교문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인 교사는 자신이 중국어를 배울 때 ‘比’와 ‘有’ 두 종류의 비교문을 모두 배웠으며, 왜 어색한지 물었다.

나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문법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중국어 문법을 전공한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有’비교문을 사용하려면 전제가 있다고 하셨다. 즉, ‘有’ 비교문은 반드시 대화에서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양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싼가요? (‘有’를 사용한 비교문)”라고 묻는 상황에서는 “양고기가 소고기보다 비쌉니다. (‘有’를 사용한 비교문)”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문장에서 비교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比’를 사용해야 자연스럽다. 나는 이 내용을 한국인 교사에게 공유했고, 수업에서 언급되는 예문은 모두 대화형 문맥으로 바꾸고, 강의안에 등장하는 ‘有’ 비교문 역시 질문형 문장으로 수정했다.

5. 맺음말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한국인 교사와 함께 강의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다. 지금 돌아보면, 이러한 ‘의견 차이’는 협력 과정에서 서로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교학상장(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서로 성장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은 ‘교교상장(함께 가르치면서 서로 성장하다)’ 하여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从“摩擦”到“火花”： 中韩搭档“合作教学”成长手记

杨光

我的CPIK故事，要从搭档老师说起。早在报名韩国的CPIK项目之前，我就了解到韩国的中文教学模式和其他国家不太一样，这里有着较为独特的“合作教学”模式（即韩国本土教师和中国教师合作授课）。搭档老师，便成为了我在韩国教学生活的重要组成部分。

一、我对“合作教学”的早期认识

在研究生期间，跨文化交际课程的老师曾让我们去深入调研某个国家的中文教学现状及跨文化交流情况，我当时就选择了韩国的CPIK项目。这个项目中的合作教学模式引发了我的好奇，于是我搜集了一些相关文章。其中大部分文章都在说，中国的志愿者教师在这个项目中扮演的是“助教”的角色。很多时候只是负责正音的工作，仿佛是“行走的发音机器”。这个搜索结果让我略失小望，因为我很期待在中文课堂上发挥自己的才能。如果只是坐在教室后面听本土老师上课，那我在教学方面是很难得到锻炼和提升的。所以当时的我在心里暗想，除非我想“躺平”，否则自己一定不会报名这个项目。但命运充满了戏剧性，在去南美洲担任过一年孔院志愿者之后，我出于各种考虑最终选择来到韩国，成为了CPIK项目的一员。与此同时，我也拥有了自己的搭档老师，开始亲身体验这种“合作授课”的教学模式。

二、我和我的韩国搭档老师

第一次见到我的搭档老师，是在当地的外国人出入境服务所。她来接我，并协助我办理登录证的相关事项。她给我的初印象，是那种雷厉风行的教导主任。说话做事干净利落，有条不紊，能把一切安排地井井有条。果不其然，她在学校里确实是位领导，是教育研究部的部长。她以全场最快的速度带我办理完登录证后，又火速地带我看了公寓，带我参观学校，然后去乐天百货置办生活用品。这些事情，仅用了不到两个小时。随后，她带我来到了一家烤肉店，算是为我接风洗尘。我们一边吃饭，一边聊天，发现两个人竟有很大的不同。用最近很火的MBTI人格类型来说，她是I人，我是E人；她是T人，我是J人。她喜欢安静、独处；我喜欢热闹、社交。还有兴趣

爱好也是，她喜欢听歌、看电影，我喜欢运动、旅行。就这样，我们两个性格截然不同的人，成为了搭档。

三、“合作教学”初体验

在抵达赴任地两天后，学校就举办了新学期开学典礼，我和搭档老师的“合作教学”也就此展开。其实在此之前，我们这一批志愿者曾在釜山、丽水进行岗前培训，其中就有关于合作教学模式的观摩课。感谢这些培训课程，让我在正式进入这种合作课堂之前，有了一定的心理准备。

所以，我们的第一节课进行得很顺利，我用互动游戏的方式进行了自我介绍。我给出了几个和自己有关的数字，让学生猜测它们分别代表了什么意思，并由此介绍自己的过往经历。

在这个过程中，搭档老师辅助我进行翻译，并帮我调动学生情绪，学生们也给予了很热烈的回应。这节课的圆满成功，也让我对接下来的教学生活充满了希望。

我们之后的合作教学也确实很顺畅。通常情况下，是我来负责生词部分的领读，搭档老师负责讲解词义和语法，然后我带着学生进行操练、复习。两人穿插着进行教学，基本上一人负责半节课。课件也是我先制作一份中文版本的，搭档老师再在必要的地方添加韩文翻译。慢慢地，我感受到了这种合作教学模式的好处。那就是可以充分发挥中国教师和韩国本土教师各自的优势：中国教师能够为学生提供标准读音、营造语言环境，韩国教师则能够用母语进行解释说明，使学生能够较容易地理解词汇和语法。

此外，当学生提出一些关于中国国情和文化习俗相关的问题时，我这个“中国人”可以当场给予回应；而韩国教师则能够在教学之前，就提前预判学生可能存在的易错点与难点。我们的合作教学，可以说是相辅相成。

四、教学中的“小摩擦”

虽然我们的配合相当默契，但在教学的过程中也出现过一些小摩擦。比如，下面这四段小插曲：

(1) “Yuan”的读音

在一节教授韵母发音的课后，搭档老师突然皱着眉头问我“老师，你是怎么读Yuan的？”我有点儿奇怪，怎么突然问我这个，然后就读了几遍。没想到搭档老师摇着头无奈地笑了。回到办公室之后，她和我解释说，感觉我的发音不太对。我对此也很震惊，没想到我作为一个中国人，一个北京人，普通话的发音居然被质疑了。于是我急忙跑去和中国朋友们求证，让他们听听我的发



音究竟有没有问题。大多数人说听不出来有什么问题，但也有同样是中文老师的朋友说，我搭档老师说的应该是音位问题。正常说话的时候大家察觉不到，但如果深究起来，“ian”和“uan”中“a”的发音是不一样的。我也想起来，《现代汉语》中有对这部分的详细解释。但作为母语者，我从未重视过这个问题。我尝试着去改，跟着视频练习了很多次，可还是很难更正。

搭档老师看着我很难纠正过来，神情愈发惆怅。此时，我心里慢慢地由愧疚变为疑惑：这个问题真的有那么严重吗？发音不是能够理解就好吗？如果我读的不标准，那由她领读这个音不就行了？后来，搭档老师和我解释，由于韩语中对“a”的区分比较细致，所以需要教学生们辨别音位。而我的发音会让学生觉得，课上教的是不是错的。最重要的是，韩国的中文考试中会有关于这个问题的考试题目，她不希望误导学生。至此，我也明白了她面露难色的原因。后来，我们商量后决定，向学生解释为这是我的个人发音习惯。在需要教这个音的时候，由搭档老师负责领读。

(2) “拜拜”的声调

在讲打招呼用语这节课前，搭档老师如往常一样先给了我一张讲义。我扫了一眼，发现有个地方有点不对劲——拜拜的声调标成了bài bài。于是我去找搭档老师指出这里，看看是不是标错了。但搭档老师说，“没错啊，这个字就是四声”。我急忙说“不是啊，我们都读二声”。搭档老师拿着讲义深思了很久，说字典上就是这么标的啊。我感到难以置信，然后去查了新华字典和百度百科。发现字典上的标注确实只有四声，但百度百科上单独列出了二声的发音。我查阅文献后发现，拜拜是个外来词，19世纪80年代才在国内流行起来，也难怪早期的字典上没有这个音的记载，只有后来新编的字典里才将这个读音加进去。

对此，我认为我们应该按照正常交际的语言习惯标成二声，以便学生识记；但是我的搭档老师认为应该按照字典的发音来标注，不然学生查字典的时候会产生疑惑。尤其是韩国这边的中文字典，上面只标注了四声。站在我们两人的角度来看都没错，但双方各执一词，也实在难以抉择。最后我们决定在讲义上按照四声来标注，不过要在上课的时候告诉学生实际的发音，然后让学生自行备注，从而加深印象。

(3) “印度”的重音

上完国家名称这节课后，搭档老师又把我叫住了。她说我带领学生读印度的时候，读的是“yìn du”，但实际拼音是“yìn dù”。我自己又多读了几遍，发现确实是这样。不过我感觉，大多数中国人在读印度的时候都是重音在前。对此，我还特意去查了新闻联播里的发音，发现专业的主持人也是这样读的。后来，我又求助了“文心一言”（AI工具），得到的解释是：在提到国家名称

时，中国人有时候会把重音放在前面以表强调。例如“美国、日本、印度、缅甸”等，在语流中都是前一个音重读，末尾音弱化。

对此，我的搭档老师认为，这样会使学生感到混乱。学生会想，明明拼音标注的两个字都是四声，为什么读起来就变成了四声和轻声呢？我对此感到很不解，学生难道不应该学习会话中的真实发音吗？但我的搭档老师说，学生现在刚接触中文，需要建立秩序，这个问题就等他们以后深入学习中文的时候再了解吧。于是，我也只好作罢，在课上领读时改变了自己的发音。

(4) “有”字比较句

在教授比较句时，“有”字比较句也是我和搭档老师争执比较大的地方。搭档老师给我的讲义中有“羊肉有牛肉贵”这样的例句，这个句子让我感觉很别扭，因为我感觉中文里更习惯说“羊肉比牛肉贵”。但是我的搭档老师感到很疑惑，她自己在学习中文的时候明明学的是“比”和“有”两种比较句，为什么这个句子不能用呢？

我发觉到，这是个有点难解释的语法，于是去请教了专门研究语法的教授。教授解释到，我之所以觉得别扭，是因为“有”字比较句的使用是有前提的，即要在对话中出现。比如当提问“羊肉有牛肉贵吗？”，可以回答“羊肉有牛肉贵”。但如果想单独说一个句子表达比较的概念时，要用“比”。我把这些解释拿去和搭档老师讨论，最后我们决定把课堂中的操练句式都换成对话形式，然后把讲义里出现的“有”字比较句换成问句形式。

五、结语

以上就是我和搭档老师之间发生的一些小故事。现在回想起来，这些“小摩擦”更像是我们两个人在合作过程中碰撞出来的“火花”。那些发生争执的时刻，正是我们彼此学习，共同进步的关键节点。如果说老师和学生之间可以用“教学相长”，那我们两个人属于是“教教相长”——在合作教学的过程中各取所长、共同成长。



한반도 끝에서 만난 중국 문화의 시작

해남동초등학교 두자치

2024년 2월부터 나는 공식적으로 한국 전라남도 해남군의 해남동 초등학교에서 중국어 교사 일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조용하고 소박한 도시였다. 처음 학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중국어를 접해 본 적이 없는 한국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언어의 매력과 문화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지, 그것이 고민이었다.

1. 나의 첫 한국: 낯선 기분, 그리고 적응하기

2024년 2월 19일, 그날은 햇볕이 매우 따듯했다. 강의동은 크지 않았으며 복도 양쪽에는 학생들의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나를 안내하자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웃으며 어색한 중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는 아이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나는 1, 2학년의 중국어 수업을 맡았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은 중국어에 대한 흥미가 높았지만 집중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재는 체계적이지만, 기초가 전혀 없는 초등학생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첫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오랜 시간 동안 앉아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함께 웃으면서 중국어를 한마디라도 더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수업 방식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질문에 답하여 시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국 간식(해바라기씨, 매운 쫄면 등)을 가져왔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큰 소리로 “저는 매운 쫄면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주 외쳤다. ‘가족’을 주제로 한 수업에서 나는 학생들더러 가족 구성원을 그리게 했고 간단한 문장으로 아빠, 엄마, 형제자매를 소개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고 말하는 과정에서 점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수업 분위기도 밝아졌다. 그때 처음으로 언어 교육의 감동 포인트는 어휘와 문법이 아니라 학생들의 눈동자에 비친 ‘나도 말할 수 있다’라는 희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2. 문화 교실의 확장: 언어를 ‘움직이게’ 하라

일상적인 수업 외에도 나는 학교의 중국어 여름 캠프와 겨울 캠프에도 참여했다. 여름 캠프의 주제는 ‘안녕, 중국!’으로, 나는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문화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래서 ‘한자 보물찾기’, ‘복자 쓰기’, ‘중국 명절 전시’ 등의 활동을 기획해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은 교실 안에서 한자 카드를 찾으며 ‘산’ ‘물’ ‘사람’ ‘집’을 순서대로 읽었다. 발음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게임에 100퍼센트 몰입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많은 학생은 ‘춘절’이 한국의 설날과 비슷한 명절 풍습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직접 ‘복’ 자를 써보기도 했다. 교실 전체가 명절 분위기로 가득 찼다. 겨울 캠프의 주제는 ‘중국 예술 체험’이었다. 나는 서예, 칠선, 종이 오리기 등의 행사를 준비했다. 내향적이었던 5학년의 한 여학생이 서예 연습을 유난히 열심히 하더니 서예를 마친 후,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한자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그 순간, 문화 교육의 의미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자체에 감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3. 교실 밖: 생활과 문화의 얽힘

해남의 생활은 느긋하고 풍요로웠다. 근무 외의 시간에, 나는 자연과 인문학 관광지를 자주 방문했다. 봄에는 고창으로 가서 고산 지보리 꽃밭을 보고 여름에는 직장 동료들과 목포 해변가에서 캠핑하며, 가을에는 대흥사로 가서 단풍을 구경하고 겨울에는 학부모들과 함께 현지에서 김장 행사에 참여하였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나는 점차 현지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가 교육과 문화 전승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힘든 부분도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의 매운맛에 적응이 안 됐지만 천천히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등 요리의 독특한 풍미를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김치는 맛있 습니다’,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합니다’가 중국어로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언어 학습과 생활 경험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행 중에 나는 종종 길에서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짧은 동영상으로 찍었다.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국 초등학교의 진짜 모습을 공유하기도 했다.

4.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사이: 신입 교사의 성장 과정

나는 늘 모든 수업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교육 목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고 싶었다. 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이 게임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수업 내용을 변경하여 학생들



이 이미 배운 단어로 문장을 만들도록 가르치기도 했다. 그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아이들에게 학습의 원동력은 ‘계획’적인 강의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흥미를 느끼고 듣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과 미국 동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다. 그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인내심이 많다. 수업 템포는 타이트하지만 학생들을 대할 땐 차분하고 다정했다. 나는 점차 그들의 수업 방식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스티커로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다. 미세해 보이는 듯한 변화 덕분에 수업 분위기가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해였다. 예전에는 중국어 교사의 역할은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중국어 교사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전달하고 문화를 통해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배우는 동시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도 배우고 있는 것이다.

5. 이 여정을 되돌아보며: 언어와 문화 간 교류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해남 동초등학교에서 일한 지 어언 2년이 되어간다. 이 여정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젠 익숙해졌고, 또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게 나는 중국어 국제 교육 전공이었던 학생에서 진정한 국제 중국어 교사로 성장했다. 해남동 초등학교 아이들은 나에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의 생활은 문화 차이를 포용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앞으로 어디를 가든, 이 경험은 나의 교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것 같다. 이 경험 덕분에 국제 중국어 교육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언어가 사람들의 이해를 받을 때,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在韩半岛的尽头，遇见中国文化的开始

杜嘉旗

从2024年2月起，我正式在韩国全罗南道海南郡的海南东小学开始了汉语教学工作。这是一个位于韩国最南端的，安静纯朴的小城市。初到学校时，我心中既充满了对未来的期待，也怀揣着些许忐忑——如何让从未接触过汉语的韩国小学生在有限的课堂中感受到语言的魅力与文化的温度，是摆在我面前的第一个挑战。

一、初到韩国：陌生与适应

2024年2月19日，那天阳光很暖，教学楼不大，走廊两侧贴满了学生的画。校长带我参观时，孩子们好奇地打量我，一边笑一边用生硬的中文说：“你好！”。那一刻，我意识到自己要面对的不仅是语言课堂，还有一群期待了解中国的孩子。

我负责一、二年级的汉语课。刚开始上课时，学生们对汉语的兴趣很高，但注意力维持不久。学校提供的教材虽然系统，却不太适合完全零基础的小学生。第一次课后，我在教室里坐了很久，反复想：怎样才能让他们在笑声中记住一句汉语？

于是，我开始调整教学方式。比如在“食物”主题课，我带来一些中国小吃（瓜子、辣条等），让学生们通过回答问题获得试吃机会。课堂上经常能听到他们大声说：“我爱辣条！”在“家庭”单元，我让他们画家庭成员图，用简单的句子介绍爸爸、妈妈、兄弟姐妹。孩子们在绘画、说话的过程中逐渐建立了信心，课堂也变得活跃起来。那时我第一次体会到，语言教学最打动人的地方，不是词汇和语法，而是学生眼里那种“我能说出来”的喜悦。

二、文化课堂的延伸：让语言“动”起来

除了常规课程，我还参与了学校的汉语夏令营和冬令营。夏令营的主题是“你好，中国！”，我希望学生能在体验中感受文化，于是设计了“汉字寻宝”“写福字”“中国节日展”等活动，让孩子们在轻松的氛围中了解中国文化。。孩子们在教师里一边寻找汉字卡片，一边念出“山”“水”“人”“

家”。虽然发音还不标准，但他们玩得非常投入。最后一天，许多学生第一次知道“春节”原来与韩国的“설날”有着相似的节俗，也第一次亲手写下“福”字，整个教室都透着节日的气氛。

冬令营的主题是“中国艺术体验”。我准备了书法、漆扇、剪纸等活动。一个原本性格内向的五年级女生在练书法时认真得出奇，写完后轻声对我说：“老师，我觉得汉字很漂亮。”那一瞬间，我明白了文化教育的意义，不在于要学生记住多少知识，而是能在某个瞬间被文化打动。

三、课堂之外：生活与文化的交织

海南的生活节奏平缓而充实。工作之余，我喜欢在周末探访周边的自然与人文景点。春天，我去高敞看青稞麦花海；夏天与同事们在木浦海边露营；秋天登上大兴寺赏枫；冬天则和学生家长一起参加本地的泡菜制作活动。通过这些体验，我逐渐融入当地的生活方式，也更理解韩国社会对教育与文化遗产的重视。

生活的适应也有一些小挑战。在饮食方面，起初我并不太适应韩国偏辣的口味，但渐渐学会了享受泡菜汤、纯豆腐汤等料理的独特风味。我甚至在课堂上教学生用中文说“泡菜好吃”“我喜欢辣的”，让语言学习与生活经验相连。旅行中，我也常记录沿途所见所感，将它们拍成小视频分享给国内的朋友，让他们看到真实的韩国小学生活。

四、教与学之间：新手教师的成长轨迹

最初的我，总想把每一节课设计得“完美”，把教学目标写得尽可能具体。但在一次课堂上，我发现学生对一个游戏活动格外兴奋，于是我临时调整教学，顺势让他们用学过的单词去编句子。那节课之后，我明白了一个道理：对孩子来说，学习的动力不在“计划”里，而在他们的兴趣和情感里。

我也从韩国、美国的同事身上学到了很多。他们对学生非常耐心，课堂节奏紧凑却温和。我开始模仿他们的课堂管理方式，比如用贴纸奖励积极发言、在课后记录学生的学习情况。这些看似细微的改变，让课堂气氛更加稳定，学生参与度也提高了。

更重要的是，这一年让我重新理解了教师的角色。以前的我认为，汉语教师的职责是“教语言”；但现，我更愿意说，汉语教师是在用语言传递文化，用文化培养理解。学生在学习“你好”“谢谢”的同时，也在学习一种新的思维方式和表达方式。



五、回望此程：语言与文化的双向奔赴

从2024年2月至今，我在海南东小学的工作已经将近两年。回望这段教学旅程，从陌生到熟悉、从挑战到收获，我见证了自己从一名国际中文教育专业的学生转变为一名真正的国际中文教师。海南东小学的孩子们教会了我如何用心沟通，韩国的生活让我学会用包容的眼光看待文化差异。未来无论我走到哪里，这段经历都将是我教育人生中最珍贵的一章。这段经历让我看到了国际中文教育最真实的意义：当一门语言被理解时，文化也就被温柔地接纳了。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한국에서의 행복했던 두 해

도원초등학교 방영학

1. 한국과의 만남: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움

나는 원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대치를 낮추는 편이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도 특별한 환상은 없었다. 그냥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경험이라 생각했고, 무사히 지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대가 적었던 덕분이었을까, 막상 한국에 도착한 이후의 매일은 새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고향에 폭설이 내려 비행기가 지연되면서 다른 CPIK 교사들보다 이틀 늦게 도착했지만, 관리 교사의 세심한 안내와 한국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영 덕분에 금세 마음이 놓였다.

부산은 참 아름다운 도시였다. 특히 부산 사투리의 활기차고 정감 있는 억양은 마치 중국의 동북 사투리처럼 들려서, 내게는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다. 연수 동안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것을 배우며, 그 시간은 내 한국 생활의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나는 전라남도 여수시로 배정되었다. 바다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따뜻한 도시였다. 나는 ‘산 밑에서 자란 아이’라서 늘 산과 바람을 가까이 두고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바다에 대한 동경이 늘 있었다. 대학 시절에도 해변 도시에서 공부했지만, 실제로 바다 옆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낯설지만 익숙한, 그 묘한 감정이 나를 설레게 했다. 여수에는 부드러운 바람과 느린 시간, 그리고 나만의 생활 리듬이 있었다.

2. 바다의 방향으로: 바람과 빛 속에서 찾은 평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바닷가를 따라 걷는 순간이다. 아침의 바닷바람은 부드러운 알람처럼 졸음을 깨워 주고, 저녁의 석양은 금빛으로 물들어 하루를 위로해 준다. 나는 종종 계단에 앉아 산책하는 주민들과 학생들, 멀리 떠 있는 배를 바라보며 하루의 피로를 녹였다.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가서 사진을 찍고, 피크닉을 하거나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시간도 큰 즐거움이었다. 바닷가 근처의 식당들도 거의 다 가봤는데 음식은 맛있고, 풍경은 아름답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이 바다는 나의 마음을 기대게 하는 존재이다. 그곳에서 나는 생각하고, 쉬고, 스스로와 대화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는 늘 바다를 찾는다. 바다는 인생의 파도처럼 오르내림이 있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3. 명절과 여행: 따뜻함과 설렘으로 채워진 시간

한국에서의 두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잊지 못할 명절과 축제를 경험했다.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준 작은 선물들을 받았다. 과자, 편지봉투, 손편지, 학생이 직접 접은 종이학 등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를 잘 모르는데도 번역기를 찾아가며 정성껏 “선생님, 감사합니다”, “중국어 수업이 재미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같은 문장을 써 주었다는 점이었다. 비록 한자는 조금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또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로 된 축하 인사를 외워 저에게 들려주었다. 그 순간 저는 언어의 힘을 진하게 느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추석을 앞두고는 한국 친구들이 내게 집으로 초대장을 보내왔다. 그들은 “중국의 추석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며, 혼자 외롭지 않게 우리 집에 오라”고 했다. 친구들이 직접 만든 송편과 떡을 내어주었고, 나는 중국에서 가져온 월병을 함께 나누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웃음 짓던 그 순간, 나는 국경을 넘어선 따뜻함을 느꼈다.

한국의 축제들도 인상 깊었다. 재즈 페스티벌, 청춘 축제, 전통 북춤, 시민 플리마켓 등, 우연히 들른 행사마다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다. 게다가 나는 천 명이 넘는 학생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며 인사하는 아이들을 자주 만났다. 친구들은 “거의 연예인 같다”고 웃곤 했다. 그런 순간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휴가에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제주도, 광주, 수원 등 15개 도시를 여행했다. 우리는 요트 위에서 꽃놀이를 보고, 고즈넉한 옛길에서 한복을 체험했으며, 습지공원에서는 벚꽃을 감상했다. 또 오래된 고성에서는 역사의 깊은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을 할 때마다 마치 세상과,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한국은 고향과 가까워서 가족들과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도 있었고, 그 덕분에 그리움이 한결 치유되었다. 이런 명절과 여행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외국인 교사’가 아니라 이 땅에 스며든 한 사람이 되었다. 분주함과 고요함이 공존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저는 부드럽고 따뜻한 행복을 느꼈다. 학생들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포용 받으며, 일상에서 치유받는 그런 행복이었다.



4. 맛의 다리: 식탁 위에서 이어진 마음

한국 음식은 내 입맛에 잘 맞았다. 그중에서도 찜닭, 국밥, 치킨을 특히 좋아한다. 동료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그들은 늘 정성스럽게 메뉴를 소개해 줬다. 많은 동료들과 외국인 친구들이 중국 음식에 큰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지삼선, 라즈지, 소고기 볶음면 등을 소개했고, 때로는 집으로 초대해 함께 취미를 즐기기도 했다. 우리는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며 문화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언어와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어는 달라도, 문화를 향한 존중과 호기심은 같았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깊이 느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문화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5. 두 해의 선물: 성장, 감사, 그리고 작별

어느새 2년의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작별을 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키웠을 뿐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조금 더 용감해지고, 더 너그러워졌으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배웠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 막 온 외국인 교사였지만, 이제는 수업을 능숙하게 이끌고 학생들과 마음을 나누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 모든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에게는 성장의 흔적이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순간에 감사한다. 여수의 바람, 교실의 웃음소리, 거리의 커피 향기, 친구들의 따뜻한 동행은 모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이 여정을 돌아보며 CPIK에 참여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진심으로 느낀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 나는 한중 문화 교류의 작은 다리가 되어 이해와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CPIK는 나에게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나게 해 주었고, 교육의 의미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었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在韩两年的幸福时光

房英鹤

一、遇见韩国：从不期待到充满惊喜

我向来擅长降低预期，所以来韩国之前，并没有太多幻想。对我而言，这只是一次新的工作体验只是换了一个工作地点，不奢求惊艳，只求顺利。然而，正因为期待值不高，反而让我在抵达后，经常被每天都被新鲜与惊喜包围。

由于家乡突降大雪，航班延误，比同时期所有他人我比其他老师都晚两天抵达韩国。虽然起点有些波折，但管理教师的耐心帮助和韩方老师的热情迎接、照顾，让我倍感温暖让我感到安心。

釜山是一座美丽的城市，我尤其喜欢釜山方言。有人说它就像中国的东北话，听起来爽朗又带着热情，那种语调正合我这个东北人的胃口。特别是釜山方言那种充满活力又亲切的语调，听起来就像中国的东北方言一样，让我觉得格外熟悉。培训期间结识了很多新朋友，学到了很多知识，那几天成了我韩国生活美好的开端。

后来，我被分配到全罗南道丽水——一座被大海环绕的温柔小城那是一个被大海环绕、安静而温暖的都市。作为一个“山脚下长大的孩子”，从小看山、听风，对大海一直怀有向往。虽然大学时曾在海边城市读书，但真正生活在海边又是另一种体验。那种既陌生又熟悉的感觉，让我对这座城市充满好奇与期待。那种既陌生又熟悉的奇妙感觉，让我十分激动。丽水有柔软的风、有慢下来的时间，也有让我找到了自己的生活节奏。

二、海的方向朝向大海：在风与光中找到平静

我最喜欢的，是沿着海边散步的时光。清晨的海风像温柔的闹钟，吹散了睡意。傍晚时分，夕阳洒在波浪上，整个海面泛着金色的光，傍晚的夕阳将天地染成金色，为一天画上慰藉的句点。我常常坐在台阶上，看着玩耍的学生、散步的居民、远处的船影，让一天的疲惫逐渐消散。

我和朋友们也会经常一起去海边——散步、拍照、野餐、聊天，每一次都成为快乐的回忆。和朋友们一起去海边拍照、野餐，或只是静静地看海、聊天，这些时光都是莫大的乐趣。那里的

餐厅我几乎也都去过了，味美、景好、还实惠。

这片海，渐渐成了我在韩国的精神寄托之一。我在这里思考、放松，也在一次次海风的抚慰中，学会与自己对话。无论开心或难过，我都会去看海——它让我明白，人生的浪潮有起有伏，但只要心安稳，终能找到方向。

三、节日与旅途：在热闹与温情中被治愈充满温暖与悸动的时光

在韩国的两年，我经历了许多难忘的节日与庆典。

教师节那天我收到了学生送的小礼物——零食、信封、手写卡片、学生折的小纸鹤，每一份都饱含心意。让我惊喜的是，许多学生明明不会中文，却特意用翻译软件查找词句，认真写下“老师，谢谢您”“我喜欢中文课”“您辛苦了”“我爱你”等话语。最感动的是，许多学生虽然中文不太好，却费心用翻译工具写下“老师，谢谢您”“中文课很有趣”“老师，我爱您”等句子。虽然汉字略显生涩，但每一个字都闪烁着真心。还有很多学生会学习一些汉语祝福语说给我听。那一刻，我真切地感受到语言的力量——它不仅是交流的工具，更是情感的桥梁。

中秋节前夕，韩国朋友常邀请我去家中做客韩国朋友邀请我到他们家做客。他们知道说中国的中秋节是团圆的日子，不想让我一个人孤单，于是特意准备了松片和年糕。我也拿出提前从国内带来的月饼，大家一起分享节日的甜。朋友们亲手制作了松饼和年糕，我也分享了从中国带来的月饼。大家相互尊重对方的文化，一片欢声笑语，那一刻，我深刻地体会到——人情的温度可以跨越国界。

韩国大大小小的庆典，也为生活增添了无限色彩也给我留下深刻印象。几次出行，我偶遇了爵士乐庆典、青春庆典、传统鼓舞、市民市集节等。爵士音乐节、青春节、传统鼓舞、城市跳蚤市场……每一次偶然参与，都有新鲜的乐趣。因为我教过一千多名学生，出门时常常遇到他们热情地打招呼。朋友们说我完全是明星级别，那种被学生认出的幸福感，让人倍感温暖。

假期时，我和朋友们去过首尔、济州岛、光州、水原等十五个城市。我们在游艇上看烟花，在古街体验韩服，在湿地公园赏樱花，也在古城中感受历史的厚重。每一次旅行，都像是一场与世界、与自我的对话。而因为韩国离家乡很近，我还能与家人在韩国团聚，思乡之情也因此被治愈。在这些节日与旅途中，我不再只是一个“外国教师”，而是融入这片土地的人。我在热闹与宁静之间，感受到了一种柔软的幸福：被学生喜爱、被朋友包容、被生活治愈。



四、味蕾的桥梁：从餐桌到心灵的交流

韩国饮食很合我的口味，其中我最喜欢酱鸡炖鸡、汤饭、炸鸡。每次和同事吃饭，他们总会热情地介绍。许多同事和外国朋友对中餐也充满好奇。所以我带他们去吃了地三鲜、辣子鸡、炒牛河等等，还邀请他们到家里一起吃火锅。许多同事和外国朋友对中国菜充满兴趣和好奇。我向他们介绍了地三鲜、辣子鸡、牛肉炒面，有时还邀请他们到家里一起吃火锅。我们边吃边聊，从食物聊到文化，从语言聊到家乡。我们在餐桌上分享食物，聊文化，谈各自的语言与生活。

那样的时刻，我深深感受到：虽然语言不同，但对文化的尊重与好奇，让人们的距离变得更近。即便语言不同，对文化的尊重与好奇却是相同的。餐桌上的交流，成了我传播中国文化的一种方式。每一次真诚的分享与倾听，都是跨文化理解最美的注脚。在每一个这样的瞬间，我都深有感触：语言虽异，但对文化的尊重与好奇拉近了人与人之间的距离。

五、两年的礼物：成长、感恩与告别

转眼间，两年的时间即将画上句号。即使万分不舍，也到了整理心情说再见的时候。

这段经历，让我提高了独立生活的技能，也让我看到了更辽阔的世界。我变得更勇敢、更包容，也更懂得感恩。从一名初来乍到的外国教师，到如今能游刃有余地授课、与学生打成一片、成为真诚互动的朋友——每一步都凝聚着成长的印记。

感谢在韩国遇到的每一个人、每一个瞬间。丽水的风、课堂的笑声、街角的咖啡香、朋友的陪伴，都是我人生中最珍贵的回忆。

回望这段旅程，我由衷地觉得，加入CPIK是我做过最正确的决定之一。未来无论身在何处，我都希望继续成为中韩文化交流的小小桥梁，把理解与温暖传递给更多的人。

CPIK让我遇见了更好的自己，也让我相信：教育的意义，不止是教会语言，更是让人们在彼此理解中，看见更大的世界。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교류와 체험 속에서 흐르는 문화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진심이

1. 소개

중국어 자원봉사 교사로서 저는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마음의 소통이라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저는 늘 학생들이 중국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학습하여 교실을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두 명의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와 흥천중학교에서 북경 오페라 가면 그리기, 화려한 용선 축제 밧줄 엮기, 중추절 월병 만들기, 문화 체험의 날 등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호기심으로부터 이해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미소 속에서 저의 성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교실과 삶의 조각들로 특별한 문화 교류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는 중국과 외국 문화의 융합이며, 문화 전파자로서 걸어온 여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문화 체험과 교류, 학생들의 관점 변화, 교사의 성장, 그리고 문화 비교와 통합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 문화 체험 및 교류

이번 몇 달 동안,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와 흥천중학교에서 많은 문화 체험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중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 학습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와 흥천중학교에서 우리는 ‘베이킹 오페라 가면’이라는 문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색깔의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빨간색은 충성과 용기를, 검은색은 울금음을, 흰색은 배신과 교활함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또한 중국 색과 한국 색이 나타내는 의미를 비교하고, 중국인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녹색 모자’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활동이 끝나고 우리는 함께 가면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도 한국의 색채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5월에 파트너 선생님과 저는 농업 고등학교에서 중국 용선 축제의 기원과 풍습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밧줄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비록 몇몇 학생들이 어려워했지만, 밧줄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물론 정말 잘 만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연휴 기간, 혼자 강원도 강릉 단오제 문화원에 다녀왔습니다. 중국 용선 축제와 한국 단오제 축제는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용선 축제는 쫄쫄을 먹고 용선 경주를 진행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산신령을 숭배하고 레슬링 활동을 합니다. 강릉문화원을 방문한 후, 저는 한국 단오제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비교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활동에 더 많은 영감을 얻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가르칠 때는 문화를 비교하고 학생들의 문화 간 소통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10월, 흥천중학교에서 월병을 만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중추절을 축하하며 학생들에게 중국어로 ‘행복한 중추절’이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 중추절의 풍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다른 점은, 한국은 모두가 송편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서예를 직접 해 볼 수 있는 서예 체험 시간도 있었습니다.

7월, 흥천중학교에서 작은 축제를 준비했고 흥천중학교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파트너 선생님과 저는 함께 “중국 문화 활동”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6개의 도전을 완료하면 ‘텐안면’ 퍼즐과 중국 음료 브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도전은 각각 셔틀콕 차기, 주전자 던지기, 중국 왕조 이름 외우기, 중국 지도 퍼즐 맞추기, 치파오를 입고 사진찍기, 그리고 공 던지기였습니다. 학생들이 퍼즐을 맞추거나 왕조 이름을 외울 때 어려워하면 제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전을 끝낸 후 아이들이 ‘텐안면’ 퍼즐 상과 중국 음료수를 기쁘게 받아 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화의 교류는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노력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중국어 교사는 단순히 언어의 전달자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흥천중학교에서도 두 번의 온라인 문화 교류가 있었습니다. 파트너 선생님과 저는 학생들이 ‘문화 간 교류’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친구에게 부탁하여 학생들을 위한 짧은 ‘중국 축제 소개’ 영상을 찍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질문을 준비해 오면 녹화해서 친구에게 보내주고, 친구가 물음에 답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의미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는 이런 교류 방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귀엽다고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문화 교류는 공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국경을 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3. 학생들의 관점 변화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거나 학생들이 문화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저는 사실 매우 행복합니다. 학생들



이 중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고 오해를 없앨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이 중국 문화에 관한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평가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책에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읽은 후, 학생들은 중국어가 성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람들은 말할 때 톤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때 소리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문화적 인식의 미묘한 변화도 보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운 현상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왜 일부 중국인들은 식사할 때 일부러 음식을 조금 남기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으면 주인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당황스러움을 느낀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읽고 비로소 음식을 남기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조금 남겨두는 것이 주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라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작은 이해와 변화는 제가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사로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순간들입니다. 학생들이 ‘오해’에서 ‘이해’로, ‘질문’에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학교생활과 대학 입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课间操(아침 운동)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며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4. 교사의 성장

중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저는 문화 교육이 단순히 일방적인 지식 전수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 대한 학습의 여정이라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은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행됩니다.

북경 오페라 가면을 칠하고, 알록달록한 빗줄을 엮고, 함께 중추절 월병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기를 차고 치파오를 입고 지도 퍼즐을 맞추는 등의 활동을 통해 중국 문화의 다양성과 재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중국 문화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랐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열정이 저의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호기심에서 이해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눈빛, 표정, 질문에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오해에서 이해로의 바뀌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장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인내와 존중을 배웁니다.

저는 예전에 ‘강의’를 통해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는 학생들 스스로 경험하고, 발견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 역시도 경청하는 법, 가르치는 법,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적 관점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화 교류는 일방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문화 교류 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시대에 발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학생들

은 틱톡에서 인기 있는 중국 노래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자주 들을 수 있도록 문화를 동영상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철도의 발전과 음식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관광객들이 중국을 여행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재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통해 관점이 바뀌는 것을 지켜볼 때, 저는 교사로서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이해를 돕는 사람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도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며, ‘교육’을 잘하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5. 중국 문화와 외국 문화의 비교 및 통합

중국어를 가르칠 때, 저는 중국 문화와 외국 문화에 차이는 이해와 통합의 창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교실에서의 모든 문화적 비교는 생각과 감정의 교환인 것입니다.

문화 교육에서 학생들은 중국 문화의 특성을 관찰하고 자국 문화와 비교하며 ‘문화 간’ 인식을 강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축제를 소개할 때 학생들은 자국의 축제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추절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자국의 명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축제 뒤에 숨겨진 ‘통합’, ‘감사’, ‘기도’의 감정은 모두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젠 교실이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비교와 나눔 속에서 감정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문화 체험 활동에서는 ‘상호작용과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북경 오페라 가면을 그릴 때는 단순히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다음 그들이 배운 색깔의 의미를 살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용선 축제를 위해 알록달록한 뱃줄을 짜는 동안 일부 학생들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뱃줄을 엮습니다. 이렇게 교실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대화’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교류는 문화 통합을 강요하거나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접근의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비교를 통해 중국을 이해하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세계를 다시 인식합니다. 중국과 외국 문화는 교실이라는 ‘교차로’에서 부드럽게 만나는 두 개의 평행선과 같습니다. 중국어 교사로서 저는 학생들이 문화적 차이를 ‘다르다’가 아닌 ‘풍부하다’고 여기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학생들은 문화에는 우열이 없고 다양성만 있다고 믿습니다. 문화 교류의 중요성은 서로를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드는 이러한 상호 이해에 있습니다.

1년간, 한국과 중국 문화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만큼 이러한 문화 교류가 꾸준히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让文化在交流和体验中流动

陈纾怡

一、引言

作为一名对外汉语志愿者教师，我一直认为语言教学的终点不止于语言本身，而在于文化的理解与心灵的沟通。在韩国教学的这几个月里，我一直希望学生在学习语言的过程中了解更多中国的文化，让课堂成为文化交流的桥梁。在这几个月中，我和两位搭档老师在主校和副校通过一些文化体验活动——绘制京剧脸谱、编织端午五彩绳，制作中秋月饼以及小型文化体验日的举办等等，我看见学生们从好奇到理解的变化，也在他们的目光与笑声中，感受到了作为教师的成长与反思。这些课堂与生活交织的片段，构成了我独特的文化交流经验：它不仅是中外文化的相遇与融合，更是我作为文化传播者在教学道路上的心路历程。接下来，我将从课堂文化体验与交流、学生视角变化、教师自我成长、文化比较与融合这几个角度进行说明。

二、课堂文化体验与交流

这几个月中，在主校（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和副校（흥천중학교）都有过不少的文化体验课。在这些课中，学生对中国的一些文化有了进一步的了解，而作为老师的我，其实对韩国的文化也会有更深一步的了解，这是一个相互学习的过程。

在主校和副校，我们都有上“京剧脸谱”这个文化课，给学生讲解不同颜色的象征意义：红色代表忠诚和勇气，黑色代表光明正大，白色代表奸诈狡猾等等。而且，将中国颜色和韩国颜色所代表的含义进行了对比，并额外补充说明了中国人喜欢的颜色和讨厌的颜色有哪些，理由又是什么。其中，学生对“绿帽子”这个词代表的含义尤其感到很诧异，觉得很有趣。活动结束后，大家都举着自己的脸谱合影。在这个过程中，我对韩国中的颜色文化也有了更多的了解。

在五月份的时候，我和搭档老师在农业高中介绍了中国端午节的由来和习俗，并教学生们做了五彩绳，虽然有些学生觉得比较困难，但是他们也在努力地完成，我真的很高兴。还有的学生真的做得非常好。而我自己也在五月假期的时候，去了江原道江陵的端午祭文化馆参观。虽然中国的端午和韩国的端午名字一样，但是内容却是完全不同的，中国端午节会吃粽子，有赛龙舟的

活动。但是在韩国，人们会祭拜山神，还有摔跤活动。在参观了江陵文化馆之后，我对韩国的端午节文化也有了更多了解，并进行了对比，这是一个也很有意义的过程。这对我今后的对外汉语教学也有了更多的启示，在教学时，我要更加有意识地进行文化对比，培养学生跨文化交际意识。

十月份的时候，在兴川初中做了月饼，和学生庆祝了中秋节，并教会了学生说“中秋节快乐”。而我在和老师与学生的交流中，也知道了韩国中秋节的习俗，和中国不同的是，大家会吃松饼（송편）。之前还有过书法的体验，让所有的学生都试着写一下毛笔字。

七月份，在兴川初中，我们还举办了一个小型的活动节，会有兴川小学的学生来参观，并参加活动。我和初中的搭档老师一起负责了“中国文化活动”的板块。主要内容是：完成6个任务挑战后，即可获得“天安门”的拼图和中国品牌的饮料。六个任务分别是：踢毽子、投壶、背诵中国历代王朝名、中国地图拼图、旗袍拍照、羽飞健球。在这次活动中，当学生难以完成拼图或者背诵朝代名字时，我也会进行指导。看到他们完成任务后开心地领取“天安门”拼图奖品和中国品牌的饮料，我的内心也充满了成就感和自豪感。那一刻，我深深感受到，文化的交流并不在于讲得多深，而在于让他们愿意去感受、去尝试、去理解。作为一名对外汉语原语民教师，我也在这样的互动中再次认识到自己肩上的使命——不仅是语言的传递者，更是文化的桥梁搭建者。

在兴川初中还有两次线上的文化隔空交流。我和搭档老师决定让学生更直接地感受“跨文化交流”的意义。我邀请了我在中国任教的朋友，通过视频录制，为学生做了一次简短的“中国节日介绍”。学生们提前准备了问题，录制了视频给我的朋友，我的朋友进行了回答。虽然只是短短的几分钟，但是非常有意义的。我的朋友后来告诉我，她很喜欢这样的文化互动，觉得学生们非常可爱，也感受到他们对中国文化的真诚兴趣。那一刻我深深体会到，文化的交流并不受空间限制，只要有心意，就能跨越国界。

三、学生视角变化

每次解答学生的疑惑，或是学生问我有关文化的问题，我其实都特别高兴，我希望学生们能对中国文化有更多的了解，也能消除一些误解。这学期，其中一个随行评价是阅读一本中国文化的书。其中书里面有几个内容大家都比较感兴趣。其中一个，为什么会觉得中国人说话很吵，总是声音很大。通过阅读书籍后，学生们发现是因为中文是有声调的语言，为了让意思更准确、说话时人们会强调声调，所以感觉声音有点大。我看到学生的误解转化为理解，也看到了文化认知悄然发生的变化。还有一个，学生们提到一个让他们困惑的现象：为什么有些中国人吃饭会故意剩下一点？他们觉得浪费食物是不礼貌的。阅读之后，学生们明白了，在传统观念中，如果客人把饭菜吃得一干二净，主人反而会觉得准备不够充足，会不好意思；而适当地剩下一点，反而



是对主人的尊重与感谢。这些小小的理解与转变，正是我作为一名对外汉语教师最珍视的时刻。当学生能从“误解”走向“理解”，从“质疑”走向“尊重”，我就知道，我们的课堂真正实现了跨越语言的交流。最近，我们学习了中国的校园生活以及高考，学生们对课间操都很好奇，问了很多的问题。

四、教师自我成长

在对外汉语教学的过程中，我逐渐明白，文化教学不仅仅是单方面的输出。更是一次次关于理解与共情的学习之旅。课堂上的每一次沟通，都让我在与学生的互动中不断成长。

我们曾一起绘制京剧脸谱、编织五彩绳、制作中秋月饼，也举办过文化体验节，让学生通过踢毽子、投壶、旗袍穿戴、地图拼图等任务感受中国文化的多样与趣味。起初，我只是希望学生们能“学到”中国文化，但后来我发现，他们在体验中展现出的热情和思考，远远超出了我原本的设想。学生们从好奇到理解，他们的眼神、表情和提问，都让我看见文化交流真正发生的瞬间。而学生从误解到理解的变化，不仅是学生的成长，也让我学会了如何在文化差异中保持耐心与尊重。

之前我以为用“讲授”的方式去解释文化就可以。但是现在，我发现文化更需要让学生自己去体验、去发现、去理解。在这个过程中，我发现自己也在不断学习——学习如何倾听、如何引导、如何用开放的心态面对不同的文化视角。文化交流不是单向的输出，而是双向的成长。而且在文化交流中，我发现学生们其实对新兴的文化以及日常生活中的文化更加感兴趣，所以我们原语民教师也需要与时俱进，不能总是着眼于一些旧传统。而且学生对一些tiktok上流行的中文歌很感兴趣，那我们也可以多多把文化和这些短视频结合起来，让学生更加容易理解，并且愿意去听。比如，我们如果要讲中国铁路的发展以及美食的种类，就可以播放youtube中游客去中国旅行的视频，既直接客观，又有趣。

当我看到学生因为一次次体验而对中国文化产生兴趣，因为一次交流而改变看法，我便深深地感受到教师的意义：不是传递知识的人，而是连接文化、引导理解的人。正是在这样的课堂与交流中，我成长为一个更懂文化、更懂学生，也更懂“教育”的教师。

五、中外文化比较与融合

在对外汉语教学中，我深切体会到，中外文化的差异并非隔阂，而是一扇通向理解与融合的窗口。每一次课堂上的文化比较，都是一场思想与情感的交流。

我认为在文化教学中，要鼓励学生从自己的文化出发，去观察中国文化的特点并进行对比，从而培养“跨文化”的意识。比如，在介绍中国的节日时，学生们也可以主动分享他们国家的庆祝

方式。比如我们在教中秋节时，学生可以分享本国节日的活动以及祝福方式等等。这样的交流让学生们发现，尽管形式不同，但节日背后“团圆”“感恩”“祈福”的情感是共通的。课堂也因此变得温暖而生动——每一个学生都在比较与分享中，找到了情感的共鸣。

在文化体验活动中，我们也要尽量营造“互动与融合”的氛围。比如学生在绘制京剧脸谱时，不只是模仿，而是尝试自己创作想创作的人物，然后用所学的颜色知识，进行绘画。在参与端午节五彩绳编织时，也有学生是用韩国的传统编法去编制的绳子。这样的话，课堂不再是单向的文化输出，而是文化共同“对话”的舞台。

这些看似简单的交流，让我意识到：文化的融合从不是强加或同化，而是一种相互靠近的过程。学生们在比较中理解中国，我也在他们的讲述中重新认识世界。中外文化像两条并行的河流，在课堂的交汇处轻轻相遇。作为一名对外汉语原语民教师，我感到欣慰的是，学生们不再把文化差异看作“不同”，而是看作“丰富”；他们开始相信，文化没有优劣，只有多样。文化交流的意义，也正是在这种相互理解中，让彼此都成为更宽容、更开放的人。

感谢在韩国的这一年时间，让我对韩国文化和中国文化都有了更多的了解！我喜欢这种文化交流的感觉！



“함께”에서 시작된 인연

고창고등학교 강산

고창고에 처음 도착한 날, 사실 조금 불안했다. 새로운 환경,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 생소한 언어...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국인 협력 교사 외에는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 시간 교무실은 커피 향만 가득한 채 모두가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혼자 고민만 할 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중국에서 오셨어요?”

고개를 들자, 연분홍색 옷을 입은 선생님이 나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다. 햇살처럼 따듯했고, 표정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는 함께반 협력이에요.”

협력선생님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낯선 학교에서 느끼던 외로움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협력선생님은 ‘함께반’의 담당 교사였다. 그 교실은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 수는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개성 있고 사랑스러웠다. 처음 그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조금 당황했다. 아이들의 반응이 일반 학생들과 달랐고, 어떤 아이는 말이 없는 반면 어떤 아이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기도 해서 도무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협력선생님은 긴장한 기색을 알아차렸는지 나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 아이들은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교실 벽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아이들이 직접 키운 다육식물이 놓여 있었다. 작은 화분마다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마치 “나도 열심히 자라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협력 선생님은 늘 모든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한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온화한 말투는 아이들의 굳은 표정을 순식간에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다.

나도 조금씩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뺨뺨뺨 그린 그림을 건네주었고, 누군가는 수줍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인사한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동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동등하게 존중받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는 점을. 그 장면들이 모여 내 마음을 크게 움직였고, 그제야 나는 ‘함께’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수업을 함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기회가 된다면, 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에게서 가장 순수한 미소와 가장 진실한 선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협력선생님과 인연은 그 뒤로도 계속 이어졌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느 날, 협력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 언니가 중국에 시집갔거든요. 조카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눈가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래서 중국어 조금 배우고 싶어요. 조카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지하면서도 부끄러운 듯한 말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럼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교사들끼리 소모임을 만들었다. 모임 이름은 ‘만리장성’. 점심시간이 되면 몇몇 선생님들이 교무실 한쪽에 둘러앉았고, 책상 위에는 차와 간식이 놓여있다. 협력선생님은 늘 아주 정성스럽게 따라 읽었다. “你好——你好——(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음은 조금 딱딱했지만,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짓고 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사실 나는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지만, 오랫동안 한국어를 할 기회가 없어 회화가 많이 부족했다. 협력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국어를 하게 되었고, 교과서에는 없는 자연스러운 표현들도 많이 배우게 되었다. 예를 들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라는 표현이 있다.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나는 이 문장이 유독 좋았다. 담백한 온기와 배려가 담겨 있어, 자연스럽게 그녀가 생각나는 말이다.

여름방학이 다가오자, 협력선생님은 중국 여행을 계획했다. “중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꼭 먹어야 할 음식이 뭐예요?”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게 몇 곳을 종이에 적어주었다. 핫한 밀크티 가게, 매콤한 후난식 고기볶음집, 북적거리는 휘귀집까지. 내가 손짓을 해가며 가게를 설명하면, 협력선생님은 끄덕이면서 “이거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며칠 뒤, 협력 선생님께서 상하이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그는 한 손에 밀크티를 들고 있었고, “덕분에 너무 맛있게 마셨어요!”라고 문자도 함께 왔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에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사진만 봐도 밀크티의 달콤함이 전해지는 듯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다. 국경을 넘어 이어진 우정이 이렇게 따뜻하고 생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여름 끝자락, 협력 선생님은 나를 부안군 바닷가의 ‘갯벌 체험’에 초대했다. 바람은 강했고, 바다는 잔잔한 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우리는 바짓단을 걸어 올리고 작은 양동이를 들고 촉촉한 모래사장을 걸었다. 발이 푹 빠질 때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어, 저절로 웃음이 새어 나왔다.

“맛조개 캐는 것 처음이죠!” 협력 선생님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작은 모랫구멍을 가리켰다.

“보세요, 이런 데는 밑에 보통 있어요.” 그는 작은 삽으로 모래를 살짝 파낸 뒤, 그 위에 소금을 조금 뿌렸다. “조금만 기다리면 맛조개가 튀어나올 거예요.”

잠시 후, 모래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작은 하얀 머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협력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는 능숙하게 손으로 맛조개를 잡고 살짝 들어 올리더니,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잡았어용!”

나도 협력 선생님을 따라 작은 구멍을 찾고, 모래를 파고, 소금을 뿌려 보았다. 처음에는 늘 한 박자씩 느렸고, 엉뚱한 곳을 파는 건 물론 파도에 바짓단이 흠뻑 젖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협력 선생님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라며 나를 격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더욱 맑게 들렸다.

한참 뒤, 협력 선생님은 유난히 큰 맛조개 하나를 캐냈고, 들고 흔들며 자랑했다. “보세요! 이거 제일 커요!” 나도 협력 선생님을 따라 웃었다.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한데 섞여, 해변 전체를 가득 메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날 잡은 맛조개로 칼국수를 끓였다. 부엌 가득 퍼지는 향이 참 향긋했다. 협력 선생님은 맛있게 먹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그 순간, 나 역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낸 시간 동안, 나는 협력 선생님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다. 언어뿐 아니라, 이해와 너그러움까지 말이다. 그녀는 나에게 ‘다름’을 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다. 덕분에 나는 다시금 교사로서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나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서로 가끔 소식을 전하며 일상의 작은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의 그녀처럼 따뜻함을 건넬 수 있기를. 그리고 머나먼 중국에서도, 협력 선생님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从“함께”开始的缘分

姜珊

刚到高敞高中那一天，我心里其实有点忐忑。新的环境、新的老师、新的语言，让我既兴奋又不安。除了搭档老师，几乎没有人和我多说话。午休时间，办公室里弥漫着咖啡的香味，大家都在各自忙碌，只有坐在角落的我静静地看着电脑，不知道该和谁说话。

就在这时，一道明快的声音从身后传来——“혹시 중국에서 오셨어요?”（请问您是从中国来的吗？）

我抬起头，看见一位穿着浅粉色衣服的老师正对我微笑。她的笑容像阳光一样温柔，带着一丝好奇。

“是的，我从中国来的。”

“아, 반가워요! 저는 함께반 협력이에요.”（啊，很高兴见到你！我是特殊班的老师。）

那是我第一次见到搭档老师。也是从那一刻起，我在异国校园的孤单感悄然消散。

后来我知道，她是“함께반”的老师——那是一间为特殊学生设立的教室。那里的学生并不多，但每个孩子都独特又可爱。第一次走进那间教室时，我有些不知所措。孩子们的反应和普通学生不太一样，有的沉默不语，有的情绪突然高涨，我不知道该如何与他们相处，只能站在一旁小心地观察。搭档老师察觉到了我的紧张，轻轻拍了拍我的肩膀，笑着说：“괜찮아요, 그 애들은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没关系，他们只是表达方式不同而已。）”

教室墙上贴着五颜六色的画，窗台上摆着孩子们亲手种的多肉植物。每一盆小植物上都写着他们的名字，好像在告诉别人：“我也在努力成长。”我总能看到搭档老师轻声鼓励每一个学生：“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没关系 慢慢来也行。）”那温柔的语气仿佛有魔力，让孩子重新露出笑容。

慢慢地，我也开始尝试走近他们。有人递给我一张歪歪扭扭的画，有人害羞地对我说“안녕하세요.”（你好）。那一刻，我才发现他们并不需要特别的同情，只需要被平等地对待、被真心地接纳。那一幕幕让我深受感动，也让我第一次真正理解了“함께”这个词的意义——不仅是一起上课，更是一起生活、一起成长。

后来，我也渐渐萌生了一个念头：如果有机会，我想参与更多宣传、消除社会对残疾学生偏

见的活动。因为在他们身上，我看到了最真挚的笑容，也感受到了最纯粹的善意。

与搭档老师的缘分并没有止步于此，我们渐渐熟悉起来。有一天，她笑着对我说：“사실 제 언니가 중국에 시집갔어요. 조카가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其实我姐姐嫁到中国了。我还有个外甥，非常可爱。）说到这里，她眼角都带着笑意。“그래서 중국어 조금 배우고 싶어요. 조카랑 대화하고 싶어요.”（所以我想学一点中文，想和我的外甥聊聊天。）她的语气既认真又有点害羞，我忍不住笑了出来：“那我来教您吧！”

就这样，我们在学校里成立了一个小小的教师中文社团，取名“万里长城”。每到午休时间，几位老师就围坐在办公室的一角，桌上摆着茶和点心，搭档老师认真地跟读：“你好——你好——”。她读得一板一眼，却笑得特别开心。那种学习的热情也感染了我。

其实我大学学的是韩语，可因为很久没说，口语已经生疏了。和搭档老师的对话，让我重新开口去说韩语，也让我学到了许多课本里没有的地道表达。比如她常说的“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不知怎的心里变得暖暖的），我特别喜欢这句话。那种朴实的温柔，就像她本人一样。

暑假的时候，搭档老师计划去中国旅行。她问我：“去中国一定要去哪儿、吃什么呢？”我在纸上写下我最喜欢的几家店——那家人气很高的奶茶店、一家湖南辣椒炒肉馆，还有气氛很热闹的火锅店。我一边介绍一边比划，她一边笑着点头，还开玩笑说：“이거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아요!”（感觉吃完这些会长胖！）

几天后，她从上海发来照片。照片里，她举着一杯奶茶，配文是：“덕분에 너무 맛있게 마셨어요!（托你的福，我喝得很开心！）”看着那张照片，我也忍不住笑了。那一刻，似乎连奶茶的甜味都透过屏幕飘了出来，心里涌起一种奇妙的感动——跨越国界的友谊，原来也能这样温柔而真实。

夏末的某一天，她邀请我去扶安郡的海边赶海。那天海风很大，海面闪着细碎的光。我们挽着裤腿，提着水桶，踩在湿软的沙地上。脚陷进去时，海水从脚缝间滑过，冰凉得让我忍不住笑出声。

“맛조개 캐는 것처음이죠!”（这是你第一次挖蛏子吧！）搭档老师弯下腰，指着一处小小的沙洞，认真地对我说，“보세요, 이런 데는 밑에 보통 있어요.”（看，这种地方下面一般都有。）她先用手里的小铲子轻轻挖了几下，又撒上一点盐，“조금만 기다리면 맛조개가 튀어나올 거예요.（等一会儿，蛏子就会探出头来。）”果然，不一会儿，细沙开始微微晃动，一个小小的白头慢慢露了出来。搭档老师眼睛一亮，熟练地伸手一捏，笑着举给我看：“잡았 어용!”（抓到啦！）

我也学着她的样子找洞、挖沙、撒盐，一开始总是慢半拍，不是挖偏了地方，就是被海浪打湿了裤脚。她就在一旁笑着鼓励我：“괜찮아요, 조금만 더!”（没关系，再试一次！）那笑声在海风



中显得格外清亮。

不久，她挖到一只特别大的蛏子，举起来得意地喊：“보세요! 이거 제일 커요!”（你看！这个最大！）我也跟着笑起来，感觉整片海滩都被我们的笑声和海浪声填满。

回到家后，我们用这些蛏子煮了刀削面，香气在厨房里弥漫开来。她一边吃一边说：“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행복하네요.”（这么吃 真的好幸福啊。）

那一刻，我也觉得幸福得刚刚好。

在韩国的日子里，我因为搭档老师而学会了許多——不仅是语言，还有理解与包容。她教我怎样用温柔去接纳不同的生命，也让我重新找回了自己作为教师的初心。

如今离别的时间渐渐临近，我总会想，如果回到中国后，我们还能偶尔联系，分享生活里的小事，那该多好啊。希望有一天，我也能像她一样，把温柔传递给别人。更希望，从遥远的中国，也能听到她的好消息。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언어로 마음을 잇다, 문화로 세상을 연결하다

고창북고등학교 용희여

“선생님, 저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전라도 천년 중국어 말하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던 날, 두 명의 학생이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다. 중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에게, 중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스스로 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찾아온 일은 단순한 수업을 넘어서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교사는 이미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학생과의 도전이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나에게 교사로서의 성찰은 물론, 언어와 문화를 통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학생들은 성조조차 익숙하지 않았다. 발음을 교정할 때마다 낯설고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고, 짧은 문장 하나를 외우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나는 완벽한 문장을 강요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었다. 매일 수업 후 ‘오늘 의 한 문장’을 주제로 학생 스스로 짧은 발표를 하도록 했다.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요.”

이 짧은 문장을 말하기 위해 수차례 연습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던 학생들이 점차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언어 학습의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임을 다시금 느꼈다.

또한 수업에는 중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접목했다. 노래 가사 속 성조를 따라 부르고, 전통 명절의 유래와 풍습을 배우며,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중국 문화 속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언어를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낯선 언어가 점차 친숙한 문화로 다가오는 경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원어민 교사로서 언어 교육이 곧 문화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을 더욱 실감했다.

대회를 앞두고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으면 창피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학생들이 언어를 ‘평가의 도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도 방향을 바꾸었다. “중국어는 경쟁의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언어”임을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에 나는 ‘국제교류수업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중국 학생들과의 국제교류형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서로의 일상과 문화를 중국어로 소개하며, ‘음식’, ‘학교 생활’, ‘명절 문화’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처음엔 단순한 언어 학습 활동처럼 보였지만, 교류가 이어질수록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 속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타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다. 언어는 점점 교재 속 문장이 아니라 ‘관계와 공감의 도구’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엔 문장 구성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상대방의 문화와 자신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언어 학습은 외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소통’ 속에서 살아 숨 쉬는 것이 라는 사실.

그리고 대회 당일, 학생들은 각자 암기한 원고와 퍼포먼스를 자신 있게 발표했다. 31분 남짓한 발표였지만, 그 안에는 수개월간의 노력과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청중은 그들에게서 진심을 느꼈고,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그 결과, 한 학생은 대상, 또 다른 학생은 동상을 수상하였다. 두 학생은 “선생님이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뜻밖의 선물도 받게 되었다. 바로 ‘우수 지도교사상’이었다. 상패를 손에 들었을 때, 나는 단순한 성과 이상의 의미를 느꼈다.

학생의 변화는 단지 언어 실력의 향상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자신에게도 ‘교사로서의 성장’을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정확한 중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학생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언어 교육의 방향을 ‘소통과 교류’에 두어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달았다. 앞으로 남은 CPIK 활동 기간 동안 더 많은 학생들이 언어를 통해 세계 속의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 공감과 존중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것이 내가 ‘나의 CPIK 이야기’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교사의 성장은 학생의 성장을 동반하며, 그 여정 속에서 언어와 문화는 세상을 잇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된다는 것을.



语言是桥，连通心灵； 文化是窗，望见世界

龙荟茹

“老师，我学习中文的时间还不长，我可以参加中文演讲比赛吗？”

在“全罗道千禧年中文演讲比赛”报名的那天，有两名学生小心翼翼地来到我面前。对于我这个初来乍到的新手教师来说，这些刚开始学习中文的学生主动提出参赛，已经超出了几堂课的范畴，而是一个全新的学习起点。那一刻，我虽然有些犹豫，但很快改变了想法。因为我再次意识到，教师并不是只挑选已经准备好的学生，而是要发现和引导他们所拥有的潜在可能性。

就这样，我和两位的学生的挑战开始了。这段经历不仅让我重新审视了教师的角色，也让我真正体会到，教育如何通过语言和文化，将人和世界连接在一起。

一开始，学生们对声调很不熟悉。每当我纠正发音时，她们总会露出困惑又努力的神情。哪怕只是背诵一句简单的话，也需要花上很长时间。但我并不要求她们立刻说出完美的句子，而是把重点放在培养他们用中文表达自己想法的能力上。每天课后，我们都会利用一点零碎的时间进行“今日一句”的简短发言练习。“今天我很开心”，为了能说好这短短的一句话，她们需要重复练习好几次。刚开始时，学生的声音总是很小，带着一些迟疑和犹豫。慢慢地，她们开始用更加响亮的声音大声地说汉语。看到大家的变化，我再次体会到，学习语言最重要的东西是敢于开口的勇气和自信。

此外，在课堂教学中我也融入了丰富的中国文化元素。例如，让学生们通过跟唱中文歌曲来熟悉拼音拼读，学习传统节日的习俗和由来以及了解现代中国的变化和发展。让学生们不仅仅只是学习语言，更能够了解中国文化中人们的思维方式和文化情感。通过这些活动，学生们开始将汉语学习作为了解中国的窗口，热情地分享着喜欢的中国城市、食物，而不再只是枯燥的汉语单词和抽象的语法规则。看到学生们对汉语由陌生逐渐变得亲切起来，我作为一名国际中文教师，也更加深刻地认识到语言教育和文化理解之间的密不可分。

随着比赛时间的临近，学生们开始变得不安。“如果我发音不好的话，我会很丢脸吧”，在听到这句话时，我意识到学生们对发音的“心理恐惧”依旧存在着。于是我调整了教学的方向，我想让他们真正感受到语言是沟通的桥梁，不需要过分的完美。为此，我利用国际交流项目，开展了

和中国学生的线上课堂。在线上交流课堂中，我们设置了韩中学生互相问候以及问题讨论的环节，学生们用汉语围绕两国的影视剧、校园生活等介绍彼此的日常和文化。在真实的对话过程中，学生们从紧张变得从容。

最初，学生们总是害怕不知道使用什么样的语法构建句子，害怕自己的发音不能被听懂，但在交流的过程中，这一切似乎变得不再困难。这也让我再次看到了语言实践的重要性，语言的学习只有在交流的过程中才能获得全新的生命力。

到了比赛当天，两位学生自信地展示了自己的演讲和表演。虽然演讲的时间只有三四分钟，但其中凝聚了几个月的努力和成长的痕迹，最终赢得了台下观众们热烈的掌声。最后，一名学生获得了一等奖，另外一名学生获得了铜奖。两位学生笑着说，“是老师的信任让我们走到了今天”。而这份喜悦之外，我们还收到了一个意外的奖项——优秀指导教师奖。当我拿着奖状时，我感受到的意义远远超过了单纯的成绩。

在准备此次演讲比赛的过程中，我看到的学生的变化不仅仅是语言能力的提升，更在于他们能够借助这门语言，收获与世界对话的自信。这种变化也给作为教师的我带来了新的成长，我不再只满足于做一名教授汉语的老师，更希望能成为一座桥或者一扇窗，帮助学生通过语言，看到更加宽广的世界。

这段教学的经历让我更加确信，语言教育的方向始终应该放在沟通和交流上。在未来的CPIK任期中，我希望继续帮助学生走近中文，让他们在语言的牵引下，找到自己与世界相连的位置；在理解文化差异的过程之中，学会共情和尊重，并成长为更加开阔的自己。

这，就是“我的CPIK故事”最想要传递的信念：老师和学生的成长总是相伴而行，而语言和文化是我们与世界连接的最动人的桥梁。



나의 2025년 — 도전과 성장의 해

전주신흥고등학교 포양

완연한 가을, 10월의 날씨는 점차 선선해지고 시간도 어느새 많이 흘러버렸다. 한국에 온 지도 어느덧 8개월이 되었고 중국으로 돌아갈 날도 이제 석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서서히 적응해 가는 모든 과정이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이곳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느꼈던 온기와 뜻깊었던 순간들을 글로 남기고자 한다.

1. 첫 만남 — 한국과 전주신흥고를 처음 만나다

2025년 2월 19일, 나는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한국은 처음이었기에 설렘도 컸지만, 낯선 땅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도 했다. 머릿속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그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여정을 시작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었다. 한국 국기를 보고 ‘아, 정말 한국에 왔구나!’ 라는 생각에 실감이 났다. 부산에서 일주일간 연수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많은 강의를 들었고 해운대도 방문했으며 수료식에서 대표로 강의를 선보이기도 했다. 부산에 있었던 한 주라는 시간이 내겐 매우 알찬 경험이었다.

연수가 끝난 뒤, 100여 명의 보조교사들은 각자 배정된 지역으로 이동했다. 나는 전라북도 전주에 배정되었고, 함께 그곳에 도착한 뒤 우리는 각자의 협력 교사와 함께 따로 이동했다. 한국인 교사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신 분이었고, 첫날 나를 데리고 외국인등록증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었으며, 학교도 함께 둘러보았다. 처음으로, 앞으로 근무하게 될 학교인 전주신흥고등학교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학교는 규모도 크고 시설도 좋았으며, 주변은 녹음이 우거져 매우 현대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장세영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서 나는 이 학교가 1900년에 설립된 100년이 넘는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을 들으니, 학교에서의 업무가 더 기대되기 시작했다. 장 선생님은 나를 중국어 교실로 안내했다. 교실 문에 붙어 있는 ‘포양 선생님’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교실 안에는 중국어 도서, 중국 전통 복장, 종이접기, 중국 매듭 등 다양한 전통적 요소가 한가득 준비되

어 있었다. 장 선생님은 내게 라면과 하이디라오 휘귀식 휘귀를 선물하면서 나를 환영해 주셨다. 부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레몬음료수를 건네주셨다. 비록 그분들이 아직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언어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보여준 진심 어린 배려와 환대는 내 마음속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크게 덜어 주었다. 앞으로 시작될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2. 수업 편 — 열정적인 학생들과 선생님들

2025년 3월 4일, 개학과 함께 나는 본격적으로 중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내가 맡은 수업은 2학년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이었다. 첫 출근 날, 나는 무척 긴장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날이었고, 한국 학생들을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첫 번째 수업에서 나는 자기소개를 하고,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으며, 간단한 율동도 들려주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한국인 보조교사 선생님도 나를 칭찬 해 주었다.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과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수업에서의 호응도 갈수록 더 잘 맞았다. 수업에서는 각종 소규모 게임과 경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습 의욕을 북돋웠다.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활기를 더했다.

언어를 가르치는 것 외에도 나는 한국인 보조교사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문화 활동을 기획했다. 전지공예, 해바라기씨 까기, 얼굴무늬 그리기, 칠선 만들기, 버블티 만들기, 제기차기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특히 해바라기씨 까기 활동에서는 여러 조가 나의 초상화를 해바라기씨로 표현해 주었고, 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했다. 또 다른 조는 해바라기씨로 “중♥한”이라는 글자를 만들어 보여주었는데 나는 큰 울림을 느꼈다.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을 제대로 알리고 중한 우호 관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들은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이 학교 학생들은 예의가 무척 바르고, 선생님을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내가 가르치는 중국어반뿐 아니라, 일본어반 학생들도 나를 보면 “니하오!” 하고 인사하곤 했다. 심지어 1학년과 3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알고 있는 모든 중국어 표현을 총동원해 활기차게 인사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또한 무척 친절했다. 주변의 볼거리와 맛집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중국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하며 중국에 대해 묻기도 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 때문에 나는 따뜻함을 느꼈고, 마치 화목한 가족의 일원이 된 듯 했다.



이곳에 온 후 학교에서는 두 차례 교사 단합 활동을 진행했다. 함께 떠났던 나들이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더 친해졌고, 여유롭게 나들이를 즐기며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모든 순간이 참 편안하고 즐거웠다.

3.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 — 학과 합동 수업

지금까지의 진행했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을 꼽으라면, 단연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된 학과 합동 수업이다. 당시 학교에서는 두 과목 선생님들이 이틀 동안 공동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고, 마침 중국어와 화학이 한 조로 묶였다. 즉 화학 선생님과 한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해야 하며, 수업 내용 역시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

내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우선 중국어와 화학이라는 조합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이전까지 나는 두 과목이 어떻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나는 문과생이었고, 화학 지식은 충분하지 않았기에 어떤 수업 내용을 선택할지 몰라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섰다. 그러나 이미 배정된 수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국인 보조교사 선생님과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이번 협동 수업의 주제를 아편전쟁과 중국 LFP 배터리의 발전으로 정했다. 나는 관련 역사와 내용을 설명하고, 화학 선생님은 배터리와 관련된 화학 지식을 담당하기로 했다.

주제가 정해지자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번 수업은 처음 해보는 형태였기에 참고할 만한 자료도, 교재도 없었다. 모든 정보를 스스로 찾아 정리해야 했고, 온라인에 있는 자료들은 많았지만 그 진위와 정확성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솔직히 그 시기 나는 화학에 익숙하지 않았고 LFP 배터리의 발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화학 관련 지식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고, 과연 내가 이 수업을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컸다. 다행히 준비 기간이 넉넉했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꾸준히 공부했다. 한국인 선생님도 관련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며 내게 도움을 주었고, 결국 나는 무사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틀 동안 첫째 날에는 아편전쟁을, 둘째 날에는 중국의 LFP 배터리 발전을 다루었다. 첫날 수업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올지, 또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질지, 가지지 않을지 알 수 없었다. 예상과 달리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며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편전쟁 주제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 나는 학생들에게 이 전쟁을 아는지 물었다. 손을 든 학생은 극소수였고, 그래서 나는 더욱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게는 중국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내가 인용했던 “若鴉片一日不絕，本大國一日不國，誓與此事相始

终, 断定中止之理。(아편을 하루라도 끊지 않는다면, 이 대국은 하루라도 제대로 된 나라일 수 없다. 나는 끝까지 해결할 것을 맹세하며,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었다. 이 구절을 말하는 순간, 내 안에서 민족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나는 학생들에게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임을 알리고 싶었다. 우리는 역사 속 굴욕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거울삼아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다. 이 역사는 한국 학생들에게도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설명이 끝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교실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다.

둘째 날에는 중국 LFP 배터리의 발전을 설명했다. 비록 그전에는 이 분야를 깊이 알지 못했지만,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나는 국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크게 감동했으며, 중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꼈다. 학생들에게도 중국의 변화와 발전을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다. 수업을 진행하며 나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품고 학생들에게 중국 LFP 배터리의 발전 과정과 장점을 소개했고, 많은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산업을 통해 중국 과학기술의 비약적 성장도 이해해 보는 시간이었다.

비록 짧은 두 시간짜리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에게 더 폭넓고 다양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이 수업이 그들의 중국에 대한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4. 맺음말 — 하고 싶은 말

한국에서 지낸 8개월은 충실하고 또 평범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 또한 많은 변화를 겪으며 더 독립적이고 더 단단해졌다. 이번 여정은 소중한 경험이었고,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많은 불안과 불확실성에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점차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면 나의 파견 생활은 끝나게 된다. 처음에는 8개월이 길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솔직히 말하면 아쉽기도 하다. 이곳의 사람들, 이곳의 생활, 그리고 모든 것이 나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하에 이별 없는 만남은 없다”는 말처럼, 겨울에 한국에 와서 사계절을 지나 다시 겨울에 떠나게 되지만, 나는 이번 이별이 더 좋은 재회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모두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제 중국어 교육 봉사자로서, 나는 중화 문화가 찬란하게 빛나고 계속 전승되고 혁신을 이루어 세상에 더 큰 혜택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한중 양국 간의 우의가 길게 이어지고, 또 서로 협력하여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본다!



我的2025——赴韩任教， 挑战与成长的一年

浦杨

金秋十月，天气渐渐转凉，时间也在不知不觉中悄悄溜走，接职来韩国已近八个月了，距离回国只有不到三个月的时间。回看这大半年在韩国的生活，从最初的忘忘，到后来慢慢适应这里的一切，生活逐渐步入正轨，我也在这里留下了许多美好的回忆，怀着感恩和幸福的心情，希望用我的文字写下这段带给我的温暖和难忘的记忆。

一、第一面——初识韩国和全州新兴高中

2025年2月19日，我坐上了前往韩国釜山的飞机。因为是第一次出国，所以心情很激动，也很忐忑，不知道自己落地时将会面对的是怎样一番场景。我在脑海里想着韩国的样子，怀着激动的心开启了自己的赴韩之旅。

落地之后的那一刻，我好奇地瞄着窗外的景色，看着不远处飘扬的韩国国旗，心想：真的来到韩国了啊！在釜山和其他志愿者开启了为期一周的培训。过期间，我们听了许多讲座，去了海云台，结业仪式上我作为9班代表进行了试讲，还发表了萌芽丝，可以说，釜山培训的一周是实足且收获满满的一周。

釜山培训结束后，我们一百多名志愿者各奔东西，前往自己的赴任地。我被分到了全罗北道的金州，和其他几位小伙伴一起达到了金州后，我们就步分开，开始档老师一起离开了。我搭档老师准老师们一起很热心的人，第一天他就带我去办理了受临证的相关业务，还带我去参观了学校，这也我第一次到自己即将任教的学校——全州新兴高中。

学校很大，也很新，周围绿树环绕，看起来非常现代化，但从张老师的口中，我才了解到学校是一所百年名校，1900年就建立了，历史底蕴深厚，这也让我更期待在这所学校工作了。之后张老师带我来到中文教室，第一眼就看到了教室门上贴着的“蒲杨老师”四个大字，让我更对感受到？热情的欢迎，走进教室，中文书籍，中文习、中国传统服装、剪纸、中国结、各种中传统元素一应俱全，张老师还过我认识了负责？方面和海应用的田本小姐，热情欢迎我的到来。参观中文教室后，我和副校长见了面，校长真挚地表达着他以又学校对我的欢迎，副校长还送了我两幅热

粥让我象。虽然他们还不了解我，语言沟通也有障碍，但是他们努力散发着对我的善意，真诚的行为中表达出对我的欢迎，极大地缓解了我的焦虑和紧张，让我更期待今后的学校生活。

二、教学篇——热情的学生和老师

2025年3月4日，学校开学，我正式开启了自己的中文教学生活，负责这所学校高二学生中文课的教学。第一天上班我很紧张，因为是第一次来到韩国中教，也是第一次接触韩国学生，不知道我们的见面将是怎样一番场景。第一节课我进行了自我介绍，设置了一些小问答，还表演了萌芽丝，幸运的是，效果都还比较好，学生们很热情，搭档老师也对我大加赞赏，我暗自松了一口气。在之后的时间里，我和学生越来越熟悉，配合得越来越好。课堂上，我会用各种小游戏和竞赛来提高学生的学习兴趣，刺激他们的积极性，学生也踊跃参与到这些活动中来。除了语言知识的学习，我和搭档老师还开展了各种各样的文化活动，比如剪纸、瓜子、画脸谱、制作漆扇、珍珠奶茶、踢键子等，这些活动也让我见识到了学生的另一面，我惊叹于他们的创造力和想象力。在瓜子活动中，好几个小组用瓜子制作我的肖像图，让我感受到他们对我的喜爱和欢迎。还有一个小组的同学拼出了“中♥韩”，让我很感动，也让我更加坚定自己的使命，要让这些学生了解中国，为中韩友谊贡献自己微薄的一份力量。

课下，学生也会主动跟我打招呼，我觉得这所学校的学生都很有礼貌，见到老师会主动鞠躬问好。除了我教的中文课的学生，日语课的学生有时候见到我也会跟我打招呼说：“你好！”甚至一些高一和高三的学生也会热情跟我打招呼，努力说出他们所知道的全部中文。

不仅是学生，老师们也都非常友好，会给我介绍周边好玩的好吃的，还会努力用中文跟我打招呼，向我了解中国各方面的情况，这些举动让我感到无比温暖，仿佛生活在一个幸福的大家庭。来到这里学校组织了两次教师团建活动，每次出游都感觉和其他老师的距离更加亲近了，我们享受着悠闲的出游时光，欣赏着大自然的美景，聊着自己的近况，一切都是那么惬意。

三、印象最深的一堂课——学科融合课

要说目前为止印象最深的一堂课，那必然是暑假期间的学科融合课。当时学校要求两门学科融合在一起进行为期两天的授课，而中文课和化学课恰好被安排在一起授课，这就意味着我们要和化学老师同上一堂课，那么我们的授课内容就必须涉及到化学相关的内容。

这对我来说是一个大难题，因为首先中文和化学的组合同立比罕见，在此之前，我无法想象中文和化学该怎么融合在一起，而且我自己是文科生，化学了解得不够多，所以怎么选择教学内容让我感到害怕为难。但是既然安排了这样的融合课，那就只能尽力做到最好。我和搭档老师商量



讨论，反复探论，最终确定我们要讲的主题是鸦片战争和中国 LFP 电池的发展。我们介绍相关内容，化学老师负责介绍及到的化学知识。

确定好主题后，接下来就是备课。这次课因为是第一次开展，也没有教材，所以没有可供参考的现成资料，一切都需要我们自己搜集整理。所以提供的信息很少，但五花八门，真假难辨，需要我自己进行筛选。说实话，那阵我对化学我猜对LFP 电池的发展此此时确实不了解，提供信息时又有很多学科相关的知识，我不知道自己能不能做好。好在时间比较充裕，我不断给自己打气，搭档老师也会给我分一些视频，所以最后我还是成功将课了出来。

两天时间里第一天讲为战争，第二天讲中国 LFP 电池的发展。第一天我很难忘，不知有多少学生会来，也不知道他们是否会对这个主题感兴趣。意外的是，教室里坐满了学生，看着他们眼里的求知欲，我也想将自己所知道的一切都告诉他们。在讲解为战争之前，我先问学生知不知道这场战争，只有寥寥数人举起了手，所以我认为自己更有必要让学生好好了解和认识这场战争。讲解的过程其实也是我回顾自己民族历史的过程，印象最深的是我到时嘱咐：“若鸦片一日不绝，本大国一日不国，誓与此事相始终，断定中止之理。”这句讲话时，我的民族自豪感油然而生。我想让学生们知道，中国一直是一个热爱和平的国家，我们不会逃避代表的耻辱，而是以史为鉴，吸取教训，更好地发展自己。相信该段历史也会让韩国的学生更好地了解中国。讲解完后我们进入了问答小环节，学生在这一环节中热情高涨，踊跃参与，课堂氛围很乐。

第二天是讲解中国 LFP 电池的发展。虽然我之前不太了解这个领域，但是在搜集资料的过程中，我深深为国家科技的高速发展所触动，身为中国人的自豪感也油然而生，我迫不及待想让学生也了解中国的变化，中国的发展。在讲解的时候，我带着自信，满怀骄傲地向下面的学生介绍着中国LFP电池的发展历程和优势，也看到很多同学眼睛里的震撼。这堂课我相信不仅仅是让学生见识到中国电池行业的发展，更重要的是透过这个行业，了解到中国科技的腾飞。

虽然只有短短两节课，但是能够向学生展示更加全面、多样化的中国，我认为会让学生更好地了解中国，也许还会改变他们对中国的看法，哪怕只有一点点，我相信那也是值得的。

四、结语—想说的话

来韩国的八个月是充实而不平凡的八个月。我自己也有了许多改变，变得更加独立、更加坚韧。这一次赴韩之旅是我人生中从未有过的体验，我很感谢这次经历。来之前带着诸多不确定，来之后慢慢适应，拥有了许多人生新体验。再过三个月我的韩国任教之旅将画上句号，原本以为十一个月很长，但回头一看，才发现弹指一挥间，时间如流水般逝去。说实话内心是很不舍的，这里的人，这里的生活，一切都让我感到自在和温暖。但正如一句俗语“天下没有不散的筵席”，

在冬天来到韩国，经历了四季，最终也将在冬天离开，我相信，离别是为了更好的再见，愿我们都有更加美好的未来。身为国际中文教育志愿者，在这里也祝愿中华文化璀璨辉煌，继续传承与创新，惠及世界。中韩友谊长存，合作共赢，共创美好未来！



교사 성장기: 시행착오와 부단한 노력 속에서 더 나은 나로 성장하다

CPIK 프로그램 1년의 성찰과 성장

대구글로벌교육센터 가오원치

1. 한국에서의 새로운 출발: 설렘과 불안의 공존으로 시작하기

2025년 2월 18일, 베이징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철에서 나는 핸드폰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이번 해에는 스스로 크게 성장하길,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더 나은 내가 되었길.” 지금 돌아보면, 그 다짐은 현실이 되었다. 지난 1년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나는 분명히 성장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내 삶은 기대감으로 가득하면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 가방처럼 어수선함이 공존했다. 근무지인 대구글로벌교육센터는 일반 학교와는 전혀 달랐다. 다양한 수업 형태와 다소 복잡한 운영 체계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의 나는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배처럼, 조심스럽게 방향을 가늠하며 나아가야 했다.

더욱이 함께 일하게 된 선생님도 나와 같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관 근무 경험이 없는 두 사람에게 매일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첫 프로젝트였던 RP(Regular Program) 과정을 준비할 때도 그랬다. 문화 체험과 언어 활용을 결합한 몰입형 수업이었는데, 4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지 우리는 매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을까?”, “어떤 활동을 설계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가끔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퇴근 후에도 카페에 남아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은 지금 돌아보면 참 따뜻하고 소중한 순간이다.

2. 도전을 통한 적응: 비교에 직면하고, 작은 변화를 쌓아나가기

센터에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특히 영어 교사들의 수업은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었다. 다채로운 게임, 화려한 교실 장식, 생동감 있는 수업이 인상적이었다. 그에 비해 스스로 언어 표현과 수업 진행이 다소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내 수업이 어딘가 부족해 보였다. 처음 혼자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까?” 라는 긴장과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고,

자신감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스스로 작은 목표를 세웠다. 수업 전 비어있는 교실에서 수업 시연을 반복했고, 수업 후에는 학생들의 반응과 개선점을 간단히 메모하며 성찰했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며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여 나는 점차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3. 수업 혁신의 과정: 끊임없는 아이디어로 생동감 있는 수업 만들기

지난 1년 중 가장 뿌듯했던 수업은 중학생 대상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정규과정) 과정이었다. 수업 활동의 대부분을 협력 교사와 함께 구상했는데, 우리는 학생들의 흥미와 실생활을 중심으로 일상의 소재를 교육 활동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어 방향어를 가르칠 때, 오락실의 DDR 게임을 변형한 활동이 그 예다. 화면에 ‘상, 하, 좌, 우’ 네 방향을 표시하고, 학생들이 리듬에 맞춰 해당 중국어 단어를 외치도록 했다. 점점 빨라지는 속도 속에서 학생들의 웃음보가 터지기도 했고, 가벼운 경쟁 속에서 발음을 반복 연습하며 중국어를 한 마디도 모르던 학생들도 어느새 ‘상하좌우’ 같은 핵심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다. 학생들이 온전히 몰입하며 수업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듬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수업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반복과 수정이 필요했다. 처음엔 학생들이 이 게임을 즐겨워할지, 게임 규칙을 잘 이해할지 걱정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기대하며 즐겁게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은 AI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 놓았다. 처음에는 더 나은 수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AI에 많이 의존했지만, 이내 깨달았다. AI는 ‘도우미’일 뿐, 진짜 생생한 수업을 만드는 힘은 교사가 학생을 얼마나 이해하고, 목표를 얼마나 명확히 설정하며, 교실 분위기를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 있음을 말이다.

4. 성찰을 통한 성장: 불안이 자신감으로 완성되는 경험하기

끊임없는 시도와 수정을 거쳐 내 수업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다. 첫 RP 수업 때 협력 선생님께서 열 가지 넘는 수정사항을 적어주었고, 심지어 ‘대사집’까지 만들어 주실 정도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제는 혼자서 수업 흐름을 조절하며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중국어 수업 너무 재밌어요!”라고 말하거나, 친구에게 수업을 추천하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노력이 보람으로 바뀌며 마음이 뭉클해진다.

중국어 교사로서의 첫 여정은 작은 “실패” 속에서 성장하고, 따뜻한 격려 속에서 용기를 얻는 시간이



었다.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협력 선생님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센터의 다른 원어민 선생님들 역시 큰 영감이 되었다. 섬세하고 온화한 아이 선생님, 유쾌하고 재치 넘치는 앤 선생님, 나를 동생처럼 챙겨준 소냐 선생님, 그리고 강단 있는 마사 선생님. 덕분에 낯선 타국에서도 나는 소속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5. 앞으로의 길 : 온기를 더해 진정성 있는 수업으로 발전하기

지난 1 년의 경험을 통해 이룬 진정한 성장은 단순한 수업 기술의 향상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신념이 성숙해지는 과정이었다.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방법’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학생이 나를 통해 중국어를 좋아하게 되었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발판 아 중국어 교사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연구하고, 한국어 실력도 꾸준히 높일 것이다. 중국에서의 학업을 마무리한 뒤, 언젠가 한국의 CPIK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날을 기대한다. 더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내가 되어 다시 한번 국제 중국어 교사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

CPIK으로서의 시간이 끝나가지만,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하다. 대구글로벌교육센터의 모든 선생님 과, 이렇게 나를 성장시켜준 이 소중한 시간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1 년 동안의 배움을 디딤돌 삼아, 나는 이제 더 넓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한다.

잘 있어요, CPIK.

잘 있어요, 대구글로벌교육센터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教师成长经历：在摸索与创新中 成为更好的自己

CPIK项目中的一年的反思与成长

杲文琦

一、初到韩国：带着期待与不安的开始

2025年2月18日，我坐在驶向北京机场的高铁上，在手机的便签上写下了一句话：“希望这一年自己可以成长很多，下次见面时希望大家见到的是更好的我。”如今回想，这一年确实让我经历了许多挑战与收获，也让我达成了这一目标。

刚到韩国时，我的生活就像行李箱里那堆还没整理好的东西——满是期待，也有些慌乱。我所在的工作单位是大邱全球教育中心，与普通学校完全不同：课程类型丰富、体系复杂，我初来乍到，一时无从下手。那时的我，就像在大雾中前行的船，只能在摸索中逐渐辨明方向。

更具挑战的是，我的搭档老师也刚刚来到这里，我们都没有在这种机构工作的经验。每天各自忙碌、互相摸索，走了不少弯路。还记得我们合作准备的第一个项目——RP课程（Regular Program），一种融合文化体验与语言运用的沉浸式教学活动。由于学生群体流动性高、学习时间短，我们认为这是激发中文兴趣的重要机会。那段时间，我们每天都在思考：如何让课堂更有趣？怎样设计活动让学生愿意参与？虽然过程中也出现摩擦，但下班后一起在咖啡厅设计课程、互相鼓励的画面，如今回想仍十分温暖。

二、适应与挑战：在比较与自省中成长

教育中心是一所国际化机构，这里聚集了来自不同国家的外教。英语老师们的课堂总是创意十足：有趣的游戏、华丽的装饰、充满感染力的表达力。相比之下，我在语言表达与课堂表现上都显得拍谨。那段时间，由于是我独立授课，我常常因为“学生能否听懂”而紧张，也因此对自己的教学信心产生了动摇。

为了改进，我开始给自己设定目标。课前，我会进行“无生试讲”，为了呈现更好的教学效果练习课堂表达；课后，我通过学生的反应、课堂亮点与不足，对本节课进行简单的反思总结。我

还会观摩其他老师的课堂，吸收他们的教学创意与活动设计。每次改进虽微小，却如积沙成塔，让我在教学中逐渐找回自信。

三、教学突破：用AI与自主创新让课堂更生动

回想起这一年，最令我骄傲的课程应该是面向初中生的RP课程。其中的活动设计几乎都是我与搭档老师独立完成的。我们从学生的兴趣出发，从生活中常见的情境出发，尝试将零散的灵感转化为真正可操作的课堂活动。

在教授中文方向词时，我们以游戏厅的游戏DDR为灵感，在屏幕上显示上、下、左、右四个方向符号，学生需跟随节奏喊出对应汉语。随着节奏逐渐加快，学生在笑声与竞争中反复操练发音，在不知不觉中便掌握了“上下左右”等核心词汇。每当看到学生全情投入、课堂气氛高涨，我便感到无比的成就感。

创意到实现，每一个细节都需反复修改与实验。从第一节课紧张担心游戏效果，到后来自信期待学生反应，每一步都见证了我的成长。起初，我也常向AI寻求课堂活动设计，但生成的创意往往不尽如人意。回看这一年，我从依赖AI再到与AI协作，逐步明白：AI只是“灵感助手”，帮助拓宽思路、激发创意；而真正让课堂有生命力的，是教师对学生的理解、教学目标的把握以及课堂氛围的营造。

四、反思与成长：从焦虑到自信的转变

在不断的尝试与修正中，我的教学逐渐成熟。还记得第一次上RP课程时，搭档老师为我写下了十几条改进建议，甚至为我准备了课堂“台词”。而如今，我已能独立组织课程，灵活调整节奏，主动引导学生发言。当学生在下课后说“中文课真有意思”，甚至推荐给朋友时，我感到一切努力都值得。

从最初的迷茫到如今的从容，我在每一次“小小的失败”中成长，也在无数温暖瞬间中积累力量。搭档老师虽然对我要求严格，但正是她的指导让我在教学路上快速进步。中心的其他原语民老师也让我受益匪浅——温柔细腻的Ai老师、幽默风趣的Anne老师、把我当妹妹一样照顾的Sonya老师、酷飒个性的Marcia老师……他们让我在异国他乡找到了归属感与成长的勇气。



五、未来规划：让教学更有温度，也更有力量

这一年的经历让我明白，真正的成长不仅是教学技巧的提升，更是教育信念的成熟。以前的我更关注“怎么教”，现在我更在意“学生是否因为我而喜欢中文”

未来，我希望自己能够带着这份宝贵的时间精力继续从事这份职业。精进自己的教学技能，多多学习韩语。在整理好自己国内的学业之后，期待能与CPIK再次相见，用更成熟、更自信的自己，继续讲述中文故事！

如今，当我再次回望这一年的旅程，才发现自己真的走了很远。成长，并不是一夜之间的蜕变，而是一次次不安之后的坚持。CPIK的这一年，让我成为了更勇敢、更自信、更热爱教育的教师。

现在，CPIK的日子进入倒计时，我心中充满感激——感谢大邱全球教育中心的每一位老师，感谢这段让我成长的时光。未来，我会带着这一年的收获，继续在更辽阔的海洋中航行。

再见啦，CPIK！再见啦，大邱全球教育中心！

谢谢你，让我成为了更好的中文教师，也在这里成就了更好的自己。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바다는 깊고 정은 끝이 없듯 행운과도 같은 당신과의 만남

강릉여자고등학교 진자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은 내게 왜 한국으로 중국어 교육 봉사를 오게 되었냐고 물었다. 나는 K-pop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봤던 한국 드라마도 손에 꼽을 정도다. 그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놀랍게도 한국이 나를 선택해주었기에 감사할 따름이다. 어쩌면 한국과 나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작용했는지도 모르겠다.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발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았던 그 순간부터, 나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3월, 진눈깨비가 날리던 날 나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강릉에 도착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역사적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봄에는 벚꽃을 감상하고, 여름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가을에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겨울에는 스키를 탈 수 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강릉에서 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고, 따뜻하고 성실한 파트너 선생님을 만났으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알게 됐고, 또 마음이 맞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이들 덕분에 더 많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교육 활동】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으로만 중국어 수업을 진행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들과 직접 마주하고 한국인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협력 수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나에게서는 새로운 도전만큼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 내용과 구성에 대해 파트너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강의 내용을 지루하게 느끼거나 학습 의욕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파트너 선생님은 빠르게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수업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더 생동감있고 즐거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중국어 수업과 중국어 여름캠프에서는 학생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진행했다. 함께 치파오를 입고, 판다 장식을 만들고, 경극 분장을 하고, 붓글씨를 쓰기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직접 경극과 쿵푸 부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월병, 중국식 토띠야인 ‘밀전병’, 버블티, 스촨 빙편 등 중국 음식을 함께 만들기도 했다. 그중 대부분은 나도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칠선(옷칠을 한 부채) 만들기였다. 수업 전 파트너 선생님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실패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방법을 수정하여 성공했을 때, 물감이 물에 피어나 부채 위에 한 폭의 그림처럼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학생들뿐 아니라 한국 교사들 역시 중국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날때마다 내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셨고, 나는 그분들께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배우곤 했다. 이러한 ‘교학상장(서로 가르치며 함께 성장함)’의 경험이 내게는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마음뿐이다. 파트너 선생님의 인내와 배려, 학생들의 순수한 호응 덕분에 낯선 나라의 강단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다. 컴퓨터에 점점 쌓여가는 새로운 수업 자료와, 학생들이 중국어로 표현하는 목소리를 보고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은 행복과 성취감으로 가득해진다.

【생활 적응】

한 친구는, 한국어를 모르면서도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사실 모두 파트너 선생님들 덕분이다. 그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 덕분에, 인사 몇 마디밖에 못하던 나도 서서히 이곳의 생활에 스며들고 적응할 수 있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안 선생님은 각종 행정 절차를 도와주시고,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주셨으며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다. 늘 같이 점심 먹으러 갔었고 일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할 땐 다른 선생님께 나를 부탁하기도 했다. 내가 외롭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고, 한국 음식과 한국 소설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한국 결혼식에도 데리고 가주시고 학생 연주회에 참석하기도 하면서 한국 문화의 독특한 매력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한국인들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다.

김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 있다. 학생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는 모습, “배고프죠?”라며 건네던 간식, 바쁜 와중에도 집까지 데려다주려 했던 마음 씩씩이는 내게 큰 위로와 감동이었다.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나를 격려해 주던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수업을 조정해 주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중국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던 배려심 넘치는 분이셨다.

선생님들은 나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그분들 덕분에 나는 강릉이라는 낯선 곳, 그리고 한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따스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이 따뜻함은 우리가 함께 마시던 커피 속에도 스며 있었다. 한국은 커피를 즐겨마시는 나라다. 교무실에서도 늘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고, 직접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주었으며 오후 시간을 함께 보냈다. 씩씩함이 점차 고소함으로 바뀌는 맛을 천천히 음미하다보니 어느새 한국의 ‘카공 문화’와 ‘커피 문화’에 익숙해져 갔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밥을 사는 법, 인사 예절을 검색해보고 또 번역기를 돌려가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그렇게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었다.

【명절 즐기기】

강릉에 오면 놓칠 수 없는 축제는 단연코 단오제였다. 단오제는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다른 도시에서 온 친구들을 맞이하느라 나흘 내내 나갔었다. 단오제는 규모도 크고 흥겨웠으며, 행사도 정말 다양했다. 기원 의식, 관노가면극, 한국 전통 혼례, 그네뛰기, 씨름 같은 전통 프로그램부터, 노래, 춤 공연, 공예 체험, 놀이마당 등 젊은 층이 좋아하는 현대적인 활동까지 다양하게 펼쳐졌다. 구경하고 즐기면서 단오제의 진한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한국 전통 막걸리와 썩떡도 맛볼 수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또 하나의 명절은 올해 길게 휴일이 이어졌던 추석이다. 강릉 지역의 한국인 클럽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추석 행사를 열었다. 나는 세계 곳곳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부채를 만들고, 투호 놀이를 하고, 송편도 빚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다. 비록 타지에서 가족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한국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어린이날에는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을 보았고, 스승의 날에는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 또 강릉의 대표 행사인 커피 축제와 맥주 축제에도 참여했다. 이런 명절과 행사들을 통해 우리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새로운 활동을 체험하며, 이국적인 풍습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미식과 풍경】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들은, 음식과 풍경이 함께 어우러져 다채로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강릉의 여름이 가장 인상 깊다. 정동진의 젤리빛 바다는 바닥까지 들여다보일 만큼 투명했고, 주문진 해변에는 드라마 <도깨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안목해변 커피거리에는 커피 향이 가득했고, 경포대 주변에는 끝없이 펼쳐진 맛집들이 즐비했다. 봄바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경포대의 벚꽃도 참 아름다웠다. 나는 해변에서 오후를 보냈다. 바다에 들어가 수영을 하기도 했고, 앉아서 파도가 발등을 스치는 것을 느끼거나, 바닷가 카페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파도 소리만 듣고 있어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손에 잡힐 듯했다.

강릉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오래 머물렀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남산타워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고, 홍대에서 공연을 보고, 이태원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올림픽공원에서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여행 계획표에 적어 두었던 장소들이 하나하나 추억이 되어 갔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가보았다. 맑은 날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고, 비 오는 가을엔 단풍 속을 걸으며 동자봉을 찾았다. 인천 앞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푸른 바다를 바라봤고, 속초 해변의 대관람차 아래에서는 해 뜨기를 기다렸다. 춘천 레고랜드에서는 물놀이하며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양산 놀이공원에서 긴 줄을 섰지만, 폭우 때문에 보고 싶던 불꽃놀이를 보지 못한 것. 하지만 어쩌면 이런 아쉬움이 언젠가 다시 만날 이유가 되어줄지도.

미각의 추억도 풍성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 지글지글 소리 나는 고기구이, 달콤하고 매콤한 닭갈비와 문어 볶음, 골목 포장마차의 유혹적인 김밥과 호떡, 마음을 사르르 녹여 주는 순두부찌개와 콩나물국, 그리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공차 같은 버블티와 따뜻한 커피까지... 미각이 즐거워지는 시간이었다.

여행 중 멈추지 않고 기록했고, 느낀 것들을 작은 팁과 함께 정리해 SNS에 공유하며 한국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주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장면 속을 걸을 때면, 마치 그 이야기의 한 조각이 된 듯 설렘, 기쁨과 감동이 차곡차곡 쌓여 갔다. 23살에, 시(詩) 같은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실감이 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내 청춘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인문적 배려】

낮선 타국에서, 언어의 힘은 더욱 선명했다. 외국 친구들이 중국어로 말을 걸어올 때마다, 그 산을 넘어 전해지는 친절함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학교 경비 아저씨는 내가 중국어 교사라는 것을 알고 매번 “니하오”라고 환하게 인사를 건넸고, 중국어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조차도 길에서 나를 보면 신나게 뛰어와 자신이 배운 단어를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다. 여행 중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인임을 알아보고 “예뵤요”, “고마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같은 중국어 표현을 먼저 건네줄 때도 많았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그 말들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친절이었다.

한국어의 섬세함 또한 늘 나를 감동하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는 내가 하루에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었다. 학교에 들어설 때,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건네는 그 한마디는 밝은 시작을 열어주곤 했다. 동료뿐 아니라, 등산길에서 마주친 낯선 등산객들도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파이팅”을 외치며 서로를 응원했다. 일상 속의 “감사합니다” 또한 자연스레 내 입에 익었고, 버스에서 내릴 때마다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은 부분에서 흐르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 공공장소의 곳곳에는 이렇게 따뜻한 순간들이 숨어 있었다. 길을 물어본 뒤 버스를 탔을 때, 버스 기사님의 표정은 어느새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골목 어귀에는 잃어버린 손수건을 물고 온 작은



강아지가 있었고, 엄마는 여전히 집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당에 놓인 오래된 그네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도시의 여러 공간에는 생활의 온기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 장맛비가 내리던 날, 기와지붕 아래 퍼지던 은은한 향기와 습기, 그리고 비 오는 새벽 시장에서 노부모가 작은 걸상에 앉아 손녀에게 쌀알로 장식을 만들어주던 장면—젖은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주워 모으던 그 손길은 가늘고도 단단했다. 이처럼 외국 땅에서 쉽게 지나칠 수도 있는 순간들 속에서, 나를 맞이한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포근한 온기였다.

가장 마음 깊이 남아 있는 순간은, 떠나기 직전 아래층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건넨 말이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서 다리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그 말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연한 만남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러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이 땅에서 마주한 모든 인사와 시선, 따뜻한 말 한마디, 스쳐 지나간 순간들… 그 모든 조각들이 모여 나만의 답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맺음말】

생각해보면, 나는 어느새 이곳의 사람들과 삶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별이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마음속 깊이 쌓여 있던 아쉬움을 꺼내보았다. 여기에서 나는 수많은 ‘인생 네 컷’을 남겼고,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낸 이 시간 자체가, 내 인생 앨범 속 가장 소중한 한 장면이 되었다. 바닷가에는 하루에도 몇 번 씩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듯, 우리의 짧은 만남 또한 서로의 삶에 반짝이는 흔적을 남길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었던 수많은 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다.

“바다처럼 깊은 우리의 정, 그대와의 만남이 내겐 큰 행운이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海深情不尽，有幸与君逢

陈紫云

初到韩国，就有不少人问我为什么选择来韩国当汉语志愿者。其实，我不追k-pop，看韩剧也屈指可数，我在机缘巧合下报着试试看心态选择了韩国，很出乎意料也很感谢韩国接受了我，也许这就是我与韩国的不可名缘。当从飞机第一次俯瞰下渤海令我感到陌生又憧憬的深蓝大海时，我在韩国任教的故事就这样悄然而启了序章。

在三月弥漫着鹅毛大毛雨的时节，我来到了一个宁静美丽的沿海城市——江陵。这座城市有自然风光，亦有历史文迹。春天赏樱，夏天看海，秋天踩枫，冬天滑雪，岂不乐哉？在这里我参加了丰富多彩的活动，遇到了温暖敬业的搭档老师，认识了可爱的学生，还结交了很多志同道合的好朋友，留下了许多美好回忆。

【教学工作】

由于疫情此前我进行的都是线上汉语授课，而这次则是我第一次直面学生，并与一位韩方搭档老师共同开展的“二师课堂”，对我而言，无疑是一次全新的挑战。我通过认真备课，积极与搭档老师讨论 教学内容与课堂环节，逐步顺利开展了教学工作。期间，也曾遇到学生觉得内容枯燥、学习积极性不高的情况。每当一这样，搭档老师总会及时提出，我们便一起调整授课方式、用心设计、尽力呈现更生 动有趣的课堂。

在汉语课和汉语夏令营中，我们开展了丰富多彩的文化活动，以此激发学生对中国文化的兴趣。我们一起穿旗袍、做熊猫挂件、画京剧脸谱、写毛笔字，我还给学生表演京剧和功夫扇、一起制作月 饼、手抓饼、珍珠奶茶、四川冰粉等中国美食。其中很多活动，对我而言也是第一次尝试。印象最深的是制作漆扇——课前我一直与搭档老师反复试验、失败了很多次，不断调整方法后才成功。当色彩 在木面中浸开、又在扇面上定格成画，我们都忍不住一起欢呼起来。

除了学生，学校的韩国老师们也对汉语抱有浓厚兴趣。她们在工作之余抽空学习，我教授汉语及 中国文化知识，而她们也常常教授我相应的韩语表达。这段“教学相长”的互动，让我在语言与文化中共 同进步。

回顾这段教学时光，我心中充满感激。是搭档老师的耐心包容，是学生们的纯真回应，让我在异国的讲台上逐渐成长。如今，看着电脑里日渐丰富的新课件资料、听着学生们用汉语进行表达，我的心中充满了沉甸甸的幸福感和成就感。

【生活适应】

有朋友说很佩服我的勇气，不会韩语也能在韩国生活。其实这都要归功于我的搭档老师，是她们无微不至的关怀和不厌其烦的帮助让我懂得简单几句问候语的我逐渐融入并适应了这里的生活。

初来乍到，安老师就带我办理各项事宜，细致入微地为我解答生活中遇到的各种难题，热情地招待我，周到地照顾我。她会很贴心地陪我一起吃午饭，当自己有时间留我时也会和我一起安排其他师来球，不让我感到孤单。她带来的不仅是生活上的便利，还让我深入了解韩国文化，带我品味韩国美食，推荐韩国影视，让我在参与韩国婚礼、学生演奏会等有趣的活动，让我颇了解了韩国文化的独特魅力，在心灵上与这片土地的人们产生情感联结。

与金老师的相处时光虽短暂，留下的记忆却温暖而绵长。这些记忆是她对学生如数家珍般的了解，是她课间一句“肚子饿了吧？”之后递来充饥的零食，是即使您也要送我回家的那份心意，更是她始终洋溢着的笑脸，给予我温暖和鼓励。还有善解人意的李老师，在我身体不舒服的时候会调整上课内容，在课后和我讲她在中国发生的趣事，彼此相处得很融洽。

她们让我感受到家的温暖，我会一直记得因为她们我所感受到江陵这个城市、韩国这个国家给我带来的温暖。这份温情也同样寄予给我的咖啡，回校后的咖啡室文化盛行，办公室里总能看见她们带来的香气。韩国老师也会教我手冲咖啡，午后是一边聊着天一边享受我的休息时光，我也从不吝啬用其中的苦涩到慢慢融出的醇甘来出好的滋味。在这过程中，我学会了请客买单、习惯打招呼的礼时，一边翻译一边搜索着使用各种网站为家的伙伴，就这样渐渐地适应了在韩国生活。

【欢度佳节】

既然来到了江陵，最不能错过的节日当然是端午祭啦。端午祭的活动进行了一个周，由于招待来自其他城市朋友的缘故，我去了四天。端午祭很盛大也很热闹，活动更是丰富多彩层出不穷，如祈愿巫术、官奴假面木偶戏、韩国传统婚礼、荡秋千、掷骰等传统活动，还有歌舞表演、手工体验、游园活动等年轻人喜欢的现代活动。我们在游玩中感受到了端午祭浓厚的节日氛围，一饱眼福的同时还品尝到了韩国传统米酒和艾草年糕。



最喜欢的节日当然还有今年放了长假的中秋节啦。江陵当地的韩国俱乐部举办了很多庆祝中秋的活动，以宣传韩国文化。我和来自世界各地的朋友一起在韩屋村穿韩服，做传统扇子，玩抛绣球游戏，制作美味的松饼，其乐融融。虽然在异国他乡与家人团圆，但却感受到了来自韩国朋友的温暖和情谊。

除此之外，我还度过了很多有意思的节日，儿童节在景福宫看守卫戴着可爱的小偶头饰进行交接；教师节收到了学生的感谢和祝福，还有当地特色的江陵咖啡节、啤酒节等活动。通过这些节日活动，我们一起交流、一起欢笑、一起体验新的活动，一起感受异国的风土人情。

【美食美景】

在韩国的这段时光，美食与美景共向编织出我在韩国最五彩斑斓的回忆。

江陵的夏日，是我心底最温柔的一页。正东津的果冻海清澈见底，注文津的海边还留着《鬼怪》里的醉情，中小浦的旧时官衙与吟竹轩静默诉说着往昔。安木海边的咖啡街氤氲着香气，江门海边蕴着无数瞩目美味；镜浦台的樱花慢慢在微风中绽放……我在海边度过许多个下午——有时下海游泳，有时只是坐着，任海浪一遍遍漫过脚背，或在海边的咖啡店里与友人闲谈。甚至，我什么也不做，只是听潮水拍岸，也能真切地触摸到“岁月静好”的模样。

除了江陵，首尔是停下足迹最多的地方。去景福宫穿韩服，去首尔塔挂上爱心锁，去弘大看公演，去梨泰院看日落，去奥林匹克公园参加音乐节……那些曾在攻略上标记的地点，都被我一一走成了真实的记忆。我的脚步也曾到达其他城市。晴日攀临缆岳山，眺望岬山落霞；雨中秋访童子岳，在枫叶丛中烟雨间旖旎成诗。我去仁川的海上坐轮船迎风飘，夜色里醉望碧海蓝天下浮冲浪；于束草沙滩的摩天轮下等待海上日出，也在春川乐高乐园的波水狂欢中重返童年。当然也有遗憾，比如在梁山乐园排长队，因天气不作美，大雨倾盆，没能看见心心念念的烟花——但也许，遗憾正是为了给未来的重逢，留个温柔的理由。

舌尖的记忆同样丰盈：外酥里嫩、肉汁丰盈的炸鸡，滋滋作响的烤肉，甜辣交织的辣炒鸡排与章鱼，街头小摊的诱人紫菜包饭和糖饼，暖心暖胃的嫩豆腐汤与大豆牙汤，还有那些看似无处不在的孔明灯与奶茶……每一口都是对味蕾的真诚款待。当然，更少不了那无处不在的咖啡香，贯穿了每个或忙或闲的日子。

我从未停止探索与记录，也将旅途中点滴感悟整理成攻略，通过小红书传递给更多计划来韩国的朋友。当我漫步于曾在电视剧中见过的景色，仿佛昔日也成为故事的一部分，心中更添爱着每一份悦心与美好。于幸在 23 岁这一年，踏上这段充满诗意的韩国旅程，这段时光会成为我青

春纪念册中珍藏的一页。

【人文关怀】

在异国他乡，语言的魅力变得格外真切。每当听到外国朋友用中文与我交流，那份跨越山河的善意总让我心里一暖。学校的门卫大叔知道我是汉语老师，每次见面都会热情地说声“你好”，即便不是我教授汉语的学生，在路上遇见我，也会雀跃地跑来展示他们学过的中文词句。旅途中，当韩国人认出我们是中国人时，常常会主动用中文说“很漂亮”“谢谢”“认识你很高兴”。这些简单却真诚的词语，承载着他们发自内心的友善。韩语的细腻也常令我动容。“안녕하세요”是我每天说得最多的一句话——走进学校，对每一个遇见的人道一声“安宁”，仿佛也为自己的内心注入了明亮的开始。不仅是同事之间，就连爬山时遇到的陌生登山客，也会微笑着互相问候和加油打气。还有在生活中常说的“감사합니다”。我也学着当地人的习惯，在下公交车时对司机道一声感谢，让善意在细节中自然而流淌。

韩国的公共空间也藏着许多动人的善意。每次指路之后，公交车司机在下午缓和了不少。小狗叼了失而复得的手帕放在小巷口，妈妈依旧守候在自家楼下，院子里保留着的秋千架，沉淀着无数往来的记忆和温情。不止马路上，城市的每一处都藏着生活的温度。更难忘的是雨天的青瓦屋檐，在雨雾里散发着淡淡的香气和烟火气。清晨的老奶奶在坐着矮凳给孙女用毛巾配饰米粒画，弯腰捡拾散落雨市的树枝，一双又细又好的手将年纪轻轻的雨水抚平。在异国遇到这样容易被忽视的温暖时，迎接我的不只是惊讶，而是温暖包裹。

最令我难忘的，是一位租住在我楼下、恰好在临别时留给我的那句嘱咐：“希望你能成为韩中文化的民间使者。”夜晚我站在楼道里久久出神，从她的目光里，看到了她说这句话时的真诚。偶然的相遇，也许正是因为这样的心意才变得珍贵。站在这片土地上时的一切相遇，能被这些细碎的光点照亮，看到彼此真实的模样。这里所发生的一切、每一声问候与回望的柔情、不期而遇的相遇、一温暖的瞬间、点点滴滴，书写属于自己的答案。

【结语】

真没想到，在不知不觉间，我已深深爱上了这里的人与生活。直到离别临近，才惊觉那份不舍，早已在心中积得那样深。在这里，我拍下许多张“人生四格”，定格下无数欢笑的瞬间。而这段在韩国的时光，本身也成了我人生这本相册中最值得珍藏的一格。海边的潮汐每日如期而至，又悄然退去，正如我们短暂的相遇——虽终须一别，却已在彼此的生命沙滩上，留下了湿润而闪亮的痕迹。最后的最后，千言万语凝作一句：海深情不尽，有幸与君逢。



가족의 이름으로, 중국어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에 감사하며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이요남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한국에서 CPIK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한 지 1년이 되어간다. 뒤돌아 보면, 이곳 한국의 국경 마을 — 양구에서의 일상과 근무는 처음 상상했던 만큼 화려하거나 다채롭지는 않았지만, 늘 충실하게 보냈으며, 고요하고 잔잔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는 이곳만의 고유한 온기와 향기가 있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다. 학교에 도착하기 전, 교육원 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남 선생님, 강원외고는 아주 특별한 학교예요.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다. 겉보기엔 세상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 학교가, 얼마나 많은 ‘중국어의 꽃’을 피워낸 따뜻한 터전인지 말이다.

이 학교는 한국 고등학교 가운데에서도 보기 드문 특징을 여러개 지니고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이자 기숙학교이며, 중국어 전공이 따로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중국어 수준이 매우 높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 이미 1년간 말레이시아에서 교편을 잡았던 나는 ‘학생들 앞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토록 수준 높은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좋아하는 중국어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수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때 고맙게도 동료 선생님께서 내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3학년 중국어를 담당하고 계신 김 선생님이 내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학생들 수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신 뒤,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중국 드라마 <가족의 이름으로(以家人之名)>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일상 중국어를 가르쳐보면 어떨까요?” 그 제안에 솔직히 조금 망설였다. <以家人之名>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중국 드라마지만, 대사 속도가 빠르고 등장인물의 대화가 촘촘하며, 중간중간 전문용어도 섞여 있어서 ‘학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선생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까지 이틀간의 시간 뿐이었다. ‘드라마를 통해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문법을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는 드라마 전편을 빠르게 재시청했다. 그리고 내용의 흐름을 끊지 않는 선에서 고등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 그리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면들을 선별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의 수업 설계를 완성해 나갔다.

Ⅰ 드라마로 배우는 중국어: 《가족의 이름으로》 Ⅰ

차시	시청 내용	학습 내용
1		드라마 예고편 감상, 주요 등장인물과 관계 이해, 인물 관계 파악 및 인물 소개
2	등장인물이 자신의 집 구조를 소개하는 장면	나의 집과 학교를 중국어로 소개하기
3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도와주는 장면	친구를 소개하고, 사자성어 ‘견의용위(见义勇为)’ 배우기
4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생일을 보내는 장면	중국어로 아이스크림 주문하기
5	인물이 대회에서 상을 받는 장면	소원, 상의 종류, 순위, 택배 관련 어휘 표현 배우기
6	인물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장면	고급 어휘로 음식 주문 및 조리법 표현 배우기
7	등장인물들이 대학 전공을 논의하는 장면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과 전공을 중국어로 표현하기
8	등장인물이 대학수능을 치르는 장면	한중 수능 문화 비교, 수능 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9	수능 후 각자의 길을 가는 장면 (1)	불행한 상황을 표현하는 중국어 배우기: “하필이면 비 오는 날 지붕이 샌다(屋漏偏逢连夜雨)”
10	수능 후 각자의 길을 가는 장면 (2)	불행한 상황을 표현하는 중국어 배우기: “큰 재난이 닥치면 각자 도망친다(大难临头各自飞)”
11	각자 다른 나라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장면	중국의 설날 풍습, 세배 인사 표현, 영상통화 문화 배우기
12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장면	중국어로 커피 주문하기, 한중 커피 문화 비교
13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	별자리와 띠를 중국어로 표현하기
14	인물이 신발을 사는 장면	신발 구매 표현, 사이즈와 교환·환불 관련 어휘 배우기
15	인물이 옷을 사는 장면	다양한 옷의 종류와 날씨에 맞는 복장 표현 배우기
16	인물이 이상과 현실의 차이로 다투는 장면	자신의 감정을 중국어로 표현하기
17	인물이 QR 결제로 음식을 주문하는 장면	전자결제 관련 중국어 표현, 중국의 모바일 결제 문화 이해
18	드라마 마지막 회 감상	드라마에 대한 감상 자유롭게 중국어로 표현하기
20	기말 프로젝트: 나만의 ‘드라마’ 만들기 - 중국어 Vlog 제작	

한 학기는 총 20차시로 구성되어 있다. 매 수업 전, 나는 약 5~6분 분량의 영상을 직접 편집하여 학생들이 먼저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중심으로 PPT를 제작하여, 한 편의 영상을 여러 개의 작은 언어 단위로 나눈다. 수업은 “교사의 질문 → 인물의 대사 시청·청취 → 새 어휘와 문법을 실제 상황에 적용” 이 세 단계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드라마 속 인물의 말투와 표현을 직접 듣고,



그 장면에 등장하는 단어와 문법을 생활 속 익숙한 장면에 대입해 연습한다. 매 시간 배우는 새 어휘와 문법은 약 10~15개 정도로, 학생들이 너무 쉽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학습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구성했다. 또한, 매 차시마다 감상한 장면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드라마 속 대사를 활용한 역할극 대화 연습, 문맥 속에서 단어를 채워 넣는 상황별 어휘 연습, 그리고 웃음과 참여가 함께하는 흥미로운 게임 활동까지—학생들이 단조로운 학습 방식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수업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이렇게 학생들은 드라마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의 언어를 ‘느끼고’, ‘말하고’, ‘사용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Hánguó cài 韩国菜

김치 gāncǐ / 김치
비빔밥 bībīnbāo / 비빔밥
떡볶이 tēcfuōyì / 떡볶이
cháo niángqǔ / 초창국

chūnchūn cháo jīpǐ / 춘천 닭갈비

불고기 bùgōuqǐ / 불고기
삼겹살 sānyǎngsāl / 삼겹살
소주 sōuzhōu / 소주
chǎn zǎocǐ / 찬자차

shíngtāng / 싱가탕

만두찌개 wàndǒuzhīkāi / 만두찌개
감밥 gǎnbāo / 감밥
반찬 bǎnchān / 반찬
나물 námù / 나물

Zhōngguó cài 中国菜

shuǐzhōu ròu (pàn) / 수육(판)
매운 닭볶음탕

niǔ jīpǐ / 뉴기피
우육면

guǒbānbō / 과반보
떡볶이

shuǐzhōu yú / 수육탕
매운 양념탕

jīwēixiǎ / 기웨이샤
닭볶음탕

fāngcāo cháo dān / 방cao 찰떡단
떡볶이떡볶이떡볶이떡볶이

麻婆豆腐 / 마보두부
麻婆蹄花 / 마보티화
口水鸡 / 수口水鸡

shāobānbō / 샤반보
떡볶이

shāobānbō / 샤반보
떡볶이

对话练习:
先填空 tián kòng, 再进行对话练习, 换成你想吃的菜。
먼저 빈칸을 채운 후, 친구와 함께 대화 연습을 하세요. 나(희) 원하는 음식으로 바꿔 주세요.

Lǐ Jiānjiān: Gē, xiǎo gē, nǐmen xiǎng chī Zhōngguó cài háishì Hánguó cài?
李天笑: 哥, 小哥, 你们想吃中国菜还是韩国菜?

Lǐng Xīke: Dōu kěyǐ, nǐmen dìng.
凌霄: 都可以, 你们定.

Huǒ Zǐqiū: Jīntiān wǒ yǎngqǐ wǒmen chī (Zhōngguó cài) ba!
贺子秋: 今天我请客, 我们吃(中国菜)吧!

凌霄: 我们还是 _____ (같이 나가) 吧?
服务员: 您好, _____ (어시오세요),
贺子秋: 我们想看一下 _____ (메뉴).
Lǐ Jiānjiān: Nǐ yǒu shénme _____ ma?
李天笑: 你有什么 _____ (음식) 吗?
Fūwúyuán: Wǒ tuījiàn (shuǐzhōu ròu) hé (jīwēi xiǎ), jīntiān de _____ hěn xiǎoxīn.
服务员: 我推荐(수육)和(기웨이샤), 今天的 _____ (떡볶이) 很新鲜.

Lǐng Xīke: Nà wǒ qǐ shuǐzhōu xiàng nà biān tīkǒuxiān, nǐmen xiǎn dān bié de cài.
凌霄: 那我取水육那边吧, 你们先点别的菜.

Huǒ Zǐqiū: Wǒ yào chī (shuǐzhōu ròu) hé (fāngcāo cháo dān).
贺子秋: 我要吃(수육)和(떡볶이).

Huǒ Zǐqiū: Nà wǒ diǎn yíge (guǒ bāo ròu).
贺子秋: 那我点一个(떡볶이).

Fūwúyuán: Qǐngwèn nǐmen yǒu shénme _____ ma?
服务员: 请问你们有什么 _____ (음식) 吗?
Lǐ Jiānjiān: Méiyǒu _____, wǒmen shénme dōu chī.
李天笑: 没有 _____ (음식), 我们什么都吃.
凌霄: 天笑, 你慢点吃, 别噎 (yē) 着.
吃完石
贺子秋: 服务员, _____ (제안서) !
服务员: 您好, 这是您的 _____ (주문서), 欢迎下次再来!

빈칸 채우기 + 대화 연습

咖啡师:
kǎ fēi shī
请选择温度
qǐng xuǎn zé wēn dù

拿铁 (第1杯) 少冰 shǎo bīng
正常冰 zhèng cháng bīng 热 rè 常温 cháng wēn

美式 (第2杯) 少冰 shǎo bīng
正常冰 zhèng cháng bīng 热 rè 常温 cháng wēn

咖啡师:
kǎ fēi shī

好的, 一共是 51 元
hǎo de, yì gòng shì 51 yuán

这是您的小票, 欢迎下次再来!
zhè shì nín de xiǎo piào, huān yíng xià cì zài lái!

订单详情:
dìng dān xiáng qíng

第1杯 抹茶拿铁 (28元)
杯型: 中杯
甜度: 正常糖
温度: 少冰
用餐方式: 打包/带走
吸管: 不要

第2杯 卡布奇诺 (23元)
杯型: 大杯
甜度: 少糖
温度: 正常冰
用餐方式: 在这儿喝
吸管: 要

시로 제작한 '커피 주문하기' 인터랙티브 웹게임



▣ PPT 형식으로 진행한 ‘의상 코디네이션 게임’ ▣

매 시간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단독으로 강의를 맡은 주강사인 나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드라마의 줄거리를 정리하고, 필요한 장면을 직접 편집하며, 그 장면을 다시 잘게 나누어 PPT를 제작하는 일, 대사의 한자와 병음을 일일이 정리하고, 새로운 어휘에 주석을 달며,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연습 방식을 고안하고, 연습문항을 창작하는 일까지—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그 어느 한 단계도 쉬운 것은 없었고, 매 순간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더 큰 열정과 책임감으로 임할 수 있었다.

▣ 제7과 〈음식 주문하기〉 PPT 수업 자료 ▣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내가 쏟은 노력은 눈에 띄는 결실로 돌아왔다.

드라마 중국어 수업이 있는 날이면, 학생들은 언제나 일찍 한어 교실로 찾아와 그날의 새로운 줄거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각자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을 때, 학생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선생님, 링샤오(凌霄)는 중국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리젠젠(李尖尖)은 아직도 오빠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요. 천천히, 집중해서 보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곧 답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마다 나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호기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기쁜 것은, 학생들이 드라마 속 대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점점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여름이 되면 학교 식당의 냉동고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아이스크림이 무료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서로에게 물었다. “너 아이스크림 맛이 뭐야?”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다. “선생님, 제 친구는 ‘커피 중독자’예요. 매일 아메리카노를 마셔요.” “선생님, 저 작년에 상하이에 갔었는데, 알리페이로 결제해봤어요!” 이런 귀엽고 생생한 중국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오늘 수업도 꼭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

학기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함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았다.

《가족의 이름으로(以家人之名)》의 결말은 따뜻하고 행복하며, 희망으로 가득했다.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오늘 본 이 결말처럼 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마음이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기 마지막 과제를 안내했다. “한 학기 동안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으니, 이번엔 여러분이 직접 ‘드라마’를 만들어 볼 차례예요. 이번 귀가 기간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주말 생활을 담은 ‘중국어 Vlog’를 촬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기대와 의욕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1. 需要做什么?

(1) 周末回家、在学校的空闲(kòngxián)时间(여유시간), 用ipad或手机拍视频(pāi shìpín, 영상 찍다), 记录(jìlù, 기록)自己的生活。


(2) 拍vlog的时候, 请说汉语, 用汉语介绍(jièshào, 소개)你的生活。

(3) 如果知道汉语怎么说, 请一边拍(pāi, 찍다), 一边说, 不知道怎么说句子, 回到学校, 上课的时候问老师。

(4) 每个人的vlog, 至少说10句话(不包括[bù bāokuò, 포함되지 않다]你好、再见)。

2. 为什么要拍vlog?

你们已经可以看懂, 听懂很多汉语, 但是说得很少, 句子也很短。但是这个学期(xuéqī, 학기), 我们看了电视剧《以家人之名》, 练习了很多对话, 老师希望(xīwàng)你们可以把这些句子用在生活里。



3. vlog可以拍(pāi, 찍다)什么?

(1) 打招呼[大家好~]

(2) 你是谁? [我是xxx, 来自江原道外国语高中高三x班……]

(3) 为什么拍vlog? [为了练习汉语, 为了让汉语变得更好……]

(4) 早上几点起床? [现在是早上x点, 我刚起床……]

(5) 上午做了什么? [今天上午, 我xxxx……]

(6) 中午吃了什么?

(7) 出去玩了吗? 和谁一起玩儿了? 玩儿了多长时间?

(8) 学习了没? 学了什么科目(kémù, 과목)? 学了多长时间?

(9) 今天的天气怎么样? 晴天、阴天还是下雨? 刮风吗?


(10) 你今天穿了什么衣服、裤子、鞋子呢? 都是什么颜色的?

(11) 每个月回家休息一次, 有什么感受(gǎnshòu, 느낌)?

(12) 今天发生了什么有意思的事情吗?

(13) 今天买了什么, 为什么买?

……… 위 내용은 단지 제안일 뿐이에요.



4. 注意事项 Zhùyì shìxiàng 주의사항

(1) 前面的(1) - (13)都只是老师的建议(jiànyì, 제안), 希望你们的vlog, 能有很多我没提到的内容(méi tí dào de nèiróng, 언급하지 않은 내용), 越多越好。

(2) 我们学了很多汉语语法(yǔfǎ, 문법), 希望你们都用在vlog里, 拍vlog的时候, 要说完整的(wánzhěng de, 완전한)句子。

(3) 可以不露脸(lù liǎn, 얼굴을 보여주지 않다), 露脸不是必须的。

(4) 请把所有片段(piàn duàn, 편집)放在一起, 都放在ipad或者电脑里, 因为上课的时候没有手机。


(5) vlog可以是一天的生活、两天的生活、这个星期的生活……

5. 拍完vlog, 上课的时候, 我们要做什么?

(1) 一起解决(jiějué, 해결하다)问题, 学习vlog中不会说的汉语。

(2) 自己剪vlog(jiǎn, 영상 편집하다), 配音(pèiyīn, 더빙하다), 加汉语字幕(jiā zì mù, 자막을 넣다), 加音乐(BGM)……

(3) vlog完成后, 交给老师, 每节课, 我们会一起看4-5个同学的vlog, 从他们的vlog中学习汉语, 老师也会告诉大家更多和生活有关的汉语。



期待

▣ 학생들에게 전달한 Vlog 과제 안내 자료 ▣

주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와 학생들이 만든 ‘개인 드라마(Vlog)’ 작품을 보았을 때, 나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어떤 학생은 전학 간 친구를 특별히 초대해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담았고, 그 친구가 영상에 등장하자 학급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또 다른 학생은 자신의 쇼핑 일상을 기록하며, 우리가 막 배운 의류 관련 단어를 활용해 새로 산 옷을 소개했다. 또 어떤 학생은 옆반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며, 디저트의 맛과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말이 적고, 중국어 성적이 중간 정도인 학생조차 하루 일과를 꼼꼼히 기록하며, “지금은 오전 9시, 나는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간다”라고 표준 중국어로 표현했다. 각각의 Vlog는 길이가 달랐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바로 모든 학생이 중국어를 사랑하고, 나의 수업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메시지였다.



▣ 학생들이 제출한 중국어 Vlog 과제 영상 ▣

아무리 다양한 수업 방식이라고 해도, 결국 그 본질은 언어 수업이어야 한다. 수업 중 나는 학생들이 제출한 Vlog를 함께 감상하며 ‘피드백’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어떤 문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했는지, 어떤 문장에 작은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는 결코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류를 발견하고, 함께 수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함께 수업을 진행한 동료 선생님이 당시 나에게 물었던 질문이 떠오른다. “드라마를 활용해 중국어를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나는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 “가능하다, 정말 가능하다.” 또 다른 나의 질문, “나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역시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확신은 모두, 동료 선생님의 무조건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진심 어린 호응이 있어서 가능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다.

나의 수업 경험은 다른 CPIK 교사들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독립적인 수업, 교재 없는 수업, 혁신적인 수업 방식—이 모든 경험을 통해 나 자신 또한 크게 성장했다. 수업, 동료 선생님, 나, 학생—이 네 요소가 만나 새로운 화학반응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화학반응의 뿌리는 바로 우리가 함께 사용한 언어, 중국어였다.

한어 교사가 된 이후, 나는 늘 여러 자리에서 중국어의 위대함과 매력을 듣고, 화려한 표현과 웅대한 비전을 칭송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탄은 단순하고도 소박하다. “중국어 덕분에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중국어 덕분에, 수많은 한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작은 마을에 오게 되었고, 중국어 덕분에 학생들은 나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며, 중국어 덕분에 고3 학생들이 바쁜 학업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고, 중국어 덕분에 CPIK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감상하고 공부한 드라마는 《가족의 이름으로(以家人之名)》였다. 강원외고라는 이 큰 가족 안에서, 학생들과 나는 함께 급식도 먹고, 기숙사도 이용하고, 교실에서 함께 공부도 했다. 이 또한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의 이름으로’가 아닐까. 이별을 앞두고, 나는 CPIK 교사로서, ‘1년 한정 가족’으로서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다. “중국어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오늘 드라마 마지막 회를 함께 보며 느꼈던 행복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以家人之名，感谢汉语让你我相遇

李焱南

时光荏苒，转眼间，在韩国担任CPIK原语民辅助教师的一年也接近尾声。回首这一年来的点点滴滴，在这座韩国边境小镇——杨口的工作与生活可能不如行前期待的那样绚丽多彩，但我总会觉得充实、平静而又充满幸福，有着属于它自己的独特风情。

我所任教的学校是江原外国语高中，在还未到达学校时，来自教育院的张老师就对我说：“你在江原外高，这所学校很特殊，学生汉语水平很高。”我当时对这句话还没有很深的感触，也并不知道这个看起来“与世隔绝”的学校，是孕育出数不清的汉语之花的灵土。

这所高中集齐了韩国高中罕见的特殊属性：外语类高中、寄宿学校、专门设置的汉语专业与汉语水平较高的高中学生。因此，即使在来韩国之前，我已经有一年的马来西亚任教经验，并且认为自己不会因为面对学生而感到紧张发怵，这一次面对这么多高水平学生，对于“如何保持他们对汉语的兴趣，成为一个学生喜欢的汉语老师，让学生从我的课堂中真正受益”我仍然思考良久。

这就不得不感谢我经验丰富的搭档老师。在正式开课前，负责高三汉语课程的金老师向我发来信息，并简要说明了学生的情况，然后试探着问我“我想通过中国的电视剧《以家人之名》，来教学生一些日常生活的汉语，你觉得这样可行吗？”我也对此产生了疑问，虽然《以家人之名》是一部在韩国非常流行的中国电视剧，学生的汉语水平也比较高，但电视剧中密集、大量且快速的台词，时不时穿插着一些专有名词，他们真的可以明白吗，我真的可以教会他们吗？

于是我忐忑地回答：“老师，我试试吧！”

离正式上课还有两天，我该如何用电视剧来提高学生的汉语水平，如何融入语法点，如何增强可理解性输入呢？

于是我快速重温了整部电视剧情节，在尽量保证情节连贯的前提下，挑选了一些剧中与日常生活息息相关的、高中生可能感兴趣的话题，作为整个课程的大纲，以下是我一学期的课程安排：

| 看电视剧学中文：《以家人之名》 |

课时	观看片段内容	学习对话内容
1	观看电视剧预告片，了解剧中主要角色及人物关系	
2	角色介绍自己家的布局	介绍自己的家和学校
3	角色间互相帮助	介绍同学，学习成语“见义勇为”
4	角色在冰激凌店过生日	如何用汉语点冰激凌
5	角色在比赛中获奖	如何用汉语表达不同愿望、奖项、排名、快递用语
6	角色在饭馆点菜	如何用更高级的汉语点菜及烹饪方式
7	角色讨论大学专业方向	如何表达自己想去的大学和理想的专业
8	角色参加高考	中韩高考文化对比，高考前可以/不可以做什么
9	角色高考后分道扬镳 (1)	如何用汉语表达不幸的事情：屋漏偏逢连夜雨
10	角色高考后分道扬镳 (2)	如何用汉语表达不幸的事情：大难临头各自飞
11	角色在不同国家过年	中国春节习俗，拜年用语，逐渐流行起来的视频通话
12	角色在咖啡馆点咖啡	如何用汉语点咖啡，中韩咖啡文化对比
13	角色讨论自己的星座	如何用汉语表达自己的星座和属相
14	角色买鞋	如何用汉语买鞋，表达具体的尺码和退换货
15	角色买衣服	如何用汉语表达不同款式的衣服，天气与衣服相匹配
16	角色因为理想与现实吵架	如何用汉语表达自己的情绪
17	角色使用扫码支付点餐	如何用汉语表达各类电子支付，中国移动支付文化
18	大结局	用汉语自由讨论对电视剧的感想
20	布置结课作业：拍摄自己的“电视剧”——汉语Vlog	

一共20节课，这是一学期的课程量。每次课前我都会从电视剧中剪出5-6分钟的片段，供学生观看。然后准备PPT，将完整视频分割成很多小的语料片段，通过“教师提问—学生看/听片段中的人物如何说—将新词或语法点放进常见场景中练习”的方式，让学生学习该片段中的知识点，每节课的新词加语法点约在10-15个，既不会让学生觉得太过简单，也不会加重他们的负担。然后围绕本节课欣赏片段的主题，我会带领学生利用剧中的台词进行形式多样的练习，有让学生角色扮演的对话练习，有设置情景的填词练习，也有充满趣味的互动游戏，让学生不会因为只有单一的练习方式而感到枯燥乏味。

每节课前，作为单独授课的主讲教师，我备课的工作量是巨大的，自己看电视剧梳理剧情、剪出需要的片段、分割片段并准备教学PPT、打出片段台词的汉字和拼音、给生词做注释、创新练习形式、编创练习题目……每一步准备都是从零开始，需要我全力完成。



【第7课《点菜》PPT课件 제7과 〈음식 주문하기〉 PPT 수업 자료】


但值得庆幸的是，我付出的努力有非常显著的回报。每节电视剧课前，学生会早早来到汉语教室，对当天的新剧情满怀期待。剧中角色分隔三地上大学时，学生总是询问“老师，凌霄回国了吗？”“老师，李尖尖还在和哥哥们吵架吗？”每当这时，我总会告诉他们：不要急，慢慢看，认真看，努力看懂，你就知道答案了。”

我也非常欣喜地发现，学生与学生之间，除了会讨论电视剧的剧情，他们也会用更加真实的、落地的汉语在生活中进行对话。每到夏天，我们学校食堂冰柜里会免费为学生提供各式各样的冰激凌，学生们拿了冰激凌后，会兴奋地问彼此“你的冰激凌是什么味道的？”还有学生会向我介绍“老师，我的朋友是‘咖啡中毒者’，他每天都要喝美式咖啡。”“老师，我去年去了上海，我用过支付宝扫码支付！”每每听见这样可爱的话语，我总会觉得更有“教好我这一堂课”的动力与决心。

课程的最后，我们一起观看了电视剧的大结局。《以家人之名》的大结局是温暖的、幸福的、充满喜悦的，每个人都实现了自己的愿望，找到了自己的归宿。我对学生发出了真诚的祝愿：希望你们以后无论在什么地方，都能像今天看到大结局一样开心、幸福、满足。

同时也发出了我对大家学习成果的要求，看了一学期电视剧，我很期待看到你们自己拍的电视剧。时值学生每个月回家休息的假期，我说趁这次回家，你们可以拍属于自己的汉语Vlog，向大家展示你们的周末生活。学生们听到任务时个个摩拳擦掌，跃跃欲试。





1. 需要做什么?

(1) 周末回家、在学校的空闲 (kòngxián) 时间 (여유시간), 用ipad或手机拍视频 (pāi shìpín, 영상 찍다), 记录 (jìlù, 기록) 自己的生活。

(2) 拍vlog的时候, 请说汉语, 用汉语介绍 (jièshào, 소개) 你的生活。

(3) 如果知道汉语怎么说, 请一边拍 (pāi, 찍다), 一边说, 不知道怎么说句子, 回到学校, 上课的时候问老师。

(4) 每个人的vlog, 至少说10句话 (不包括[bù bāokuò, 포함되지 않다]你好、再见)。

2. 为什么要拍vlog?

你们已经可以看懂, 听懂很多汉语, 但是说得很少, 句子也很短。但是这个学期 (xuéqī, 학기), 我们看了电视剧《以家人之名》, 练习了很多对话, 老师希望 (xīwàng) 你们可以把这些句子用在生活里。



3. vlog可以拍 (pāi, 찍다) 什么?

(1) 打招呼[大家好~]

(2) 你是谁? [我是xxx, 来自江原道外国语高中高三x班……]

(3) 为什么拍vlog? [为了练习汉语, 为了让汉语变得更好……]

(4) 早上几点起床? [现在是早上x点, 我刚起床……]

(5) 上午做了什么? [今天上午, 我xxxxx……]

(6) 中午吃了什么?

(7) 出去玩儿了吗? 和谁一起玩儿了? 玩儿了多长时间?

(8) 学习了没? 学了什么科目 (kémù, 과목)? 学了多长时间?

(9) 今天的天气怎么样? 晴天、阴天还是下雨? 刮风吗?


(10) 你今天穿了什么衣服、裤子、鞋子呢? 都是什么颜色的?

(11) 每个月回家休息一次, 有什么感受 (gǎnshòu, 느낌)?

(12) 今天发生了什么有意思的事情吗?

(13) 今天买了什么, 为什么买?

…… 위 내용은 단지 제안일 뿐이에요.



4. 注意事项 Zhùyì shìxiàng 주의사항

(1) 前面的 (1) - (13) 都只是老师的建议 (jiànyì, 제안), 希望你们的vlog, 能有很多我没提到的内容 (méi tí dào de nèiróng, 언급하지 않은 내용), 越多越好。

(2) 我们学了很多汉语语法 (yǔfǎ, 문법), 希望你们都用在vlog里, 拍vlog的时候, 要说完整的 (wánzhěng de, 완전한) 句子。

(3) 可以不露脸 (lù liǎn, 얼굴을 보여주지 않다), 露脸不是必须的。

(4) 请把所有片段 (piàn duàn, 분절) 放在一起, 都放在ipad或者电脑里, 因为上课的时候没有手机。


(5) vlog可以是一天的生活、两天的生活、这个星期的生活……

5. 拍完vlog, 上课的时候, 我们要做什么?

(1) 一起解决 (jiějué, 해결하다) 问题, 学习vlog中不会说的汉语。

(2) 自己写vlog (jiān, 영상 편집하다), 配音 (pèiyīn, 더빙하다), 加汉语字幕 (jiā zì mù, 자막을 넣다), 加音乐 (BGM) ……

(3) vlog完成后, 交给老师, 每节课, 我们会一起看4-5个同学的vlog, 从他们的vlog中学习汉语, 老师也会告诉大家更多和生活有关的汉语。



期待

发送给学生的VLOG任务指导

周末结束回校, 看到大家的“个人电视剧”成果, 我简直又惊又喜。有学生专门找了转学的伙伴一起散步聊天, 当这位转学的同学出现在视频中, 整个班级都发出欣喜的叫声。还有学生记录了自己的购物日常, 用我们刚学的衣物服饰词汇讲解了自己新买的衣服。也有学生和隔壁班同学一起在咖啡厅吃甜点, 详细描述了甜点的味道。即使是平时汉语成绩平平, 上课少言寡语的学生, 都记录了自己从早到晚的日程, 并用标准的汉语表达“现在是早上9:00, 我和朋友去图书馆”……每一条Vlog或长或短, 但不变的是每一位学生热爱汉语、热爱我的课堂的真诚的心。





■ 学生上交的VLOG作业 ■

万变不离其宗，再多彩的教学形式也要回归其语言课的初衷。在课上我给学生播放了大家的Vlog，然后一起“纠错”，看大家哪句话说得非常地道，哪句有点儿小毛病，我们绝不以错误为耻，而是发现错误、共同修改、共同进步。

现在回过头来看搭档老师当时问我的问题，“用电视剧学汉语，你觉得这样可行吗？”这一次我可以肯定地回答：“可行，非常可行。”再回答我自己的问题：“我能教会大家吗，我能做到吗？”我亦可以给出肯定的答案：“我能。”

两个问题的答案之所以如此笃定，是因为这一切都建立在搭档老师对我的无条件支持以及学生对课堂的良好反馈之上，缺一不可。

我的授课经历可能与大部分的CPIK教师大有不同，独立授课、无教材授课、创新的授课形式，我也从中获益良多。课堂、搭档老师、我、学生，四位一体摩擦出了全新的化学反应，而我们化学反应的源头，是我们共同使用的语言——汉语。

自从我成为一名汉语教师，我总在各种场合听到汉语的伟大、汉语的魅力，词藻之华丽，蓝图之壮阔。但此时此刻，我发出的感叹是极为微小的：感谢汉语让我们走到一起。感谢汉语将我带来这个许多韩国人都没听说过的小镇，感谢汉语让学生们拥有向我表达情感的桥梁，感谢以汉语为语言媒介的电视剧让高三的孩子在繁重的学习生活中能够喘一口气，感谢汉语让我们在CPIK项目里彼此相遇。

我们用一学期时间共同欣赏、学习的电视剧名为《以家人之名》，在江原外高这个大家庭里，学生与我同吃食堂、同住宿舍、同学课堂，何不是另一种“以家人之名”？在此离别之际，我以CPIK老师的身份，以“一年限定家人”的身份，衷心希望我的学生们能够用汉语触及外面更广阔的天地，并且永远不忘我们一起观看大结局时幸福满溢的初心。



교류를 통해 더 큰 세상을 만나다

- 한국에서의 교육과 생활을 기록하며 -

강원국제교육원 가지용

비행기가 동해 상공을 날며 한국의 해안선이 점차 또렷하게 시야에 들어올 때, 나는 이번 여정이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양방향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했다. CPIK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나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따뜻함과 활력이 넘치는 이 땅을 밟았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이곳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일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끝없는 지적 호기심을 담은 수많은 시선, 교실 안에 울려 퍼지던 “선생님, 안녕하세요!(老师好!)”라는 중국어 인사, 그리고 문화를 교류하는 순간마다 마음을 데워 주던 그 따뜻한 공감들이 가득 남아있다.

1. 교실에서: 짧은 만남, 그리고 오래도록 남을 기억

나는 강원국제교육원에서 근무했다. 이곳의 수업 방식은 일반적인 장기 수업과는 달랐다. 농축된 언어로 진행되는 문화 체험의 장에 가까웠다. 강원도 곳곳의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며칠 동안 이곳에 모여 함께 배우고, 체험하고, 소통한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2~3일 정도만 함께 지냈으며, 어떤 날은 아침에 처음 만나 오후에 이별하기도 했다. 이렇게 1년 동안 나는 약 천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만남이 짧다고 해서 관계가 얇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인연이 내 마음에 깊은 추억을 남겼다.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나를 만나면 중국어로 인사를 주고 받기도 했다. 어떤 학생들은 틱톡의 중국어 유행어를 장난스럽게 흉내 내며 나를 “형님(大哥!)”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모습에 나도 웃음을 참지 못하곤 했다. 우리는 함께 언어를 배웠고, 다양한 문화 체험에도 참여했다. 세계시민교육 수업에서는 중국의 명절과 가족 문화를 이야기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사회적인 역할과 존중에 대해 논의했다. 외국어 캠프에서는 탕위안과 녹두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고, 드림 여름캠프에서는 중국 학교 문화를 체험했다. 성인 문화 수업에서는 한자의 기원을 배우면서 문화적 이해를 넓혔으며, 중국어 여름캠프에서는 버블티를 마시고 얼음 젤리를 만들며 중국의 달콤한 음식을 공유했다.

학생들은 내게 중국 문화를 배웠고, 또 한국어로 새로운 표현을 내게 알려 주면서 한국 사회와 학교생

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러한 ‘양방향 학습’ 덕분에 교실은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리가 되었다. 짧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시간 속에서 학생들의 미소과 눈물이 공존했으며, 그들은 종종 내게 “선생님, 내년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곤 했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아이들은 오히려 나에게 성장의 양분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교사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문화의 온기를 나누는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 이러한 양방향 학습은 나의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다.

2. 교실 밖에서: 삶이 곧 문화이며, 교류가 곧 이해다

학교 밖에서의 한국 생활은 또 하나의 생생한 풍경이었다. 내가 살던 양양은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고요한 도시였다. 교육원에서 걸어서 5분이면 잔잔한 햇빛이 반짝이는 바닷가에 닿을 수 있었다. 봄이면 읍내로 벚꽃 축제를 보러 간다. 교육원 옆의 유채꽃밭이 있는데 금빛 물결처럼 눈부셨다. 여름에는 파랑게 물든 바닷가에서 마음껏 수영하고, 밤에는 함께 야영도 했다. 시간이 날 때면 설악산에 올라 구름을 감상하고 낙산사를 찾아 경치를 즐겼다. 겨울이 되면 양양 바닷가에 내린 눈으로 펼쳐진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웠다. 사계절은 마치 느릿하게 흘러가는 한 편의 시 같았고, 내가 낯설던데로부터 익숙함으로 바뀌고 배우는 단계에서 스며드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늘 함께 해주었다.

여가 시간에는 두세 명의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에서 한국 신석기 문명을 탐험하고,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진 속초 X아트뮤지엄에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강릉에서는 단오제의 전통적 매력을 체험했고, 춘천에서는 남이섬의 단풍을 감상했다. 한류와 고풍스러움이 공존하는 특별한 서울을 맛보고,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경계선을 부산 해안열차에서 경험했다. 이 모든 여행은 한국 문화와의 대화였다.

우리는 언어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이해했다.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시간 속에서 ‘긴 여정을 함께 걷는 경험’은 우리를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만들었고, 세상을 더 넓게 보도록 해주었다.

여러 지역에서 온 CPIK 봉사자 친구들도 만났다. 우리는 이 땅의 서로 다른 곳에 흩어져 있었지만, 같은 꿈을 품고 있었다. 우리는 중·한 교육 협력이 활발히 발전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고, 많은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 수업을 통해 중국에 다가가고, 중국을 이해하는 과정을 함께 바라보았다.

3. 교류를 통한 성장, 이해를 통한 만남

1년 간의 교육 활동은 나에게 교육의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나는 종종 학생들에게 말했다. “기회가 되면 꼭 중국에 가보세요.” 그리고 학생들도 내게 말했다. “선생님, 다음에



우리가 교육원에 올 때도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언어 학습의 끝은 유창한 표현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CPIK 프로그램은 나에게 소중한 플랫폼이었다. 강의 실력을 늘리고 수업하는 과정에서 성장했을뿐 아니라, 교육의 측면에서 중·한 교류의 참된 가치를 몸소 느끼게 해주었다. 중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많은 학교에서 중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문화축제, 언어 체험 캠프,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교육 분야의 교류 활동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을 통해 이해를 돕고, 교류를 통해 우정을 쌓는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들이다.

4. 맺음말: 아름다움을 함께하고, 세상이 하나로 어우러지길

나의 봉사 생활은 곧 끝나가지만, 이 경험은 마치 등불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게 밝혀줄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한국에 머물며, 교육이라는 길 위에서 이해와 우정의 씨앗을 계속 심어갈 것이다.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지면, 세상은 큰 조화를 이룬다(美美与共, 天下大同).”는 옛말처럼 말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교류 속에서 서로를 아끼게 되고, 우정을 잇는 다리가 되며, 세상이 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CPIK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스치는 이 땅에서 나는 깊이 느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서로를 대하고, 우리의 문화가 가교 역할을 할 때, 세상은 훨씬 더 가까워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在交流中遇见更大的世界》

——记我在韩国的教育与生活之旅

贾志龙

当飞机掠过东海上空，韩国的海岸线逐渐清晰地映入眼帘时，我第一次真切地意识到：这趟旅程，不仅仅是一次地理意义上的跨越，更是一次文化与心灵的双向奔赴。

作为一名CPIK原语民辅助教师，我带着对教育的热忱与对未知的好奇，踏上了这片充满温情与活力的土地。来到韩国之前，我对这里的了解并不多，而如今，当我回望这一年的经历，脑海中浮现的，是无数双充满求知欲的眼睛，是课堂上此起彼伏的“老师好”，也是文化交融时那份令人心生温暖的共鸣。

一、课堂之中：短暂的相遇，长久的记忆

我任职于江原国际教育院，这里的教学形式与众不同——它并非长期课程，而更像一场场浓缩的语言与文化盛宴。在这里每天会有来自江原道不同学校的学生在此短暂相聚，我们共同学习、体验、交流。多数时候，我们的相遇仅有两三天，甚至早上刚刚认识，下午便要挥手告别。在近乎一年的时间里，我以这样的形式认识了一千名左右的学生。包括小学生、初中生、高中生和成人。然而，短暂并不意味着浅薄，相反，每一次邂逅都会在脑海中留下些许印象。

课堂上，学生们热情洋溢，纷纷用中文与我打招呼，分享他们在课堂内外学到的新词句，有时甚至模仿抖音上的中文流行语，一群学生冲着我喊大哥，逗得我忍俊不禁。我们一起学习语言知识，也共同参与丰富的文化体验课程：在世界公民教育课上探讨中国的传统节日与家庭文化，以性别平等的视角讨论社会角色与尊重；在外语训练营里亲手制作汤圆与绿豆糕；在梦想夏令营里体验中国校园文化，在成人文化课上了解汉字起源，增进文化理解，在中文夏令营中摇动珍珠奶茶、搅拌冰粉，共享味蕾上的甜蜜。

学生们在体验中国文化的同时，也用韩语教我新的表达，向我介绍他们眼中的韩国社会与校园生活。这样的双向学习，使我们的课堂不仅是知识的空间，更是理解与尊重的桥梁。在一次次相逢与告别中，交织着学生们的笑声与泪水，他们常对我说，“明年，我还要来”。

扎根这片土地，他们是我的养分。在这些活动中，我不仅是一名教师，更像是一位文化使者——传递语言的美，分享文化的温度。这种教育交流的双向互动，让我的这趟旅程更加丰富多彩。

二、课堂之外：生活即文化，交流即理解

离开讲台，韩国的生活为我展开了另一幅生动的画卷。

我所居住的襄阳，是一个被海风轻抚的宁静小城。从教育院步行五分钟，便能抵达波光粼粼的海边。春天，我们会去镇上看樱花节，教育院旁的油菜花田也如金色的海洋格外耀眼；夏日里，我们在湛蓝的海水中畅游，夜晚一起野营；空闲时相约登雪岳山观云海、访洛山寺赏美景，而关于冬天，襄阳海边的雪景更是美不胜收。在这里的四季更替，宛如时间缓缓流淌的诗篇，也见证了我从陌生到熟悉、从学习到融入的心路历程。

闲暇之余，三两好友相约旅行，在鳌山里史前博物馆探索韩国的新石器文明，在束草的X艺术博物馆感受科技艺术的震撼，在江陵体验端午祭的传统魅力，去春川欣赏南怡岛的枫叶，在首尔感受韩流与古韵的奇妙氛围，在釜山的沿海列车上穿越蓝天与大海的交界线。每一次出行，都是一次文化的对话。我们用语言沟通，用心去理解。在互动中，行万里路——它让彼此不再陌生，让世界变得更加柔和而宽广。

与此同时，我也结识了来自不同地区的CPIK志愿者朋友。我们散落在这片土地的不同角落，却怀着相同的教育理想。我们共同见证着中韩教育合作的蓬勃发展，也见证着更多韩国学生通过中文课程走近中国、了解中国。

三、在交流中成长，在理解中相遇

这一年的教学生活，让我明白了教育的真正意义——那不仅是知识的传递，更是文化的共鸣与情感的连接。

我常常对学生们说：“有机会，一定要亲自去中国看看。”

而他们也告诉我：“老师，我们也希望下次来教育院，你还在这里。”

在这样的互动中，我发现语言学习的终点并非流利的表达，而是彼此理解的开始。

CPIK项目为我提供了一个极为宝贵的平台——它不仅让我在教学中成长，也让我亲身感受到中韩教育交流的意义所在。越来越多的韩国学生对中国文化产生兴趣，更多学校开设了中文课程，教育交流活动如文化节、语言体验营、青少年交流项目日益丰富。这些都是“以教育促理解、以交流促友谊”的生动实践。



四、结语：美美与共，天下大同

如今，我的志愿者生活即将告一段落，但这段经历却像一盏灯，照亮我未来前行的路。我将继续留在韩国，继续在教育的道路上播撒理解与友谊的种子。

正所谓“美美与共，天下大同。”

我想，这正是CPIK项目最动人的意义——它让不同文化在交流中相知相惜，让语言成为友谊的桥梁，让教育成为世界共融的希望。在这片海风轻拂的土地上，我深深感受到：当我们以心相待、以文化为桥，世界就会更近一些，也更美一些。

而我的CPIK故事，仍在继续！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산과 바다가 서로 어우러져, 두 나라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치악고등학교 두영영

저는 한국에 온 후 강원도 원주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이나 부산처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한 것이 고향과도 같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저는 원주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강원도, 더 나아가 한국의 산과 바다 풍경에 매료되었습니다.

1. 눈보라 속 첫걸음

이 곳에 처음 왔을 때, 중국 남부지역 사람인 저는 강원도의 추위가 낯설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생활이 불편했고, 외로움을 자주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cpik 선생님들은 한국 전국 각지의 초·중 학교에서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평소에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원주는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를 타고 여러 도시를 오갈 수 있었고, 덕분에 다른 cpik 선생님들과의 우정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월에 친구를 만나러 평창에 가려 했는데, 목적지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잘 못 내리게 되었습니다. 밤은 이미 어두워졌고 정류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당

황한 기색으로 번역기를 사용해 기사님께 길을 물었고, 기사님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며 버스를 갈아타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는 막차 버스표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따뜻한 분들을 만났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밤 9시에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음식이 다 식어있었지만 마음만은 참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친구가 만들어 준 만두를 가져왔는데, 고향의 그리움을 담은 음식이라 제게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2. 성장: 새벽으로 나아가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학교 길가에는 벚꽃이 피었고, 저도 혼자 사는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통해 일상 표현을 많이 배웠고, 한국 동료들과의 대화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따뜻하며, 언제나 도움을 주었으며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중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 사람들이 바라보는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제는 주변 거리에 익숙해졌고 홈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한국 앱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집에서도 편리하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재미있는 문화 수업을 진행하며, 한중 문화 비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단오절 논쟁’은 한중 양국에서 한때 화제가 되었던 주제였고, 저도 호기심이 생겨 강릉 단오제에 다녀왔습니다. 관노가면극을 보고 막걸리를 마시는 등 현지의 명절 풍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돌아와서는 학생들에게 ‘중국과 한국 단오절의 차이’를 소개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차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고, 다양한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같은 전통 음식을 맛보고, 커피 축제나 국수 축제 같은 지역 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또, 등산은 물론 서핑이나 스키 같은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했습니다. 강원도는 산과 바다가 많은 지역이라 이런 취미를 즐기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했습니다. 흥천의 남산과 원주의 치악산을 올랐습니다. 다음에는 속초와 양양에서 파도를 타고, 평창의 눈 덮인 산에서 스키도 탈 계획입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주를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굳센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주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친구, 동료, 학생들 덕분에 이 도시는 따뜻한 정으로 가득합니다. 한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편히 머물 수 있는 또 하나의 고향입니다. 중국과 한국이 함께 평안한 세월을 누리고, 화평한 봄바람을 함께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海相亲同日月，春风两国共长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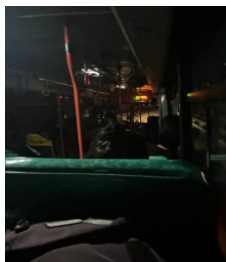
杜滢莹

我来到韩国后，定居于江原道原州市。这里虽不如首尔、釜山般闻名，但此心安处是吾乡，经过近一年的时光，我已经深深爱上了原州，也贪恋江原道乃至于韩国的山海风光。

一、挫败：风雪初渡

初来乍到，身为南方人的我对江原道的严寒感到陌生。因为语言不通，生活多有不便，这也让我倍感孤独。多数cpik老师在各地中小学任教，一人驻一校，平日难得相见。

幸运的是，原州交通便利，一辆大巴便可连结多个城市，也连接了我与其他cpik老师的友谊。4月，我去平昌看望朋友，却下错了车站，距离目的地仍有十万八千里。夜色沉沉，站台寂寥，我慌乱地用翻译软件与司机沟通，他耐心地指路，帮助我换乘公交。又遇一位好心的爷爷，帮我买到最后一班车票。那一刻，我庆幸自己在异国他乡遇见如此善良的人。辗转抵达朋友家时已经是晚上九点了，虽然一桌饭菜已经凉了，却仍让我倍感温暖。归途上，我带回了朋友做的象征乡愁的皮薄馅大的中国包子，也带回了内心的踏实与感激。



二、成长：行至天光

经历漫长冬雪后，春意悄然来临，校园路旁樱花盛开，我也逐渐适应在韩国的独居生活。通过线上韩语课，我掌握了更多日常表达，与韩国同事交流愈发顺畅。他们亲切友好，常给予我力

所能及的帮助，也对中国充满了好奇。语言不再是隔阂，我学习韩语的动力，也是想更好地传播中国语言文化，提升韩国人眼中的中国形象。我熟悉了周边街区，学会使用Homeplus、Coupang、外卖民族等韩国本土App，可以足不出户，享受便捷的送货上门服务。

在教学中，我们开展趣味文化课，加入中韩文化对比，让学生印象更深。“端午之争”曾是中韩两国民众的热议话题，出于好奇，我前往江陵端午祭，体验当地的节日风俗，如观看官奴假面剧表演、喝米酒等，回来后跟学生分享了“中韩端午之异同”，不论孰是孰非，引导他们独立思考。

随着时间推移，我逐渐融入韩国社会，享受多样生活。品尝辣炒年糕、紫菜包饭等传统小吃，参加咖啡节、面条节等地方特色节日，也会大胆地尝试新的爱好，如爬山，甚至于冲浪、滑雪。江原道地域辽阔，多山多海，正适合发展这些爱好。

登山成为我与朋友的周末乐趣，我们征服了洪川的南山、原州的雉岳山。未来，还计划在束草、襄阳乘风破浪，于平昌雪山滑行，这都将是新奇有趣的人生体验。

我爱原州，因为我以坚韧的生命力生活在此；我也爱原州的人们——朋友、同事、学生，他们让这座城市充满温情。韩国在我心中不再是遥远的国度，而是一方可安之所。我也真心祝愿中韩两国，同享安宁日月，共沐太平春风。





‘한(韓)’껏 즐기는 강원도 문화 체험 여행

홍천여자고등학교 주의영

중국 남부에서 자란 내가 2월 초, 곧 한국 북동부 강원도로 발령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우울감이 마음을 감쌌다. 이전에는 스스로를 ‘한국 문화 전문가’라 자부했지만, 강원도라는 곳은 내게 그저 끝없는 겨울과 흩날리는 흰 눈만을 떠올리게 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나는 한숨을 쉬며 쇼핑 앱 검색창을 열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두꺼운 롱패딩, 기모 장갑...’ 그렇게 2월의 마지막 며칠, 우리는 설렘과 함께 강원도 생활을 시작했다.

1. 산 높고 길 멀어도, 모두 발 아래에

춘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절차를 마친 뒤, 홍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협력교사 홍 선생님이 산을 무척 좋아하신다며, 학교의 몇몇 선생님으로 구성된 등산 팀에 나를 초대했다. 주말마다 심심하게 보내던 터라,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첫 등산을 앞둔 주, 동료 선생님이 내게 등산 장비를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운동복과 운동화면 충분하죠, 이미 준비했어요”라고 답했다.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산길 사진을 보여주셨다. 그제야 깨달았다.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이고, 강원도의 대부분은 산지다. 중국의 산처럼 개발되지 않아, 쉽게 말해 ‘산이 매우 야생적’이었다. 나는 급히 기본 등산화, 장갑, 배낭 등을 구입했다.

첫 등산 장소는 홍천에 위치한 공작산으로, 해발 600m가 조금 넘는다. 함께 간 선생님들에 따르면 초보자가 연습하기에 적당한 비교적 쉬운 산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모두의 걸음이 남달랐고, 나는 뒤처지기 싫어 대열을 따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에 걸린 듯 하품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어지럼증까지 느꼈다. 나는 잠시 쉬겠다고 하자, 선생님들이 다가와 걱정하며 운동량이 많아 뇌에 산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해주셨다.

그 후 두세 시간 동안, 나는 산을 오르내리며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머릿속에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 덕분에 결국 정상에 올랐다. 멀리 돌아온 길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느낀 성취감은 모든 고생을 씻어주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 등산 팀은 가평의 운악산, 원주의 치악산, 제주의 한라산 등도 함께 정복했다. 어느새 한국의 최고봉도 내 발 아래 놓였고, 나는 등산에 대한 애정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친구들은 종종 나를 ‘진정한 등산 마니아’라고 장난스럽게 부르곤 한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
잘 보인다

2.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 바람을 타고 파도를 가르다

강원도의 영동 지역에는 속초, 강릉, 양양 등 유명한 해안 도시가 많다. 나는 우연히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양양이 서핑으로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7월 하순, 나는 몇몇 선생님과 함께 양양에 위치한 강원도 국제교육원으로 중국어 여름캠프 활동을 하러 갈 예정이었다. 양양! 이걸 서핑을 경험하기에 딱 좋은 기회가 아닌가? 나는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했고, 1박 2일의 입문 서핑 캠프에 등록했다.

양양 시내에는 크지도 변화하지도 않았지만, 서핑 해변으로 향하는 버스는 많았다. 길을 걷는 동안 한쪽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다른 한쪽에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마음이 단번에 ‘휴가 모드’로 전환되었다. 나는 짐을 끌고 서핑 샵으로 들어갔다. 피부가 그을리고,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은 아저씨가 맞이했다. 아마 이분이 강사일 것이다. 예약 정보를 확인한 후, 그는 내게 서핑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같은 시간대에 예약한 사람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한국 여학생 한 명과 영어만 가능한 인도네시아 남학생 한 명이 있었고, 나를 포함해 우리 반은 상당히 국제적이었다. 강사는 우리 일행을 데리고 해변으로 나갔다. 거대한 차양막 아래에는 서핑보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모두 자기 서핑 파트너를 꼼꼼히 고르기 시작했다. 이어서 육상 동작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국제반’을 상대하는 강사는 다소 당황한 모습이었다. 동작을 설명할 때 한국어 사이사이에 간단한 영어를 섞었고, 강사도 이런 상황은 처음인 듯했다. 우리 수강생들은 중국어, 영어, 한국어가 섞인 어설픈 대화 속에서도 풍부한 몸짓으로 서로의 의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자, 서핑복이 몸을 꽉 감싸줘 차갑다는 느낌은 없었다. 이날 파도는 높지 않았고, 강사의 지도를 따라 여러 번 시도하고 바닷물을 몇 번 마신 뒤, 마침내 보드 위에 서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서핑 경험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소통한 시간과, 혼자 보드 위에 누워 파도를 따라 떠다니는 시간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여름 추억으로 남았다.



양양 서핑 첫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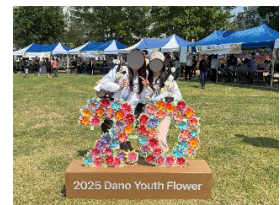
3. 문화 축제, 다채로운 즐거움

축제는 한 나라나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응축된 결과물로, 풍부한 문화적 의미와 전통 관습 등을 담고 있다. 2005년,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작으로 등재되었다. 올해는 강릉 단오제가 등재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어 교사로서 나는 중국의 단오절과 강릉 단오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수업에서 문화 비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강릉으로 향했다.

‘강릉 단오제’의 행사 부스는 남대천 양쪽을 따라 펼쳐져 있었고, 현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친구와 나는 인파에 휩쓸려 앞으로 나아갔다. 길을 따라 다양한 체험과 활동이 눈앞에 펼쳐졌다. 창포물로 머리를 감는 체험, 한국 막걸리와 떡 시식, 셀 수 없을 정도의 문화·오락 프로그램들—그네대회, 씨름대회, 무악 공연, 관노가면극 등……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관노가면극이었다. 대사가 거의 없고,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몸짓만으로 이야기를 표현했다. 외국인인 나도 쉽게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막이 오르자, 화려한 의상을 입은 등장 인물이 나타나 우스꽝스러운 춤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며 현장의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남녀 주인공이 차례로 등장하여 서로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감정의 싹이 피어나지만, 곧 외형이 사나워 보이는 악역 두 명이 등장하며 갈등이 폭발한다. 여주인공은 모욕을 견디지 못해 죽은 척 항의하고, 마지막에는 갈등이 해소되며 여주인공이 ‘부활’하고 남녀 주인공이 다시 화합한다. 이 작품은 대중이 즐기는 오락적 형식을 통해 지역민들의 평화와 조화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었고, 나와 친구는 눈을 뗄 수 없이 몰입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교로 돌아온 후, 중국의 전통 명절인 단오절 수업에서 나는 한국의 ‘강릉 단오제’와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반 학생 중 강릉 단오제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이는 중국의 현실과 비슷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전통 문화에 큰 관심이 없지만, 중국을 찾는 유학생들은 오히려 전통 문화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 한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나는 모국어 교사로서 한 교단에서 중화 문화를 전파하는 데 힘쓰고 싶다는 마음을 다시금 다졌다.



강릉 단오제 20주년

4. 강원도와의 작별, 다시 시작하는 새 여정

어느덧 강원도에서 거주한 지 여덟 달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강원도의 원어민 선생님들과 깊은 우정을 쌓았고, 주말마다 강원도의 산과 바다를 감상하고, 강원도의 특산 음식을 맛보고, 강원도의 풍토와 사람들을 체험하며 시간을 보냈다. 다른 지역 선생님들과 강원도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늘 자부심으

로 가득 차곤 했다. 강원도만큼 아름다운 풍경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동시에 가진 곳이 또 있을까?

홍천여고에서의 두 학기 근무를 통해, 나는 한국 학생들의 존경심과 선생님을 향한 예의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착함과 귀여움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홍 선생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녀의 세심함과 안정감은 늘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그녀의 수업 과정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만난 몇몇 젊은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는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의 진솔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고, 그들은 내 문화 충격을 극복하는 최고의 약이 되어주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 창밖을 바라보니 오늘도 맑은 날, 산에는 금빛이 스며들었다. 아, 어느새 11월이 조용히 찾아왔구나. 첫 눈은 과연 멀지 않았을까? 나는 기다린다, 기다린다. 산이 하얀 눈으로 덮이는 그때가 바로 강원도에서 스키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 될 것이다.



“韩”畅淋漓的江原道文化体验之旅

周依莹

当生长在南方的我，在二月初得知即将被派往韩国东北部的江原道的时候，一层深深的忧愁笼罩在心间。尽管在之前，我自诩是个“韩国文化通”，但江原道这个地方，只能让我联想到漫长的冬天和飘扬的白雪。没有时间喘息，我只是叹了一口气，打开购物软件的搜索框——写下：加厚长款羽绒服、加绒手套……就这样，在二月的最后几天，我和小伙伴们带着未知的悸动开启了江原道的生活。

一、山高路远，皆在脚下

从春川出入境管理局申办完手续后，在开往洪川的车上，我的搭档洪老师提到她十分喜爱登山，邀请我加入由学校里几位老师组成的登山小队。我正愁周末无所事事，便爽快应承下来。

就在第一次爬山的前一周，搭档老师问我准备好登山装备了吗？我说道，不就是运动服和运动鞋吗，早就准备好了。搭档老师摇了摇头，给我看了一些山路的图片。我才意识到，事情没有这么简单——韩国是个多山之国，山地面积占据江原道的大半，这里的山不如中国的山开发程度高，简单来说就是山很野。我这才慌忙购置了基础的登山鞋、手套、背包等物品。

第一次爬山的地点是位于洪川的孔雀山，海拔六百多米，据同行的老师们说是比较简单的山，适合我这个新手练练手。刚开始，大家的步速就不同一般，我不甘落后，一直紧跟大部队。没多久，我像是被施了法一般地开始连打哈欠，渐渐地还感到头晕，我申请休息一下，老师们纷纷围过来关心我的情况，和我解释这是因运动量大而出现脑部缺氧的表现，不必担心。在之后的两个小时里，我的腿因“飞檐走壁”而酸痛无比，我的脑子一遍遍地想着放弃，最后凭借着“不能丢脸”的顽强意志登顶。望着远处来时走过的路，一切都尽收眼底，这一刻的成就感洗刷了所有的艰辛。

在这之后的几个月间，我们登山小队还一同征服了加平的云岳山、原州的雉岳山、济州的汉拿山等等。不知不觉间，韩国的最高峰也已是走过的路，我对登山这项运动的喜爱早已不可同日而语，



汉拿山山顶的白鹿潭清晰可见

我的朋友也常常戏称我是不折不扣的“登山佬”。

二、碧海蓝天，乘风破浪

江原道的岭东地区有许多著名的海滨城市，例如束草、江陵、襄阳等等。我偶然间在韩国综艺里得知，近年来襄阳以冲浪运动而深受年轻人的青睐，这在我的心里埋下一颗种子。

七月下旬，我和几位老师即将去往位于襄阳的江原道国际教育学院开展汉语夏令营活动。襄阳！这不正是顺便去体验冲浪的好时机吗？我说干就干，立马报名了两天一夜的入门冲浪训练营。

襄阳的市内不大也并不繁华，但通往冲浪海滩的公交车却不少。走在路上，一侧是碧海白沙，一侧是各色餐吧，心情一键切换“度假模式”。我拖着行李走进冲浪店里，一位皮肤黝黑、穿着背心和短裤的大哥迎了过来，看来他就是教练了吧。核对了我的预约信息之后，他让我去换上冲浪服。

预约同一时段的还有一位会说一点儿汉语的韩国女生和一位只会英语的印度裔男生，包括我这个中国人在内，我们这个班可以说是相当国际化了。教练带着我们一行人来到沙滩上，巨大的遮阳篷下整齐地摆着几排冲浪板，每个人都精心挑选了自己的冲浪伴侣。接下来就是岸上动作教学，教练面对我们这个“国际班”显得束手无措，解释动作要领的时候，韩语间夹杂着几句简单的英文，看来教练也是第一次遇上这样的情况。我们学员之间用中英韩三语磕磕巴巴地交流着，却凭借着丰富的肢体表达能力成功理解了对方的意思。

正式下水后，冲浪服紧紧包裹着身体，并不感到冰凉。这天浪不大，按照教练教的要领，试了几番、喝了几口海水之后，便也成功在板上站起来了。在这次冲浪体验中，和不同文化的人们一起交流的时光、独自趴在板上享受随浪漂浮的时光，一起构成了最美的夏日回忆。



襄阳冲浪初体验

三、文化庆典，精彩纷呈

节日是一个国家或民族历史文化长期沉淀凝聚的产物，承载着丰富的文化内涵、传统习俗等等。2005年，“江陵端午祭”被联合国教科文组织列入人类非物质文化遗产代表作名录。今年正值江陵端午祭列入名录20周年之际，作为一名汉语老师，我认为有必要了解中国端午节和江陵端午祭的异同之处，在节日教学中进行文化对比，于是我踏上了前往江陵的旅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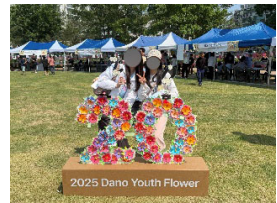
“江陵端午祭”的活动摊位沿着南大川的两岸铺陈开来，现场人头攒动、摩肩接踵。我和朋友被



人群推着往前走，一路上各种活动眼花缭乱：体验菖蒲水洗发，品尝韩国米酒和米糕，文娱活动更是数不胜数，有秋千大会、摔跤大会、巫乐、官奴假面剧等等。

最令人印象深刻的当属官奴假面剧了，基本没有台词，演员戴上面具、依靠肢体动作来表现，即使是外国人也能轻易地理解剧情。刚开场一位身穿夸张服饰的角色登场，一段滑稽的舞蹈引得观众忍俊不禁，将现场气氛活跃起来；接着男主角和女主角依次入场，你追我赶，二人间的情感关系生出萌芽；但好景不长，两位外观凶恶、手持武器的反派登场，冲突爆发，女主因不堪遭受侮辱，假死抗议；最后，冲突解开，女主“复活”，男女主重归于好。整剧用大众喜闻乐见的娱乐形式表达了当地人们对安宁与和谐的追求，我和朋友看得津津有味，久久不能忘怀。

回到学校后，有一课的内容是中国的传统节日端午节，我对比了韩国的“江陵端午祭”，但意外地发现，在几个班中去过端午祭的只有我这名外国人。这和中国的现状很像，大部分年轻人对传统文化的兴趣不足，反而是来中国的留学生们更热衷于了解中国传统文化。令人惋惜的同时，也期望着自己作为原语民老师能够在一方讲台上为传扬中华文化做出努力。



江陵端午祭20周年

四、江原依依，再启新程

不知不觉间，作为江原道居民已有八月之久，在这段时间里，我和江原道的原语民老师们结下了深厚的友谊，我们会在周末欣赏江原的山海美景、品尝江原的风味佳肴、体验江原的风土人情。每当和其他道的老师说起江原道，我总是充满骄傲之情，哪还有像江原道如此兼具风景独特和毗邻京畿的地方呢？

在洪川女高工作的两个学期，让我体会到了韩国学生的尊师重道，学生们的善良与可爱都会深深烙印在我心里。和洪老师一起共事，她的细心和稳重总是让人心安，我总是能从她的教学过程中收获良多。还不能忘记学校里几位年轻老师们，在和她们的交谈间，我能了解到如今韩国年轻人的真实想法，她们是我克服文化休克的最好的解药。

写到这里，依依不舍之情油然而生。望向窗外，又是晴朗的一天，山上染上了一抹金黄。啊！十一月悄然已至，第一场初雪还会远吗？我盼望着，盼望着，等候那山间布满白雪，那时便是在江原道滑雪的最佳季节了。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산과 바다를 넘어 이루어낸 가르침과 배움의 동행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진추이

나는 운이 참 좋은 것 같다. 중국어 교육이라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 먼 길을 돌아오긴 했어도 결국 교육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길이 내게 특별한 행복을 느끼게 했다는 점이 그 이유가 되겠다. 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중국어교육을 하다 보면,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며칠 간격으로 새로운 일들을 겪게 된다. 매일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나가면 늘 새로운 과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한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수업은 학생들에게 고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늘 영어를 배울 때의 내 고통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가르침은 그저 일부일 뿐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중국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공유하는 일이다. 어쩌면 우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구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대표하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안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중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중국어 교육자만이 지닌 특별한 정서다. 사람은 장난칠 때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만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했고, 운이 좋게도 그 일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글을 쓰려 하니, 자꾸만 1년 전 기숙사 책상 앞에서 졸업 논문을 다듬던 밤이 생각난다. 시간은 참 빨리 흘렀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한국 김해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8개월 전, 나는 중국어교육에 대한 애정과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안고 산과 바다를 건너 한국에 왔다. 이제는 한국의 민족 문화를 가볍게 접하기보다 11개월 동안 겸손과 배움의 태도로 직접 깊이 배워 가야하는 것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끄적이고 있는 이 글 역시 마무리 작업의 한 부분이다. 나는 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 화려하게? 감성적으로? 그 어느 것도 지금의 내 마음과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담담한 문체로, 이번 여정에서 내가 경험한 문화, 성장, 그리고 연결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기로 했다.

내가 배정된 곳인 김해시는 고대 가야 중 수로국의 수도였던 곳으로, 깊은 역사·문화의 향기가 깃든 도시다. 김해는 서쪽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도시인 부산과 인접해 있으며, 경전철을 타면 1시간 만에 바로 도착할 수 있고, 김해공항으로의 이동도 매우 편리해 생활과 이동 모두 수월했다. 근무 학교

는 메인 학교와 제2 근무 학교, 총 두 곳씩 배정되었고, 두 곳 모두 도보로 통근이 가능했으며 5분을 넘지 않아 일상의 행복감이 크게 높아졌다. 나는 두 명의 파트너 교사와 함께 일했는데, 메인 학교와 제2 근무 학교에 각각 한 명씩 있었다. 수업 방식은 ‘협력수업’으로, 파트너 교사와 협력해 수업을 진행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파트너 교사가 주 강의를 하고, 나는 보조로 참여했으며, 신규 학습 내용은 파트너 교사의 수업을 보조하고, 문화 수업은 내가 주로 맡았다. 이런 방식의 수업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초반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은 개인의 마음가짐, 소통 능력, 적응력이 모두 중요했다. 수업 구성뿐 아니라 파트너와의 역할 분담, 각 수업의 단계별 연결성, 수업 효과 등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했고,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율하고 조정해야 했다. 파트너마다 수업 스타일도, 수업 내용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빠르게 익숙해지는 것도 필요했다. 파트너 선생님들은 모두 언어교육 경력이 매우 풍부한 교사들이었고, 언어 교육은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이론을 자연스럽게 수업에 녹여냈다. 수업 속 작은 디테일까지도 완벽했고, 이는 우리가 참고하고 배워서 수업에 적용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나의 주당 수업 시수는 19시간이었다. 메인 학교는 여자고등학교로 5개 반을 담당했으며 10시간의 정규 수업과 1시간의 언어 교류 수업이 있었다. 제2 근무 학교는 남자고등학교로 4개 반을 담당했고 8시간의 수업을 진행했다. 두 학교는 수업 분위기도, 학생들의 성격도 매우 달랐다. 학생들은 사춘기였고 개성이 가장 뚜렷한 시기였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성격 차이가 크게 다를 때였다. 수업 외 학생들과의 교류부터 수업 시 소통 방식까지 모든 부분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했고, 그 조정은 항상 즉각적이어야 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았다. 학생들이 모두 다정하고 따뜻했기 때문이다. 여자아이들은 세심하게 인사해 주고 나를 챙겨 주었으며, 몰래 건네준 쪽지에는 정성스럽게 “선생님, 한국에서의 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꼭 저희 불러요!” 라고 적혀 있었다. 책상 위에 몰래 올려둔 작은 간식들도 있었다. 남학생들은 장난스럽고 유쾌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학생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 나는 매일 학생들의 청춘을 곁에서 지켜보며, 가끔은 그 활기 넘치고 아직 미숙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잠깐이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감사했고, 큰 행복으로 다가왔다.

사람은 혼자서 모든 것을 마주할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고 한다. 이국의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마음가짐과 실행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나는 성장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과 중국의 기본 생활 환경 차이는 크지 않고, 문화 차이 역시 특별히 다른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다. 음식도 잘 맞는 편이라 한국에 온 뒤 살이 찌기도 했고, 택배나 배송 시스템도 매우 편리해 전반적으로 나는 일상생활에 잘 적응했다. 출퇴근 시간이 짧아 매일 운동량이 부족했는데, 나는 K-POP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댄스 학원에 등록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들과 어울리며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다. 함께 지내는 동안 그들은 나를 다정하게 챙겨 주었고, 사소한 부분들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었다.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우리 사이의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들은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나에게 위로와 힘을 되었다. 휴일이면 CPIK 선생님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서울, 여수, 제주도... 한국 각 지역의 풍습과 분위기를 느끼면서 만난 사람들 역시 모두 친절했고, 이 시간들은 앞으로 그리워질 것 같다.

수업 강의 면에서도 많이 배움우고 성장했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알고 있는 것’에서 ‘해내는 것’으로의 큰 도약을 경험했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국어와 공자아카데미 온라인 수업 경험이 있긴 했지만, 두 경험 모두 지금 내가 마주하는 학생이나 연령대, 교육 내용과는 많이 달랐다. 출국 전 공자아카데미 실습도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을 뿐, 실제로 교단에 서서 대면 수업을 한 경험은 없었다. 그동안 배운 많은 이론 지식도 이번에 처음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이어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실전 경험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었던 일은 ‘주눅 들지 않는 것’, 즉 교단에 당당히 서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책이나 전공 수업 사례로만 접하던 각종 사례 분석과 강의방법들이 내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고, 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한국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는 필수 과목이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일본어와 중국어 두 과목만 개설된다.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며, 중국어 병음부터 배운다. 한자를 배우지 않고 병음만 배운다. 문화 수업의 비중도 매우 크다. 지금 돌이켜보면, 처음으로 교단에 섰을 때 난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전체 과정도 순조로웠으며, 학생들 역시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날 수업이 끝났을 때 나는 앞으로 몇 달간의 생활이 무척 기대되었으며, ‘아마 아주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생활과 업무의 리듬에 익숙해졌고, 학생들도 협력수업 방식에 적응하며 내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다음은 ‘적응’이었다.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열정이 서서히 식어 갔고, 낮설었던 나의 존재도 익숙한 일상으로 변해갔다. 언어 학습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최고의 스승이다. 수업을 흥미롭게 만들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짊어진 책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요소들이 있다. 한국 교실의 분위기는 중국과 약간 다르며, 중국보다 비교적 가볍고 편안하다. 이런 차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를 잘 활용해 강의를 준비한다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점이 많다. 아래는 내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자극하고, ‘선택적 피드백’을 해야 한다. 어떻게 오류를 교정해주느냐는 한 교사의 지혜와 따뜻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학생이 한창 열심히 표현하고 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발음만 잡아주어야 하고, 모든 오류를 고쳐주는 방식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무너뜨

릴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도록 유도해 학습 주도권을 학생에게 쥐어주어야 한다. 직접 “틀렸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올바른 발음을 자연스럽게 다시 들려주거나 학생의 오류를 의문형으로 반복하면 학생은 즉각 문제를 인식하고 고칠 확률이 더 높으며, 그 과정에서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교사가 힌트와 암시를 통해 ‘틀린 부분을 발견하는 기회’를 학생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학생에게 더 큰 성취감과 학습 주도성을 안겨주는 방법이다.

둘째, 학생들의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어 성조는 외국인이 중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렵다고 공인되는 부분 중 하나다. 중국어가 모국어인 우리는 이 고통을 직관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내가 처음 해외에서 교단에 올라 병음을 가르쳤을 때 맞닥뜨린 첫 번째 난관 역시 이것이었다. 전공 수업 시범 강의에서는 우리가 몇 번 정확한 발음을 해주면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 하며 익혔지만, 실제 교실에서는 모국어의 영향이나 개인차로 인해 어떤 학생은 계속해서 발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우리가 정확한 발음만 반복하거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몸을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몸을 굽혔다 펴며 성조의 높낮이를 표현하거나, 손으로 성조의 모양을 직접 그려 보이는 것, 감정과 연결해 가르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헛갈리기 쉬운 2성은 ‘의문하는 어조’, 4성은 ‘화난 감정’과 연결해 가르치면 학생들은 성조의 음높이 변화를 더 직관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두 성조를 구별해 정확한 발음을 해내도록 한다. 학생들이 해냈을 때 느껴지는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셋째, 지시어를 간결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수업 중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이해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시는 꼭 말로 할 필요는 없다. 몸짓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역할극을 연습할 때 “바꿔!”라는 지시를 손짓과 함께 제시하면 학생들은 금방 이해한다.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시간도 절약되며, 학생들과의 호흡도 자연스럽게 맞춰져 수업 효율이 크게 올라간다.

넷째, ‘눈은 여섯 갈래를 보고, 귀는 여덟 갈래를 듣는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다.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수업 시간의 우리는 온몸에 눈을 달고 있어야 한다. 교단 앞의 좁은 공간에만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 된다. 교실 곳곳을 걸어 다니며 관찰력을 발휘하고, 학생들의 비언어적 반응을 포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즉시 강의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수업의 핵심은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이 몇 달간의 현장 수업을 통해 나는 더 명확히 깨달았다. 훌륭한 대외중국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창의력을 가진 연출가이자 따뜻하면서도 힘 있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존중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수업에 대한 존중, 모든 학생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진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 말이다.



여러 차례의 문화 수업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문화 수업은 단순히 PPT에 경극 얼굴무늬 몇 장을 띄우고, 중국의 각종 명절 유래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교재 속 내용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중국 문화 해설자’에 머무르기보다, 한국 학생들이 중국 문화를 이해한 뒤 스스로 그들의 문화와 어떤 접점이 있는지, 두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다른지 사고하도록 이끄는 ‘길잡이’의 역할을 겸했다. 매 한 시간의 문화 수업이 바로 나와 학생들이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공감하는 장이 되었다. 중추절을 가르치며 소식의 “但愿人长久，千里共婵娟(사람들이 오래도록 평안하기를,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같은 달빛을 공유하길)”을 설명한 뒤 학생들에게 물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왜 사람들은 중추절 당일 같은 달을 바라보게 될까요?” 어떤 학생은 “그날 달이 특히 둥글기 때문이에요.”라고 답했고, 또 어떤 학생은 “달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어서요.”라고 말했다. 그 순간, 문화의 차이는 인간이 공유하는 정서 앞에서 모두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문화의 차이는 장벽이 아니라, 세계를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퍼즐 조각이며, 내가 맡은 역할은 바로 그 조각들을 서로 이어 붙이는 ‘연결자’라는 것을.

중국어교육이라는 길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의 초심은 단 하나였다. “단 한 명이라도, 나로 인해 중국어를 진지하게 배우고, 나로 인해 내 나라를 알고 싶어진다면, 나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다”고. 시간이 흐르고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니, 그 가치는 이미 ‘교육’이라는 범주를 훌쩍 뛰어넘어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하고 싶다. 바람이 나를 이웃 나라의 땅으로 데려다 주었고, 나는 거의 1년에 걸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언젠가 이 땅 위에 ‘이해의 숲’이 자라나길 바라며, 이 젊은 영혼들이 이해를 품고 성장해, 우리 세대보다 더 서로를 잘 알고 더 가까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이는 작은 씨앗에 불과한 내가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숲일 것이다.

나의 밤은 도전과 향수(鄉愁)로 뒤섞였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을 계속 채찍질해 왔다. 초심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跨越山海的教学相长

陈秋伊

我觉得自己是幸运的。幸运在选择了汉教这条路，虽兜兜转转也没走出教育学，但它带给我的幸福感尤为不同。我是一个喜欢新鲜，好奇心很浓厚的人，做汉教，在异文化的环境隔三岔五就能遇见新鲜事，每天备课上课都会出现新的难题，需要不断地寻找有趣的解决办法，毕竟枯燥、乏味、机械重复的课堂学生很痛苦，我总用我学英语时的痛苦警醒自己。教学是其一，其二我们需要向学生们展示、分享中国故事。在国外的环境，作为中国人的我们也许是大部分学生了解中国为数不多的途径，他们对我们的课堂、言行举止打上的标签不仅是简单的人名，我们身兼使命，一言一行都在讲述中国故事。这是汉教人独一份的情怀。人只有在捣乱和做自己喜欢的事情上是不觉得累的，我很幸运恰好选择到了自己喜欢的事情并做到了现在。

下笔时我的思绪总被拉回一年前坐在寝室桌前磨毕业论文的夜晚，时间过得特别快，一年后的今天我坐在韩国金海的办公桌前敲着这些字。八个月前我怀揣着对汉语教学的热爱和对未知的好奇，跨越山海，来到了韩国。现在，我对韩国民族文化的体验不再是浮光掠影的参观，而是十一个月怀着谦卑和学习态度的触摸，现在一切都进入了尾声，包括现在敲的这些字也是收尾工作的一环。我该怎么写呢？华丽还是抒情？都跟我现在的心情不太匹配，我决定平淡些，总结我这一趟关于文化、成长与连接的生命旅程。

我被分到的教学点——金海市，古代伽耶中首露国的首都，历史文化气息浓厚，金海西邻我最喜欢的韩国城市釜山，轻轨一小时能直达，去金海机场也很便利，出行方便。任教点一主一副，通勤都只需步行，不超过五分钟，大大提升了日常生活幸福感。我有两位搭档，主副校各一位，授课模式为双师授课，需与搭档们合作教学，大部分情况为搭档主志愿者副，新授课辅助搭档教学，文化课志愿者主讲。这样的授课方式我没有经验，前期磨合过程十分考验个人的心态、沟通和适应能力。教学安排，与搭档之间的分工、各授课环节之间的衔接、以及授课效果等都需主动与搭档之间沟通交流，虚心接受意见，磨合调整。不同搭档的教学风格，以及教学内容都是不同的，在主动沟通的基础上还需尽快适应。搭档们都是有着多年教学经验的一线教师，语言教学本就是实践越多，经验越丰富，将教学理论化于无形，融于每个教学细节中，每个教学技巧都

是经过时间的打磨不断筛选而留下的精品，是值得我们借鉴、学习，运用于教学中的。我的周课时是19节，主校是女子高中，五个班，十节正课和一节语言交流课，副校是男子高中，四个班，八节课，课堂上的氛围、学生们的性格有着很大的差异，他们正逢青春期，个性最浓烈的时期，正是男女生性格差异大的时候，不论是课下与学生的相处还是课上教学互动方式都要注意调整、且及时调整。我很幸运，学生们都很友好，女生们细心的问候和关怀，偷偷塞给我的纸条上用汉字一笔一画地写着“老师韩国的生活不累吗？老师请加油。”“如果你想吃好吃的就叫我们吧！”还有偷偷放在办公桌上的小零食. 以及男生们调皮幽默地积极互动,学生们从不吝啬自己的称赞，与他们的相处总是开心的。我每天旁观着别人的青春，能不时参与进他们这段人生中最美好、稚嫩，充满活力的日子，我也感到很幸运、很幸福。

人在独自面对一切的时候各方面成长最快。异国、独居，新的工作环境，这几个条件让我在面对事情的心态以及行动上都有着大大地提升，我也是不得不成长。相对其他国家来说，韩国与中国的基础生活设施相差不太大，文化差异方面除了差异特别大以及需要特别注意的地方其他不需要有太大的压力，饮食方面我接受度很高，来了之后长胖了不少，快递转运十分方便，总之，日常生活我适应的很好。因为通勤很近，每天运动量不够，加上对K-POP很感兴趣，刚来没多久我就去舞室跳舞了，与他们的相处中更深入地了解了韩国人的日常生活，交到了很多好朋友，在相处中他们热切地关心着我，细节处也会多照顾我，语言不通也没有阻碍我们的交流，含蓄的给予我温暖。逢假期我也会和CPIK老师一起去其他城市旅行，首尔、丽水、济州岛. 感受韩国不同地区的风土人情，遇到的人们都很友善，以后一定会怀念这段时光。

教学方面的成长与感受是重点，总的来说我经历了从“知道”到“做到”的跨越。我确实有过国内小学语文和孔院线上教学经验，但二者与我面对的对象、年龄段、教学内容都有很大差异，且现阶段面对的教学对象也大有不同，出国前在孔院的实习也只是在线上进行，没有站上讲台面对面授课过，很多理论知识也是初次实践，并不成熟，经验也不足，我首先能做到的就是不怯场，大大方方地站在讲台上。曾经出现在书本、专业课课堂上的各种案例分析、教学法从发生在“李老师”“张老师”“王老师”身上，现在真实的发生在我的身边，而我成了要解决它们的主人公。

二外在韩国高中是必修课，普通高中一般只开设日语、汉语两门。学生们大多是零基础，从汉语拼音开始学习，不学汉字，只学拼音，文化教学占很大比重。现在想起第一堂课站上讲台时候的我并不紧张，这不是我人生中的第一堂课，整个过程很顺利，学生们也很热情，那一天走下讲台我对我之后几个月的日子十分憧憬，我想：应该会很不错吧。渐渐地，我适应了生活和工作的节奏，学生们也适应了双师课堂，接受了我的存在，但随之而来的会是新鲜感淡去，学生们对



课堂的激情慢慢冷却。学习语言，兴趣是最好的老师，将课堂变得有趣，让学生们发自内心的想学中文是我们任教比较重要的责任之一。但有很多细节我们一定不能忽略的，韩国的课堂氛围与国内稍有区别，较国内会轻松一些，或许需要一定的时间去适应这种差别，但如若我们抓住这样的差异设计教学活动，只有会好处。以下几点是我认为非常重要的：

第一，保护学生的表达欲，选择性纠错。如何纠错，最能体现一位教师的智慧与温度。学生正在兴头上时，我们可以选择最核心的发音纠错，打断并纠正每一个错误会摧毁他们的信心。且应引导学生自纠，真正赋权于学生，直接说“你错了”比重复一遍正确发音或用疑问的语气重复学生错误的发音，学生往往更能立刻意识到问题并改正，留下深刻的印象。通过引导和暗示，把发现错误的机会还给学生，能让他们获得更大的成就感和学习自主权。

第二，调动学生多感官的教学体验。汉语声调是外国人学汉语公认最难的部分之一，作为母语是汉语的我们不太能直观地感受到这种痛苦。第一次站上国外讲台就教拼音时的我遇到了第一个难题，专业课课堂上的试讲我们总是默认给学生范读几次，他们模仿我们的发音就能学会，但真实课堂上因母语的影响或者是个人差异，总会有学生一直发音不对，这时如果我们只是一味地范读、机械地重复，用他们听不懂的语言讲解理论，枯燥且无用，不如带上身体，如用身体的蹲起或是用我们的手比划出声调的轮廓，与情绪结合也是不错的教学办法，易混淆的二声与四声分别与疑问、生气的情绪结合教学，让学生们更直观地看到、感受到声调音高的起伏变化。每当有学生在通过我这样的措施终于区分二者发出正确读音时，成就感是爆棚的。

第三，精简指令。我们与学生语言不通，所以在课堂中培养学生对指令的理解和敏感度很重要，指令不限于用口头语言，身体语言也可以起到重要作用，如在练习文章角色扮演对话时，我们说指令“换”，配上手势，学生很容易就能明白，比起我们吭吃瘪肚地解释半天有用得多，不仅节约时间，还能培养与学生们之间的默契度，大大地提高课堂效率。

第四，眼观六路，耳听八方。想要成为一名优秀的教师，课堂上的我们全身都是要长眼睛的。不能把自己局限于讲台那一亩三分地，而是要游走在教室的各处，不要只沉浸在自己的讲授中，在课堂上要有观察力，捕捉学生们的非语言反馈，及时对教学策略做出调整，让教学服务于学生的“学”，而非只是教师的“教”。这几个月的一线教学，让我更加清楚，想要成为一名优秀的对外汉语教师，肚子里有一卡车的汉语知识真才实学是基本，还需是一名充满创意的导演、温暖而有力量的引路人，但最重要的是我们必须、必须心怀尊重，尊重课堂、尊重我们课堂上的每一位学生、每一位学生身后的文化。

一次又一次的文化课也让我明白，文化教学不是简单的在PPT上向学生们展示几张京剧脸谱图片，看看讲述中国各节日由来的视频，我也不能仅仅局限于书本的单向灌输与展示，只做一

个中华文化的讲述者，须兼任起引导者的角色，引导韩国学生了解中华文化后去发现与他们自身文化的交汇点，思考二者的共处与差异，每一次文化课，都是我与学生之间双向的启发与共鸣。在讲到中秋节，解释完苏轼的“但愿人长久，千里共婵娟时”时，我问学生们：“无论在韩国还是中国，为什么人们在中秋节这一天都不约而同地望向同一轮月亮呢？”有说：“因为月亮那一天很圆。”还有说：“通过月亮，能看见我们看不到的人。”这一刻，所有文化差异在人类共通的情感前消散。我开始理解，文化差异并不是隔阂，而是让世界更丰富多彩的拼图，我扮演的角色，正是这副拼图的连接者。

最初走进汉教这一行时，我的初心是哪怕只有一个学生会因为我而认真学习汉语或是愿意了解我的国家，我的青春都不白费。回望这段时光，其价值已超越教学本身。我愿意将我自己形容成一颗种子，时代的风将我吹到了这片友邻的土地上，近一年的时间里我努力地生根发芽，希望催生出一片理解的森林。期望这些年轻的灵魂会继续带着这份理解与美好，去构建一个比我们这一代更加相知、亲近的未来，这便是我这颗微小的种子，所能孕育出来的最辽阔的森林。

我会在每个充满挑战与思乡的夜晚不断淬炼自己，我未忘初心，我不会停止脚步。



한국의 교실에서, 씨를 뿌리며 자라다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풍로

제1장: ‘언어의 폭포’에서 ‘만물을 적시는 이슬’로 - 교사로서의 성장

한국 교단에 처음 섰을 때의 저는 가슴 가득 뜨거운 열정과, 정성껏 준비한 뽁뽁한 원고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어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폭포’처럼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그 ‘폭포’ 아래에서 목마르게 마시기는커녕, 오히려 당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하던 그들의 눈빛은 점차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져만 갔습니다. 그때, 현지 협력 교사님께서 다정하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교사가 되어 첫 번째로 배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르침이란 지식의 과시가 아니라, 학생의 마음속에 닿는 예술’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자기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쓰는 말투는 복잡한 접속사와 성어에서 점차 ‘날개 달린 말’처럼 가볍고 정확한 문장과 핵심 어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불필요한 말버릇도 사라졌죠. 수업 지시사항은 아침의 맑은 종소리처럼 선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협력 교사의 도움에 의지하던 수업도, 이제는 혼자서 훌륭히 책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전장’은 강의실에서 컴퓨터 화면 앞으로도 옮겨졌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단순한 글자 나열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즐거움’을 주는 시각 자료로 변모했습니다.

한 음절의 성조, 한 문장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새벽까지 확인하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Canva’로 잡지처럼 예쁜 자료를 만들고, ‘Kahoot’와 ‘Wordwall’로 게임처럼 재밌는 퀴즈를 만들어 ‘신나는 경쟁’ 속에서 지식의 씨앗이 스르르 자라게 합니다.

더 큰 자라는 바로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교과서를 넘어, 중국의 초고속 ‘고속철’과 한국의 ‘KTX’를 비교하기도 하고, ‘딥시크(DeepSeek)’ 같은 인공지능이 우리의 공부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중국의 ‘버블티 문화’와 ‘인플루언서 경제’는 무엇인지 같이 탐구했습니다. 수업시간에 ‘한자’와 ‘YYDS’를 같이 배울 때면, 저는 거기서 문화의 단절이 아닌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강물을 보았습니다. 학생들

의 눈이 지금 여기의 중국'을 배우며 반짝일 때, 제가 열어 준 것이 '언어의 창문'이 아닌,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라난 자신감은 일상의 말투에서도 묻어났습니다. 한때 조용하기만 했던 '중국인 선생님'에서, 이제는 '한국어'로 동료 교사님들과 '오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향에서 가져온 '차'를 나누며, 그들의 '유머 코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아 온 '신뢰'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생활 도움이 아닌, '제가 사랑하는 이 땅을 더 품에 안기 위한 과정'이 되었고, 'TOPIR' 시험에 도전하는 용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제2장: 따뜻한 울림 - 우리가 서로를 빛내다

성장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라는 그물코 안에서, 서로가 스며들고, 빛을 발하며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부산중국총영사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입니다. 평소 조용했던 한 여학생이 '한중 청년, 함께 맞선 파시스트 항쟁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선택했죠. 방과 후, 우리는 단어 하나, 발음 하나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함께하다(=#), 우정(☆1)" 같은 단어를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함께 연습했습니다. 그 학생이 아직은 어설피지만 가슴 가득 찬 감동을 담아 "외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한 마디 인사, 한 번의 진실된 경청이 내일의 우정의 씨앗이 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가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학생과 함께 배우는 동반자'였습니다.

일상의 작은 변화들도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숙이며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선생님! 이 아이돌 알아요? '알리(붓지, 추천) 할게요!"라며 배운 중국어로 제게 다가옵니다.

올해 생일,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가득 적힌 칠판,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부른 생일송이 저를 반겼습니다. 제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몰래 손에 쥐어 주던 학생, 교내 신문 기자도 '한국식 억양'의 중국어로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가르치는 느낌이 어떠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죠.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둔 것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무실에서도 '사회생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장벽'이 아닌 '다리'로 삼았습니다. 한국 선생님들께 중국 간식을 소개해 드리면, 선생님들께서는 '현지인만 아는 맛집'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중국인은 왜 따뜻한 물을 마실까?", "한국인은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랑할까?"와 같은 질문을 주고받으며, '차(주)'와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함께



한 기쁨'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를 믿고 이해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 서로의 '명절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편견'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을 깨달았습니다.

제3장: 내일의 가방 - 얻은 것을 담아, 더 먼 길을 나서다

시간이 꿈결처럼 흘러, 한국에서의 생활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서툴고 두려웠던 그 신입 교사는 이제 '한국의 바람과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을 위해, 저는 '더 단단하고 알차게 준비'할 것입니다.

첫째, 저의 '교육 전문성'을 더 깊이 키울 것입니다. 수업 준비 시간을 줄여,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싶습니다. 또한 'AT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딥시크(DeepSeek)' 같은 스마트 도구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문화 수업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서예'와 '경극' 같은 전통 문화부터, '현대 과학'과 '인터넷 문화'까지, 한국 문화와의 '공감점'을 찾아 '재미있는 비교 수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류'와 '한풍이 제 교실에서 '각자 흩어지는 바람'이 아닌,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한국어 공부'에 더 매진할 것입니다. '언어'는 한 민족의 영혼'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문화 가교'가 되어,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학생들에게 '더 생생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의 나날은 마치 '바람에 실려 먼 곳에 날아온 씨앗'이, '따뜻한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미소', 동료들의 따뜻한 도움', 그리고 '스스로 이겨 낸 모든 도전'이 저에게 자라나는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거대한 나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뼘의 그늘'이라도 드리울 수 있도록, '해를 향해', 그리고 '제가 닿은 모든 이와 함께', 계속해서 '가지와 잎을 뺀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성장 이야기'는 아직 '다 쓰이지 않았'습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在韩国的课堂上，播下种子，伴随成长

冯璐

第一章：从“语言的瀑布”到“滋润万物的甘露”——作为一名教师的成长

当我第一次站上韩国的讲台时，我满怀一腔热情，手里拿着精心准备的密密麻麻的讲稿。我以为应该像瀑布一样，把中文的一切倾注给学生。然而没过多久，我便意识到，学生们不仅无法在这“瀑布”下痛快“喝水”，反而显得手足无措。他们充满好奇的目光渐渐变得模糊，仿佛被迷雾笼罩。就在那时，当地的合作教师温柔地给了我建议：“老师，能不能讲解地简单一点呢？”

那一刻，我明白了成为教师后学到的第一个道理：教学不是知识的展示，而是能触达学生内心的艺术。

于是，我开始了自己的“自我革新”。课堂上使用的表达，从复杂的连接词和成语，渐渐转为轻盈准确的句子和核心词汇；“所以说…”，“那个…”这类多余的口头禅悄然消失了。课堂指示变得如清晨的钟声般清晰明亮。最初，我还依赖合作教师的帮助来上课，现在我已经能够独立承担起课堂的责任了。

我的“战场”也从教室延伸到了电脑屏幕前。PPT 不再是简单的文字堆叠，而是变成了能带来“观看与感受的乐趣”的视觉资料。曾经为了一个音节的声调、一句句子的空格与标点符号忙到深夜的我，如今已经能用“Canva”制作像杂志一样精美的资料，用“Kahoot”和“Wordwall”制作像游戏一样有趣的游戏问答，让知识的种子在“愉快的竞争”中悄然发芽。

更让我自豪的是“课程内容”本身。不再局限于课本，我带领学生比较中国的高速铁路和韩国的KTX，讨论像DeepSeek这样的人工智能如何改变我们的学习方式，一起探究中国的“珍珠奶茶文化”和“网红经济”。在课堂上同时学习汉字与网络流行语“YYDS”时，我看到的不再是文化之间的断层，而是一条鲜活流动的河流。当学生们因为学习“当下的中国”而眼睛闪闪发亮时，我确信自己打开的不是“语言的窗”，而是“理解现代中国的大门”。

这样一点点累积的自信也自然渗入了日常的言行中。我从过去那个安静的“中国老师”，逐渐成为能用韩语与同事们聊“今天天气如何”，分享从家乡带来的茶，理解他们幽默感。正是因为这

样建立起的“信任”，学习韩语不再只是给生活带来帮助，“为了更加融入我所热爱的这片土地”的过程，这也让我有勇气挑战“TOPIK”考试。”

第2章：温暖的回响——我们彼此照亮

成长绝不是一个人独自完成的事，而是在“关系”这张网中，彼此渗透、彼此发光、共同站过来的过程。

最令我难忘的，是在“驻釜山中国总领事馆”主办的活动中指导学生的经历。那个平时十分安静的女生，选择了一个沉重的主题——“韩中青年共同面对法西斯抗争史”。放学后，我们一起为每一个词语、每一个发音倾注心力，反复练习，直到她完全掌握“共同”、“友谊”等词语。当她虽然还略显生涩，却满怀真情地说出：“外交无处不在，我们的一句问候、一次真诚的倾听，都可能成为明天友谊的种子，成为让世界更温暖的起点。”时，我从心底被深深打动了。那一刻，我不再是“教导学生的教师”，而是与学生并肩学习的“同行者”。

日常里的小小变化也同样珍贵。过去在走廊相遇时，只会轻轻点头、说一句“老师您好”的学生们，如今会主动跑来，用学过的中文问我：“老师！你认识这个爱豆吗？我可以推荐给你哦！”

今年生日那天，我毫无察觉地推开教室门，却看到黑板上写满了韩语和中文的“生日快乐”，还有学生们齐声唱起的生日歌。有人悄悄把我“最喜欢的巧克力”塞到我手里，校报记者也用带着“韩国腔”的中文来采访我。当他们问我“在韩国教书是什么感觉”时，我回答道：“就像在播种，但我收获的远远比我播下的更多。”

在教室里，我也迈出了“社会生活的第一步”。我没有把文化“差异”当作“障碍”，而是当作连接彼此的“桥梁”。我向韩国老师介绍中国的零食，韩国老师们则告诉我只有当地人才知道的美食店。我们努力去理解彼此的文化，互相询问“为什么中国人喜欢喝热水？”“为什么韩国人那么爱冰美式？”，并一起分享茶和咖啡。在这种“共同的喜悦”中，我们从简单的“同事”，逐渐成为“彼此信任、彼此理解的真正朋友”。我也明白了，一碗辣炒年糕、对彼此节日文化的真心关怀，正是打破偏见的第一步。

第3章：明日的行囊——装载所得，走向更远的道路

时间如梦般流逝，我在韩国的生活也已经过去一半了。刚来到这里时，那位对一切都生疏、充满恐惧的新任教师，如今已在“韩国的风、阳光，以及人们的微笑”之中，像“一棵在异国土地上扎下根的小树”般逐渐成长。



为了走向更远的道路，我将“更加扎实、更加充实地做好准备”。

首先，我要进一步提升自己的“教育专业性”。我希望减少备课所需的时间，把更多的时间投入到与学生的“交流”之中。同时，我也会顺应“AI时代”的变化，积极探索利用像“DeepSeek”这样的智能工具，导入“个性化学习”等新的教学方式。

其次，我将系统整理至今累积的“文化教学经验”。从书法、京剧等传统文化，到现代科学、网络文化，我计划寻找与韩国文化的“共鸣点”，并把它们发展成“有趣的比较型课堂”。让“K-POP”、“韩流”不再只是课堂上各自吹散的风，而是融合交织成美丽的风景。

第三，我会更加专注于“韩语学习”。语言是理解一个民族灵魂的钥匙。我相信韩语掌握得越好，就越能更深入地理解韩国，也越能成为“更出色的文化桥梁”，把我所看到的、感受到的“一切”，更生动、更精准地传递给学生。

在韩国的每一天，就像“一粒被风吹到远方的种子”，落在了“温暖的土地”上，开始生根发芽。学生们“纯真的笑容”、同事们温暖的帮助，以及“我亲自克服的每一个挑战”，都给予了我成长的力量。我不知道自己是否已成为“一棵参天大树”，但我确信，我会为了能为他人带来“哪怕一寸的阴凉”，始终“向着太阳”，并与我遇见的每一个人一起，不断“伸展枝叶”。这段“成长的故事”，还远远没有“写到终章”。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교수 활동 경험 탐구

서창중학교 악문령

배움은 지식의 넓이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면, 강의는 교육의 깊이를 느끼게 해준다. CPIK의 교실은 학생들과 지식을 나누는 공간이자 끊임없이 성장하고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출발점이다. 2025년 2월, 나는 CPIK 교사로서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서창중학교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 충실하고도 즐거운 교육을 시작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새롭게 느껴졌다.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지만, 이국의 교실에서 언어와 문화가 서로 얽히며 만들어내는 따뜻한 온도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언어가 하나의 다리라면, 수업은 그 다리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곳에 와서야 나는 비로소 ‘문화 교육’이 가진 도전과 매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중국어 교사로서, 나는 한국의 현지 중국어 교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 중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 단계로, “니하오(안녕하세요)”, “라오스하오(선생님, 안녕하세요)”외에는 거의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이 중국어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직접 중국어로 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가 이번 교육 경험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한 부분이었다.

1.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말하기’까지 — 첫 수업에서의 도전

첫 강의를 할 때 나는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훨씬 두텁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중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은 많았지만, 한 시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겨우 몇 개의 단어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다. 낯선 발음에 쉽게 입을 떼지 못하고, 수업 분위기 역시 소극적이었다. 파트너 선생님과 상의한 끝에, 학생들이 언어 환경에 서서히 녹아들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실에서 다양한 ‘상황 중심 활동’을 설계했다. 예를 들어 “你好(안녕하세요)”, “谢谢(고마워요)”, “再见(안녕히 가세요)” 같은 기초 인사 표현을 배울 때에는 역할극 활동을 통해 실제 대화 장면을 모의로 재현하게 했고, 숫자를 배울 때에는 ‘빠르게 손들기’ 게임을 통해 경쟁 속에서 단어나 발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했다. 이러한 과제 중심 수업 방식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언어 사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들은 더 이상 중국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기꺼이 입을 열어 말하려는 태도를 보이

기 시작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2. 협력과 탐구 — 문화 수업의 ‘호흡’

CPIK 수업에서 나는 파트너 선생님과 긴밀이 협력했다.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PPT를 수정하며, 교실의 분위기에 맞추어 수업 방식을 조정했다. 파트너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문화적 배경을 잘 알고 있었고, 나는 중국어의 언어 체계와 강의 논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살려 서로 보완하는 수업 방식을 만들어 갔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들은 대체로 수업 규율은 잘 지키지만 표현이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어서 수업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파트너 선생님이 문법 요점을 설명하고, 나는 연습과 말로 표현하는 부분을 담당했다. 덕분에 수업은 체계적이면서도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했다. 또한 수업 중에는 조별 학습과 과제 중심 학습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실제로 언어를 사용해보도록 유도했다. 학습 적극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도입했는데, 활동에서 뛰어난 팀에게는 중국에서 가져온 사탕을 선물로 주었다. 이 작은 보상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협력 의지를 끌어올리는 데 큰 효과가 있었으며, 교실은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를 형성했다.

3. 명절을 매개체로 한 문화 교육의 혁신적 시도

나와 파트너 선생님은 언어 학습이 문화적인 기반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수업에서 문화 체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명절 주제 수업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과제 중심 강의의 개념을 도입해, 전통 명절 내용을 연습과 결합하는 ‘체험형 수업’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중추절 주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월병을 만들어 보면서 명절 관련 어휘와 문화적 배경을 익혔고, 단오절 수업에서는 쫄쫂 모양의 향주머니를 함께 만들며 단오절의 기원과 풍습을 이해하도록 했다. 이런 ‘만들며 배우는’ 방식은 학생들이 중국 전통 명절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실제 실습 과정에서 언어 활용 능력과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흥미도 함께 높여주었다. 이렇게 진행된 ‘명절 수업’은 언어 학습을 교과서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매년 새로운 문화 체험과 발견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4. 방학 수업—체험하면서 배우기

방학 수업은 문화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여름방학 과정에서는 칠선 만들기, 밀크티·빙편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실습 수업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생전 처음 접하는 중국 전통 공예에 신기함과 호기심을 드러냈다. 먼저 칠선의 역사적 유래와 제작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고 영상으로 시범을 보여준 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작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동시에 실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 어휘와 표현을 접할 수 있었다.



5. 흥미를 매개체로, AI로 확장된 수업

어느 날 우연히, 파트너 선생님이 한 학생이 중국 POPMART에서 출시한 인형 ‘Labubu’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문화 수업의 흥미로운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Labubu의 기원, 세계관, 인기 이유 등을 소개하는 PPT를 제작해 ‘Labubu 문화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대중문화를 이해하고, 토론도 진행했다. 또한 ‘해바라기 씨 문화 체험 수업’을 열어 중국인의 해바라기씨 먹는 문화를 소개하고, 진피맛, 카라멜맛, 오리지널 맛의 해바라기씨와 수박씨를 시식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실습과 시식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며, 재미있는 문화 지식을 얻는 동시에 중국어의 실제 활용 가치를 체감했다. 몇 차례의 시도를 통해서 교사는 지식 전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흥미를 포착해 그들이 친숙한 문화 요소를 학습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수업에 도입해 언어 학습의 개별화와 상호작용성을 높이고자 시도다. ChatGPT와 Deepseek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 학생들이 중국어 이름들과 직업을 배우는 등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유도해 언어 학습과 이해를 결합하게 했고, Wordwall 등 디지털 인터랙티브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 게임과 복습 활동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참여도와 지식 학습 효과를 높였다. AI 기술의 활용은 수업 형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보다 유연한 자기 주도 학습 경로를 제공해 수업 효율과 학습 경험을 모두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6. 강의 경험과 성장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방법과 교육 철학을 가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초급 학습자가 겪는 언어 장벽을 깊이 실감했다. 학생들은 중국어 발음과 어휘에 매우 낯설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상황별 강의와 과제 중심 학습 활동을 준비했다.

또한, ‘문화 간 협력’ 역시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다. 한국인 파트너 선생님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공동으로 강의안을 준비하고 PPT와 수업 흐름을 조정했습니다. 파트너 선생님은 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문화적 배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나는 중국어 강의에 익숙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수업에서는 협동학습 방식을 적용해 과제 중심 활동과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이 협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문화 교육도 우리의 중요한 시도 중 하나였다. 전통 명절을 실습 활동과 결합하여 문화 체험형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명절 어휘와 문화적 배경을 익혔다. 여름방학 과정은 특히 문화 체험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수업에서는 먼저 역사와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영상으로 시범을 보여준 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중국어 활용 능력을 높였을 뿐 아니라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 심화했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가 수업을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Labubu 같은 유행 문화든, 해바라기씨 같은 음식 문화든 학생들의 관심과 맞닿아 있는 소재는 수업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콘텐츠를 학습 소재로 전환하면, 실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나의 강의 경험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황별 활동과 과제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중국어로 말할 용기를 갖게 한다는 점. 둘째,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셋째, 전통 명절과 문화 체험을 수업에 녹여 언어 학습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 넷째, 학생들의 흥미를 포착해 유행 문화와 생활 소재를 학습 콘텐츠로 전환하는 것. 다섯째, AI를 수업에 활용해 더욱 흥미롭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흥미를 일으키고 경험을 이끌어내며 문화 간 이해를 길러주는 과정임을 깊이 체감했다.

7. 맺음말

이제 1년간의 CPIK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교육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흥미를 깨우고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하도록 이끄는 데 있음을 깊이 느꼈다. 이국의 교실에서 저는 인내심 있게 귀 기울이는 법,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고, 문화 간 소통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몸소 체감했다. 학생들이 용기 내어 중국어로 말할 때마다, 실습 활동 속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을 때마다, 저는 교사라는 존재의 특별한 가치를 느꼈다.

가르침은 학생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이자,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나는 지식을 배우고 전하며, 문화 교류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여 나의 교육 철학을 지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교실이 학생들에게 세상을 알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之授课经验的探索

岳文铃

如果说学习让我发现了知识的广度，那么授课则让我体会到了教育的深度。CPIK的课堂，不仅是我分享知识的地方，更是我不断成长、重新认识自己的起点。在2025年2月，我作为一名CPIK教师来到了位于韩国庆尚南道梁山市西仓中学，与搭档老师一起，开启了我为期一年的充实而又快乐的教学时光。

初来乍到，这里的一切都让我感到陌生而又新奇。那是一个平凡的开始，却让我在异国的教室里，感受到了语言与文化交织出来的奇妙温度。如果说语言是一座桥梁，那么教学便是架起这座桥的过程。来到这里，我才真正体会到跨文化教学的挑战与魅力。作为一名汉语教师，我与韩国本土的汉语老师搭档，为初中学生教授汉语。学生们的汉语水平为零基础，除了“你好”和“老师好”，几乎不会说汉语。如何让他们在有限的课堂时间内对汉语产生兴趣、开口说中文，成为我这段教学经历中最重要的课题。

一、从“听不懂”到“敢开口”——初识课堂的挑战

刚开始授课时，我意识到语言障碍远比我想象中的更加明显。学生们虽然对中国文化充满好奇，但一节课下来，往往只能记住几个简单的词汇。他们对陌生的发音感到害羞，不敢开口，课堂气氛一度显得有些拘谨。

我和搭档老师在商量后，决定逐步引导他们进入语言状态。为了帮助学生在真实语境中理解和运用语言，我们在课堂中设计了大量情境化的教学活动。例如，在教授“你好”、“谢谢”、“再见”等基础问候语时，通过角色扮演游戏让学生模拟真实的交流场景，从而在互动中自然地使用目标语言；在学习数字单元时，我们引入了抢答游戏，使学生在轻松的竞争氛围中巩固词汇与发音。这种任务导向的课堂设计有效提升了学生的参与度与语言运用能力。渐渐地，学生们不再害怕说中文。虽然发音还不标准，但他们愿意开口，这本身就是跨出语言学习最关键的一步。

二、合作与探索——跨文化教学的默契

在CPIK的授课中，我与搭档老师密切合作。我们共同备课、不断调整PPT和调整课堂节奏。她对学生的学习习惯和文化背景非常了解，而我更熟悉中文的语言体系和教学逻辑。我们结合自身优势，形成了互补的教学模式。例如，韩国学生普遍注重课堂纪律，但对表达不够主动。于是我们将课堂分为两部分：她负责讲解语法要点，我负责操练和活动。这样的安排让课堂既有系统性，又不失趣味性。

此外，在课堂教学中，我们经常采用小组合作学习（Cooperative Learning）的方式，以任务为导向（Task-based Learning），鼓励学生在合作中学习语言。为激发学习兴趣，我们引入了适度的激励机制，即在活动中表现突出的团队可以获得一些奖励，而我们的奖励是来自中国的糖果。这一做法有效提升了学生的课堂参与度和团队合作意识，同时营造了积极的汉语学习氛围。

三、以节日为载体——文化教学的创新尝试

我与搭档老师深知语言的学习离不开文化的滋养。为增强课堂的文化体验感，我们在节日主题教学中引入了项目化学习（Project-based Learning）和任务型教学（Task-based Teaching）的理念，尝试将传统节日内容与动手实践活动相结合，开展“文化体验式教学”。例如，在中秋节主题课程中，学生亲手制作月饼，学习与节日相关的词汇和文化背景；在端午节课程中，我们制作粽子形状的香囊，了解端午节的起源与习俗。通过“做中学”的方式，学生不仅加深了对中国传统节日的理解，也在实践中提升了语言运用能力与对中国传统文化的兴趣。这样的“节日课堂”，让语言学习不再局限于课本，而成为一次次文化的体验与发现。

四、寒暑假课堂——在体验中学习

寒暑假课程主要以文化体验活动为核心。暑期课程中，我们开设了漆扇制作、奶茶和冰粉制作等文化实践课程。学生首次接触这些中国传统工艺，感到既新奇又充满兴趣。课程中，我们先简要介绍漆扇的历史渊源与制作步骤，并用视频演示，然后学生动手操作。在这一过程中，学生不仅体验了动手制作的乐趣，也在实践活动中自然接触汉语词汇和表达方式。

五、兴趣为桥，AI助力课堂——课堂中的惊喜

一次偶然的课堂上，搭档老师发现一个学生手里拿着中国PPMART旗下的爆款玩偶Labubu，并且认为可以作为文化教学的切入点。于是，我制作了Labubu相关PPT，介绍她的由来、家族故



事及其走红的原因，并设计了一节“Labubu文化课”。学生们在轻松的课堂氛围中了解了中国流行文化，也进行了互动讨论。此外，我们还开设了“瓜子文化体验课”，向学生介绍中国人嗑瓜子的习俗，并提供陈皮味、焦糖味、原味的葵花子及西瓜子让学生品尝。学生们在实践和品尝中积极参与讨论，不仅收获了有趣的文化知识，也体验到了汉语的实际应用价值。这几次尝试让我意识到：教学不能只是单纯地“教知识”，更要善于捕捉学生的兴趣，把他们熟悉的文化元素转化为学习素材。

同时，我们尝试将人工智能技术引入课堂，以提升语言学习的个性化与互动性。借助ChatGPT和Deepseek等AI工具，引导学生开展汉字命名、职业探索等任务，实现语言学习与自我认知的结合；利用Wordwall等数字化互动平台设计课堂游戏与复习活动，提高学生的参与度与知识巩固效果。AI技术的应用不仅丰富了教学形式，也为学生提供了更灵活的自主学习路径，促进了课堂效率和学习体验的提升。

六、授课经验与成长

在授课过程中，我逐渐积累了丰富的教学经验，并形成了几个核心方法与理念。初期，我深刻感受到语言障碍对初级学生的挑战——他们对中文的发音和词汇陌生。为此，我和搭档老师设计了大量情境化教学（Situational Teaching）和任务型教学（Task-based Learning）活动。同时，跨文化合作是另一项重要经验。我与韩国本土搭档老师密切配合，共同备课、调整PPT与课堂节奏。她对学生的学习习惯和文化背景非常了解，而我熟悉中文教学逻辑，我们优势互补。课堂上，我们采用小组合作学习（Cooperative Learning）模式，并结合任务导向活动，鼓励学生在合作中学习汉语。

文化教学是我们的另一大探索。我们尝试将传统节日与动手实践结合，开展文化体验式教学（Experiential Learning），让学生在实践中学习节日词汇与文化背景；暑假课程则侧重文化体验活动。课堂中，先通过讲解和视频演示介绍历史与制作步骤，再让学生动手操作。在这一过程中，学生既提升了汉语应用能力，也加深了对中国传统文化的理解。此外，我还意识到学生兴趣是课堂的重要驱动力。不管是Labubu等流行文化还是瓜子这种饮食文化，都与学生们的兴趣密切相关，将兴趣转化为课堂内容，让学生在实践中学习语言，还能感受中国文化的独特之处。

总体而言，我的授课经验可以简单概括为几个方面：一是通过情境化和任务型活动激发学生开口说汉语的勇气；二是与跨文化搭档密切合作，实现教学互补；三是将传统节日和文化体验融入课堂，让语言学习更生动有趣；四是善于捕捉学生兴趣，将流行文化与生活化素材转化为学习内容，五是AI融入课堂，让课堂更加有趣。这些经验让我深刻体会到，教学不仅是传授知识，更

是激发兴趣、引导体验和培养跨文化理解的过程。

七、结语

如今，为期一年的CPIK旅程接近尾声。在这段时间，我深切体会到教育的意义不仅在于知识的传递，更在于激发学生的兴趣、引导他们主动探索与体验。在异国的课堂上，我学会了耐心倾听、灵活应对，也深刻理解了跨文化交流的微妙与美妙。每一次学生勇敢开口、每一次他们在动手实践中收获惊喜，都让我感受到教师角色的独特价值。教学不仅让我见证了学生的成长，也让我重新认识了自己。未来，我将在知识的分享中不断学习，在文化的交流中不断成长，继续秉持兴趣为引、文化为桥的教学理念，让课堂成为学生们探索世界的起点。



제주에서 중국어 교사로 보낸 1년: 올레길의 발자취 속에서 체득한 문화와 나의 성장

서귀포중학교 진양

CPIK 자원봉사 교사로써 제주도에서 보낸 1년은 올레길의 바닷바람과 길,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었다. 처음 제주에 왔을 때 중국어 교육에 대한 열정은 품고 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어색하기도 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차이도 있어 화산과 감귤로 유명한 이 섬과 나 사이에는 늘 거리감이 있었다. 그 벽을 허물어준 것은 바로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올레길이었다.

제주의 산과 바다 사이에서 ‘올레’는 풍경과 일상을 관통하는 핵심어이기도 하다. 올레는 화산암, 감귤밭, 어촌을 잇는 도보길을 뜻할 뿐 아니라, 이 섬의 기억을 품은 단어다. 본래 제주의 방언에서 유래한 일상어로, ‘마을 큰길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굽은 좁은 길’을 의미한다. 교통이 편치 않던 시절 제주에는 촘촘한 도로망이 없어서 주민들은 농사와 이동, 이웃 왕래를 위해 섬에 흔한 화산석을 직접 쌓아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길을 만들었다. 큰길처럼 반듯하지는 않지만, 마을과 들판을 끼고 서로 이어지며 바닷가와 숲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었다.

제주에서 보낸 1년 동안 나는 10개가 넘는 올레길을 걸었다. 그리고 그 길마다 각기 다른 놀라움이 숨어 있었다. 7코스는 한라산 자락을 따라 굽이치는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물드는 곳이라 그 길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등산객들을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16코스는 서귀포 어촌을 지나는데, 여기서는 직접 배를 타고 바다낚시를 체험하고 갯 잡아 올린 해산물을 손질하는 어민들의 모습을 보며 신선한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21코스의 해변길은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파도는 검은 현무암을 두드리고 바다풀은 짙은 초록빛을 띠었다. 올레길은 본래 ‘집 입구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바닷가의 바위, 숲속의 소나무, 마을의 민박집, 한라산의 능선까지 이어지며 더욱 확장된 의미를 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닿아 있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핵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제주 올레길은 나의 성장을 위한 수행이기도 했다. 제주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고, 낯선 환경 앞에서는 늘 겁을 먹었으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먼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래서 늘 혼자 산과 바닷가를 거닐었고, 스탬프를 찍는 ‘올레 PASS’ 책을 들고 이정표와 지도를

변갈아 보며 길이 맞는지 추측하곤 했다. 이런 탐험은 재미있지만 때로는 무척 외로웠다. 어느 날 고립 암 근처의 탐방로에서 강한 햇빛에 살짝 더위를 먹어 어지러움을 느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꿀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다. 영어는 못하셨지만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손짓으로 공원 안쪽의 더 가까운 길을 가리키더니 바구니 안에 있던 크고 달콤한 한라봉을 내 손에 쥐여 주면서 “한라봉, good good”이라고 연달아 말씀하셨다. 그날 우리는 30분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머니는 가장 쉬운 한국어로 이 과일의 이름이 한라산 모양을 닮아서 붙었다는 것, 길가에 피어 있는 여러 야생화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나는 고향의 태산과 황하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진심 어린 눈빛과 미소 속에서 언어에 대한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 새콤달콤한 한라봉은 제주에서 먹었던 가장 달콤한 음식이었다. 이런 경험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이 많다. 올레길의 여행객들은 유독 친절하고 따뜻해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함께 걷자고 말하고 나의 서툰 한국어도 끝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다. 더 잘 일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나는 수업이 끝난 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간단한 인사말부터 수업 관련 어휘까지 차근차근 쌓아 갔다. 걷는 동안 나는 체력뿐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는 용기, 낯선 환경에서도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교육청의 선생님들은 초임으로 제주에 온 우리 몇 명의 봉사교사를 돕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셨다. 제주에서 오래 생활한 경험 많은 중국어 교사들과 우리를 1:1로 연결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갈피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지도, 수줍음에 움츠러들지도 않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조금씩 여린 새순처럼 가지를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수업이든 생활이든, 어려움이나 고민이 생기면 ‘속 깊은 언니’ 같은 멘토 선생님들이 친절히 조언해주었고, 교사 생활 속의 작은 행운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

내 지도교사였던 류 선생님은 매우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셨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좋아하셨다. 우리는 저녁 무렵 항구에서 가득 찬 달빛 아래의 크루즈선을 함께 보러 가고, 여러 전시관과 미술관을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선생님은 나에게 본인의 한국인 친구들도 소개해 주어 내가 현지에서 더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발 아래 펼쳐진 수많은 작은 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트레킹 코스가 아니라, 제주의 산과 바다, 마을과 사람의 마음을 촘촘히 엮어주는 따뜻한 그물망이 되었다.

제주에서 보낸 1년 동안, 올레길은 나의 “이동식 중국어 교실”이 되었다. 11코스를 걸을 때, 카페와 민박을 운영하는 한 아저씨를 만났는데 내가 중국어 교사라는 이야기를 듣자 먼저 다가와 간단한 손님 응대 표현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카페 뜰의 굴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는 서툰 중국어로 “환영합니다”를 따라 읽었고, 나는 그의 발음을 교정해주었다. 아저씨는 올레길의 역사도 들려주었고 예전에 중국인 관광객이 민박에 묵었을 때 스스로 배운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더니 크게 놀라며 고향의 차를 선물로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중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선의’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제주는 섬 전체에 총 27개의 올레길이 있고, 총 길이는 437km에 이르며, 135개의 마을과 130개가 넘는 명소를 지난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골길 산책”의 여유로운 감성을 간직하고 있다. 가파른 계단도 없고 길을 걷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해 둔 보급소가 나타난다. 종종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특산물을 파는 어르신을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디테일로 인해 ‘올레’는 늘 제주 고유의 생활 온기가 스며들어 있다.

나의 수업 생활과 올레길 여정은 봄에 시작되었다. 그때는 벚꽃이 막 지고, 유채꽃밭이 해안선을 따라 황금빛 카펫처럼 펼쳐지는 시기였다. 올레 1코스는 제주시내에서 바닷가까지 이어지며, 이른 아침의 이슬에 적신 돌길은 반짝반짝 빛났다. 나는 한여름의 올레 바닷바람과 초록숲이 주는 청량함을 온전히 느꼈다. 21번 해안 코스에서는 발밑에 고운 모래가 깔려 있고 귤가에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고개를 들면 질푸른 하늘과 순백의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의 가을은 색채가 가득했다. 18번 산림 코스에서는 붉은 단풍, 노란 은행잎,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화가의 팔레트 같았다. 섬에 남아 있는 앞으로의 두 달 동안, 2학기 교육 과제를 완벽히 마무리하는 동시에 남아 있는 십여 개의 올레길도 계속 걸으며 제주 겨울이 가진 온화한 햇살과 새하얀 눈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올레길의 모든 발자국에는 나의 성장이 새겨져 있다. 소통을 두려워하던 내가 스스로 문화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고, 외로운 이방인이던 나는 이제 따뜻함으로 둘러싸인 ‘제주인’이 되었다. 산과 바다는 나에게 포용적인 마음을 가르쳐주었고 사람들은 ‘진심’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었다. 중국어 교육과 올레길 트레킹이라는 이중 경험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문화 교류란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양방향의 여정이라는 것을.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我在济州教中文的一年： 在偶来小路的足迹里，体会文化与成长

陈阳

作为一名CPIK志愿者教师，我在济州岛的一年时光，几乎是被偶来小路的微风、步道与笑容串联起来的。初到济州时，我带着对中文教学的热忱，却也藏着一丝异乡人的局促，语言不通、文化差异，让我和这座以火山与柑橘闻名的岛屿总隔着一层朦胧的距离。而真正打破这层隔阂的，正是那一条条串联起山海与人心的偶来小路。

在济州岛的山海之间，“偶来”（올레）是一个贯穿风景与生活的核心词，它既指代串联起火山岩、柑橘园与渔村的徒步路线，也承载着这座岛屿的集体记忆。“偶来”最初是济州方言里的日常词汇，特指“从村边大路通往家门的弯曲窄道”。在交通不便的年代，济州岛没有密集的公路网络，岛民们为了出行、劳作与邻里往来，自发用当地盛产的火山石铺就了无数小径。这些小路不似主干道般规整，却紧贴着村落与田野，串联起海滩和山林。

在济州的一年里，我走了10多条偶来小路，每条路线都藏着独特的惊喜：7号路线沿着汉拿山山麓蜿蜒，秋季时枫叶红得热烈，我在这里偶遇了很多来自不同国家的登山客；16号路线穿梭在西归浦的渔村，我也亲自登上渔船，体验了海钓，看他们分拣刚捕捞的海鲜，品尝新鲜的美味；21号路线的海边步道最是治愈，海浪拍打着黑色礁石，海草绿油油……这些路线延续了“偶来”的本质：不局限于“家门到大街”，而是连接起海边的礁石、山林的松树、村落的民宿，甚至是汉拿山的余脉，却始终保留着“贴近生活、回归本真”的内核。

徒步偶来小路的过程，也是我个人成长的修行。初到济州时，我性格内向，面对陌生环境总是有些胆怯，甚至会因为语言不通而不敢主动与人交流。所以我总是独自行走在山林间、海滩上，带着集章的“偶来PASS”本，一边对照路标和导航一边猜测道路的正确性，这样的探险很有趣但是也很孤独。一次在孤立岩附近的步道上，我因强烈的日光有一些中暑，眼前晕头转向，正在树荫休息时，一位卖橘子老奶奶主动上前搭话。她并不会英语，在知道我是外国人之后，用手势比划着指向公园里更近的路，又从篮子里把又大又甜的丑橘塞给我，嘴里反复说着“한라봉, good good”。那天我们一起聊了半个多小时，她用最简单的韩语给我讲这个橘子名字的来源是因为它外形长得像汉拿山，还有路边各种野花的名字，我则向她分享着家乡的泰山与黄河。语言的障碍在真诚的眼神与笑容中消解，那个酸甜的丑橘，成了我在济州收获的第一份温暖联结。这样的故

事不胜枚举，偶来小路的徒步者们都格外热情友善，他们会主动和我打招呼，邀请我同行，耐心听我用不流利的韩语表达想法。为了更好地工作和日常交流，我开始在教学之余学习韩语，从简单的问候语到教学相关的词汇，一点点积累。在徒步中，我不仅锻炼了体力，更学会了勇敢表达自己，学会了在陌生环境中寻找归属感。

而且济州教育厅的老师为了帮助我们几个初来乍到的志愿者，举办了指导活动，让在济州长期生活的、有经验的汉语教师和我们结成“对子”。有了她们的帮助，我们不再像无头苍蝇一样乱撞，也不再像含羞草一样畏畏缩缩，我们渐渐的对新环境伸展出了细嫩的枝芽。不管是在教学上还是生活上，所有的困难和烦心事都有了“知心姐姐”帮我们开导，教学生活中的小幸运也多了分享的对象。

我的指导老师刘老师是一位温暖柔和的人，她也很喜欢各种户外活动，我们一起去傍晚的港口看了满月下的邮轮，也一起去参观了各种展览馆和艺术馆，她也带我认识了她的韩国朋友，让我能够更好的融入当地。在我心中，脚下的条条小路早已不是单纯的徒步路线，它更像一张织满人情味的网，串联起济州的山海、村落与人心。

在济州的一年里，偶来小路成了我的“移动中文课堂”。走11号路线时，我遇到了经营咖啡店和民宿的大叔，他听说我是中文老师，便主动请我教他简单的接待用语。我们坐在咖啡厅院子里的橘子树下，他用不标准的汉语念“欢迎光临”，我帮他纠正发音。他也给我讲了偶来小路的的历史，还告诉我，之前有中国游客来住民宿时，他用自学的中文打招呼，对方特别惊喜，还送给他了家乡的茶叶。那一刻我忽然明白，教中文不只是传授语言，更是传递一份善意，让不同文化的人能更亲近地交流。

如今全岛27条偶来路线，总长437公里，途经135个村庄与130多个景点，却依旧保持着“乡间漫步”的轻松感：没有陡峭的台阶，沿途有村民自发设立的补给站，也能遇到提着竹筐卖特产的老人……这些细节，都让“偶来”始终带着济州原本的生活温度。

我的教学生活和徒步之旅始于春季，那时樱花刚落，油菜花田沿着海岸线铺成金色地毯，偶来1号路线从济州市区延伸至海边，石板路被晨露浸润得发亮；我也体会了盛夏偶来海风与绿意的清凉拥抱。21号沿海路线，脚下是细腻沙滩，耳边是海浪拍岸的声音，抬头可见湛蓝的天空与洁白的云朵；如今的秋日则是色彩的狂欢，18号山林路线上，枫叶红、银杏黄、松针绿交织在一起，宛如画家的调色盘。在留在岛上为数不多的两个月里，在完美完成第二学期教学任务的同时，我还要继续踏上其余的十几条偶来小路，体验独属济州冬日的和煦阳光与皑皑白雪。

偶来小路的每一步，都刻着我的成长：从害怕交流到主动搭建文化桥梁，从孤独的异乡人到被温暖包围的“济州朋友”。这里的山海教会我包容，这里的人们教会我真诚，在中文教学和偶来徒步的双重体会下让我明白，文化的交流从来不是单向的输出，而是双向的奔赴。



나의 CPIK 성장기

당곡고등학교 **왕이쉬에**

지금은 2025년 10월 말, 시간은 어느새 조용히 흘러가 버렸다. 한국에 와서 CPIK 자원봉사 교사로 지낸 지 벌써 8개월 가까이 되었다. 돌아보면 봄날의 산들바람 속에서 훑날리던 벚꽃을 주워보기도 했고, 8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작열하는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내기도 했다. 중국과는 또 다른 문화적 공기를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땅의 거리와 얼굴들이 점점 익숙해졌고, 마음속에는 서서히 ‘소속감’이라는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어 교사로서 이번 경험은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도 달랐다. 예전에 중국에서 유학생을 가르쳤던 경험은 이곳에서는 온전히 들어맞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가르치며 탐색하고, 배우며 성장해 나갔다.

가장 먼저 나를 깊이 흔든 것은 바로 “개별화 교육(因材施教)”이라는 네 글자였다 — 학생 한 명, 한 명의 내면에 정말로 들어가 보아야만 그 학생에게 맞는 열쇠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을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전의 나는 “개별화 교육”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고, 종종 하나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학생과 교실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점점 깨달았다. 각 반에는 고유한 분위기가 있고, 각 학생에게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이 보내는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듣기’ 시작해야만 수업이 비로소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차이를 보며 조절하고, 변화 속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배우며 “개별화 교육”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먼저, 나의 현재 교육 업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나는 서울특별시에서 CPIK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세 곳의 학교에서 수업을 맡고 있다. 한 곳은 남녀공학 중학교, 한 곳은 남녀공학 고등학교, 또 한 곳은 여자고등학교다. 세 학교는 교육 환경, 교재 체계, 학생 구성, 학습 목표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 덕분에 모든 수업은 각기 다른 리듬과 개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어떤 교사든 — 현지 교사든 원어민 교사든 — 단일한 수업 방식만으로 모든 교실을 대응할 수 없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파트너 교사와의 협업 속에서도, 혼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도, 나는 늘 “상황에 맞게, 학생에 맞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래야 수업이 차이 속에서 생동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육 대상만 놓고 보아도 연령 차이가 분명하다. 중국에는 “세 살마다 세대 차이가 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말은 교육 현장에 그대로 대입해도 매우 적절하다. 중학생은 신체적·심리적으로 모두 아직 고등학생만큼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다. 이러한 성장 차이는 곧바로 수업 태도에도 드러난다 — 중학생들은 더 활발하고 감정 기복도 크며, 수업 규율을 지키는 면에서도 고등학생처럼 안정적이지 않다.그다음으로, 비록 혼합 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연령이 동일하고 모두 같은 발달 단계에 있지만, 교실 자체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내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며 느낀 점은, 혼합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습 상태는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이다. 남녀 비율도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활발하고 표현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조용하고 신중한 학생도 있어 교실 분위기가 “동적이되 안정감 있는” 균형을 이루었다.반면, 여자 고등학교는 반마다 차이가 훨씬 두드러졌다. 여자 학생들은 성격 차이가 큰 편이기 때문에, 반에 활발하고 분위기를 잘 이끄는 학생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교실은 금방 생기 있고 활발해지고, 학습 효과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반대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학생이 대부분인 반은 전체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학생을 마주할 때는,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 방식과 수업 운영 전략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중학교 수업에서는 파트너 교사와 나는 수업의 재미 요소를 특히 강조하고, 학습 난이도를 조금 낮추며,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교수법을 활용하려 노력했다. 예컨대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는, 국가 이름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네 개 조로 나누고, PPT로 국가별 국기와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국적을 맞춰보도록 했다. 이 연령대의 학생들은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업에 연예인 요소를 넣으면 집중도가 즉시 올라가고 시선도 자연스럽게 칠판과 수업 활동에 모아졌다.또한 취미를 배우는 단원에서는 노래·춤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중국 곡 〈谁敢想〉(누가 감히 상상했을까)을 들려주며 수업을 진행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미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순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몰입할 수 있었다. 도입 단계로 사용해도, 수업 중간 활동으로 활용해도 반응이 매우 좋았다.

남여고등학교와 여자 고등학교의 학습 내용 난이도는 중학교보다 확연히 높다. 비록 연령상으로는 중학교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지만, 수업 흥미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혼합 고등학교에서는 신수업 도입이든 복습 단계든, 소그룹 대항 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룹 간 경쟁은 학생들의 감정과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려, 활발하고 상호작용이 풍부한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주었고, 그 결과 매우 좋은 수업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새 단원을 학습한 뒤 복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소그룹 경쟁 방식을 사용했다. 테마형 PPT와 점수제를 활용하여 질문을 제시하고, 문항은 단어·문형·문화적 배경 등 단원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했다. 정답 시 점수를 얻고, 오답 시 감점은 없으며, 중간에 “보



너스 문제”나 “점수 교환 문제” 등을 넣어 수업의 변수를 높여 재미를 더했다. 이러한 문답식 진행 방식은 수업 전체를 관통하며, 새로운 내용 도입이든 본문 복습 단계든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크게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방식을 여자 고등학교에 적용했을 때는 다소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여러 차례의 수업 경험을 종합해보니,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따라 읽기”와 “지명 발화 연습” 방식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방식은 학생 간 복잡한 협력이 필요하지 않고, 교사의 리드에 따라 전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이들의 학습 습관에 더 잘 맞았다. 예를 들어 “얼마예요” 단원을 가르칠 때는 먼저 “이 옷은 얼마예요?”, “너무 비싸요. 조금 깎아 주세요.”와 같은 핵심 문형을 따라 읽게 한다. 따라 읽기를 통해 발음·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 뒤, 특정 학생을 지명하여 개별 연습을 시킨다. 보통 내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학생이 비교적 안전한 분위기에서 말하기를 시도하도록 돕는다. 교사의 즉각적인 힌트와 격려를 통해 학생들은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고, 교실 전체의 참여도와 반응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또한 여자고 학생들이 한자의 읽기·쓰기 능력에 대한 필요가 있고, 구두 표현보다 필기 능력이 전반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는 수업 과정에서 발음을 중시하는 동시에 한자 쓰기 연습을 함께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자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예를 들어 ‘너 어디 가?’ 단원에서는 ‘상차(上车)’, ‘하차(下车)’ 등의 어휘의 발음과 쓰기를 모두 익혀야 한다. ‘上’과 ‘下’ 두 글자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학생들에게 지시자의 조자 원리를 설명하고 PPT를 통해 그 형태와 의미의 출처를 보여준다. 동시에 나는 신체 동작을 활용해 ‘위(上)’와 ‘아래(下)’의 공간적 관계를 직접 시연함으로써, 추상적인 문자 개념을 구체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 어휘의 음가와 쓰기뿐 아니라 공간적 이미지까지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하였고, 이후 ‘지난 수요일(上个星期三)’, ‘다음 수요일(下个星期三)’과 같은 시간 표현을 배울 때도 기존 인지 경험을 자연스럽게 전이하여, 말하기와 쓰기 학습을 결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필기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고, 그들의 실제 학습 특성과 요구에도 더욱 부합하는 방식이었다.

“개개인에 맞춘 교육(因材施教)”뿐 아니라, 나는 “즐거움 속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寓教于乐, 教学相长)”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수업을 하면서 한국 학생과 교사 간의 관계가 중국 교실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근하다는 점을 강하게 느꼈다. 학생들은 일상 속 사소한 일들도 기꺼이 선생님과 공유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역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자유롭고 평등한 수업 분위기는 ‘즐겁게 배우는 수업’을 실현하는 데 매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때 교사는 더 이상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협력하는 동반자

에 가까운 존재가 된다.

나에게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쁘고도 소중한 일이다. 나는 그들과 나란히 서서 ‘고등학교 생활을 함께 체험하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한다. 함께 연습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긴장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 더 ‘친구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뿐 아니라, 나 자신도 마치 다시 고등학생이 된 듯 마음가짐이 젊어지는 것 같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7월 초 본교의 학교 축제였다. 나는 음악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네 명의 학생과 함께 급하게 ‘미스터리 댄스팀’을 꾸렸다. 연습할 때는 모두 배꼽 잡고 웃었고, 누가 동작을 틀려도 서로 원망하거나 탓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었다. 정식 무대에 올라서는 그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여섯·일곱 년 전, 열여덟 살에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였다는 사실이 스쳐 갔다! 음악이 울리고, 관중의 환호가 터졌을 때, 그 청춘의 분위기는 나를 동시에 긴장시키고 흥분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내가 이런 기회를 얻어 한국의 학교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학생들과 우리의 ‘공동의 추억’을 남길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후에도 종종 먼저 다가와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곤 한다. 최근의 고민이나 속상한 일일 때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유행 주제일 때도 있으며, 근처 맛집이나 재미있는 장소를 열심히 추천해주기도 한다. 이런 교실 밖의 대화는 학생들의 관심사와 개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더욱 좁혀준다! 이러한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는 다시 수업 안으로 이어져, 학생들은 익숙하고 신뢰감 있는 분위기 속에서 더욱 기꺼이 중국어를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려 한다. 그 결과 교실은 더 이상 딱딱하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변한다. 나에게 이런 상호작용은 바로 ‘즐겁게 배우는 교육(寓教于乐)’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학습과 소통이 서로 스며들고, 교수·학습의 과정이 곧 ‘쌍방의 성장 경험’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한국에서의 시간, 그리고 파트너 교사들과 학생들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많은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또 가져가 버리겠지만, 이 특별한 기억만큼은 앞으로의 내 성장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도 아름다운 한 획을 남겨줄 것이라고 믿는다.



我的cpik成长之路

王以雪

现在是2025年十月末，时间在不知不觉中悄然流逝。来到韩国担任CPIK志愿者老师，已经将近八个月了。回首这段时光，我曾在春日微风中拾起过飘落的樱花，也曾在八月的烈日下感受过炽热的阳光，深切地感受到了与中国不同的文化气息。在这片原本陌生的土地上，陌生的街道与面孔渐渐变得熟悉，心中也生出了归属的温度。作为一名汉语教师，这次的经历与以往大不相同，曾经在中国教留学生的经验，在这里似乎并不完全适用，于是我边摸索边教学，边学习边成长。

第一个最让我感触深刻的，就是“因材施教”这四个字——只有真正走进每个学生，才能找到属于他们的那把钥匙。过去的我，对“因材施教”这四个字的理解还停留在概念层面，常常希望用一种方法去应对不同的学生和课堂，结果发现效果并不理想。随着教学经验的积累，我渐渐体会到，每一个班级都有自己的气质，每一位学生也有自己的节奏。只有真正走近他们，倾听他们的语言与反应，教学才会真正“活”起来。现在的我，开始学会在差异中调整、在变化中寻找平衡，也因此对“因材施教”有了更深的体悟。

首先，简单介绍一下我的教学工作。目前，我在首尔特别市担任 CPIK 项目的原语民教师，同时在三所学校任教，分别是一所混合初中、一所混合高中以及一所女子高中。三所学校在教学环境、教材体系、学生构成以及学习目标等方面皆不尽相同。这些差异让每一堂课都拥有独特的节奏与面貌。正因如此，无论是本土教师还是原语民教师，都无法套用同一种教学模式去应对所有课堂。对我而言，无论是在与搭档教师的协作中，还是在独自备课、搜集资料的过程中，都应该贯彻“因地制宜，因材施教”的原则，让教学在差异中生出灵动与生机。

从教学对象来看，初中生与高中生在年龄上存在显著差异。中国有句俗语叫“三岁一代沟”，这句话放在教学中也颇为贴切。初中阶段的学生，无论在生理还是心理层面，都尚未达到高中的成熟程度。这种成长差异直接影响了他们的课堂表现——初中生往往更活跃、更情绪化，对课堂纪律的把握也不如高中生稳重。其次，虽然混合高中和女子高中的学生年龄一致，处在同一发育阶段，但是课堂本身也存在多处不同。在教学实践中，我发现混合高中的学生整体学习状态较为均

衡, 男女比例相对匀称, 既有性格活跃、善于表达的学生, 也有较为安静、稳重的学生, 整体课堂氛围能够做到“动静有度、收放自如”。相比之下, 女子高中的班级差异更为明显。由于女生在性格特征上的差异较大, 如果班级中有几位性格开朗、积极带动的学生, 课堂氛围往往活跃、生动, 学习效果也随之提升; 而当班级中以文静、内向的学生为主时, 整体课堂气氛则可能显得相对平淡与安静。

因此, 在面对不同年龄层的学生时, 教师的教学方式与课堂管理策略都需要作出相应的调整。在初中教学中, 搭档老师和我更加注重课堂的趣味性, 并适当降低教学难度, 使教学方式更加灵活多样。以“他是谁”和“他是哪国人”这一课为例, 我们在学习国家名称时, 将全班学生分成“北京”“上海”“重庆”“天津”四个小组, 通过 PPT 展示不同国家的国旗与明星照片, 引导学生猜测并回答国籍。这一年龄段的学生对明星兴趣浓厚, 课堂中加入明星元素不仅迅速吸引了他们的注意力, 也有效地将他们的目光集中在黑板和课堂活动上; 再例如学习爱好那一课的时候, 从唱歌跳舞开始, 播放最近在韩国很流行的中国口水歌《谁敢想》, 大部分学生都听过看过, 通过视频学生不自觉就能将自己的精力投入到课堂, 不管作为课前导入还是课中教学, 效果都收获良好。

混合高中和女子高中学习内容的难度要明显高于初中, 虽然年龄上比初中更加成熟一些但是课堂兴趣也同样重要。在混合高中, 同样注重使用小组比拼的形式, 无论是在新课导入还是复习环节, 分组竞赛都能有效地调动学生情绪, 营造出积极、互动的课堂氛围, 并获得良好的教学反馈。例如, 在新的课文学完需要复习的时候, 一般采用小组竞赛的方式进行。例如利用主题型课件采用积分制度, 问题内容涵盖课文重点词汇、句型以及文化背景等, 答对可得分, 答错不扣分, 期间还设置“加分题”或“换分题”等环节, 增加课堂的不确定性与趣味性。以问答的形式贯穿整个课堂, 无论是新课导入还是课文复习阶段, 这种形式都能显著增强学生的学习动力。

최단 시간 소모한 팀이 승리!

첫 번째 사람(A)부터 오른쪽 친구(B)에게 말하기:

그 다음 B가 C에게 말하기:

그 다음 C가 D에게 말하기:

그 다음 D가 A에게 말하기:

이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

**내가 추측해 보아라
(plus 여러분 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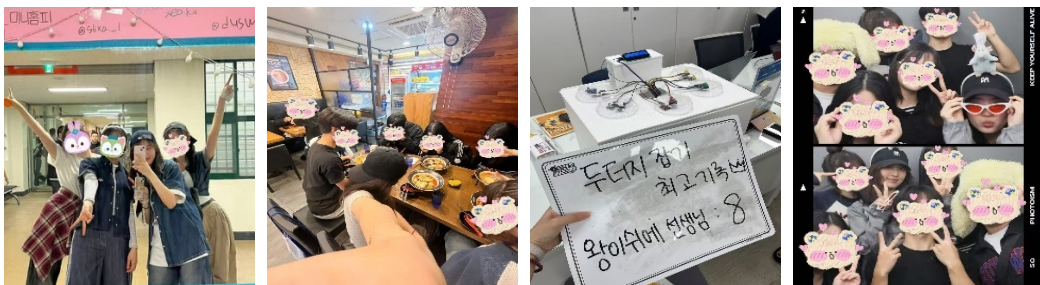
각 팀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으며, 한 학생이 앞에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지 맞춰보고 올바른 문장을 말하세요. 시간이 가장 적은 팀은 우승 팀입니다.

然而, 当我尝试将同样的方式应用于女子高中时, 效果却略显生硬。结合教学经验, 我逐渐发现, 女子高中学生更适合以“带读”和“指定操练”的形式进行教学。这类活动不需要学生之间复杂的配合, 却能在教师引导下保持节奏统一, 更契合她们的学习习惯。例如, 在学习“多少钱”这



一课时，我通常会先带读重点句型，如“这件衣服多少钱”“太贵了，便宜一点儿吧”等，利用带读，帮助学生熟悉语音语调。随后，我会指定个别学生单独操练，通常采用我问她答的形式，让她们在相对安全的气氛中尝试口语输出，克服说话的难关。通过课堂上的及时提示与鼓励，学生逐渐增强自信，整体课堂配合度也明显提升。

此外，考虑到女子高中学生对汉字识写有一定需求，并且她们普遍笔试能力强于口语表达，我在教学的过程中，在重视读音的同时加入汉字练习，帮助学生理解汉字的内部结构，更好的记忆汉字。以“你去哪儿”一课为例，学生需要掌握“上车”“下车”等词汇的发音与写法。针对“上”“下”两个字，我会引导学生了解其作为指事字的造字特点，并通过 PPT 展示其形义来源。同时，我会配合肢体动作演示“上”“下”的空间关系，帮助学生将抽象的文字概念转化为具体的形象认知。通过这种方式，学生不仅掌握了词汇的语音与书写，还在潜移默化中建立了空间意象。当她们在后续学习“上个星期三”“下个星期三”等时间表达时，能够自然地迁移此前的认知经验，将口语内容与书写训练相结合，最大程度发挥了她们在笔头表达方面的优势，也更符合她们的学习特点与实际需求。



除了“因材施教”四个字之外，我对“寓教于乐，教学相长”这个概念也有了更深的理解。在教学过程中，我深切感受到韩国学生与教师之间的关系相较于中国课堂更为亲近，学生更愿意与老师分享生活中的小事，也更乐于表达自己的想法与情绪。这种轻松、平等的课堂氛围为“寓教于乐”的实现提供了良好的条件。教师不再只是知识的传递者，更像是一位参与者、引导者和合作者。

对我来说，能够和学生们一起参加各种校园活动，是一件既开心又珍贵的事。我特别享受和他们并肩“体验高中生活”的感觉——一起排练、一起欢笑、一起紧张，在这样的过程中，我们不只是师生，更像朋友。这种相处不仅让关系更加亲近，也让我仿佛重新回到了自己的高中时代，心态都变年轻了。印象最深的是七月初主校的校庆活动，我和另一位音乐老师、四位学生临时组成

了一支“神秘舞蹈队”。排练的时候大家笑成一团，谁跳错动作互相也没有埋怨与指责。正式上台的那一刻，我突然意识到我上一次在那么多人面前跳舞，还是六七年前十八岁刚上大学的时候！当音乐响起，全场欢呼，那种青春的氛围让我既紧张又兴奋。那一刻，我真的很庆幸自己能有这样的机会，融入韩国校园生活，与学生们一起留下属于我们的“共同回忆”。

还有，学生们在课下常常会主动与我分享他们的生活点滴——有时是最近的心事与烦恼，有时是他们喜欢的偶像或流行话题，甚至还会热情地向我推荐附近的美食店或好玩的地方。这样的课下交流不仅让我更加了解他们的兴趣与个性，也在无形中拉近了我们之间的距离！这份友好、自然的关系往往会延续到课堂之中，学生们在熟悉和信任的氛围下，更愿意开口说中文，也更敢于表达自己的想法。课堂因此不再拘谨，而变得生动、鲜活。对我而言，这样的互动正是“寓教于乐”的最好体现——学习与交流相互融合，教学过程也成为一种双向的成长体验。

总之，我很珍惜在韩国与搭档老师们以及学生们的相处时光，岁月匆匆，时间会稀释很多东西也会带走很多东西，但是我相信这份独有的回忆会为我今后的成长添上浓墨重彩的一笔！



CPIK과 함께 성장한 나의 모습

명지중학교 진지현

2025년 2월 19일, 나는 설렘과 기쁨을 가득 안고 한국에 도착했다. 앞으로 시작될 일과 생활에 대한 기대도 가득했다. 한국의 하늘은 아주 파랗고, 거리도 깔끔하며, 전체적으로 색감이 선명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늘 말하곤 한다. 한국 풍경은 정말 ‘필터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모든 것이 아주 밝고 환하게 보이고, 사람의 기분까지 생기 있게 만든다고. 길 위의 자동차, 사람, 나무, 구름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로운 호기심으로 다가왔다. 가능하다면, 나는 이런 호기심과 생기를 평생 유지하고 싶다. 일이든 삶이든 마찬가지다.

2월 26일, 나는 부산 연수원을 떠나 서울에 도착했다. 나의 업무는 여러 관계자들, 특히 파트너 선생님의 도움 속에서 점차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매주 스무 시간의 수업이 딱 차 있었고, 나는 천천히 교실에서의 나의 자리와 역할에 적응해 갔다. 모든 것이 점점 규칙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보조교사로서 이렇게 수업을 관찰하고 참여하며 나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참 감사했다. 실전 속에서 나는 많은 교수 경험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 교육의 여러 특징들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두 학교는 학생 구성, 학습 목표, 교실 분위기 모두 달랐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도 매우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본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의 사무실 분위기는 매우 좋았고,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귀여우며, 항상 내 생활을 챙겨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주셨다. 간식 코너에는 끝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간식과 각종 커피·차 티백이 준비되어 있어, 자리만 앉아도 힘이 나는 기분이었다. 초반에는 약간의 두려움과 낯섦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안함만 남았다. 잘 적응한 뒤에는 다시 에너지를 가득 채워 일을 할 수 있었다. 매일 수업 외의 시간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수업 자료(PPT)를 디자인하고 제작했으며, 완성 후에는 파트너 선생님과 함께 수정사항을 논의했다. 본교에서 나의 수업 대상은 중국어 입문 단계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고, 파트너 선생님은 늘 웃으며 ‘아직 아이들 같아서 아주 귀엽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서 수업 자료를 만들 때도 ‘아이들의 특징’에 맞게 제작해야 했다. 선생님은 글꼴과 글자 크기, 내용 구성 등을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교재의 중심 내용을 반드시 정확히 반영하며, 제시할 때는 대비와 핵심 강조를 분명히 하도록 늘 조언해 주셨다. 입문 학습자는 교재의 흐름을 따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래야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교에 서는 주로 교재를 중심으로 PPT를 제작하고 설명하며, 문화 내용은 실제 수업 상황에 맞게 확장해 나갔다. 사용하는 교재는 새 버전의 《생활중국어》였는데, 온라인 자료가 매우 풍부했고, 학생들에게는 전자책·연습·게임·영상 등이 담긴 USB까지 제공됐다. 한국의 학습 자료 개발 시스템이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의 학습 의지만 충분하다면, 개발자가 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구조였다. 내 파트너 선생님은 경력이 깊고 수업도 매우 성숙해서, 생활 적응뿐 아니라 수업에서도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좌석을 정기적으로 바꿔 주는데, 보통 2주에 한 번이며, 웹사이트를 이용해 무작위로 배정한다. 매번 이 과정은 학생들의 열의를 높여 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선생님은 또 자료 사이트를 활용해 직접 연습 게임을 제작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태블릿으로 QR을 스캔해 게임 경쟁에 참여하며, 상위권 학생은 간식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질문을 하거나 무언가를 공유할 때에도, 선생님은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거의 막지 않고, 재미있는 답변이나 차분한 안내로 다시 수업의 중심 내용으로 돌아오게 한다. 아이들의 기발함은 수업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고, 선생님은 수업의 속도도 잘 조절한다. 선생님은 ‘은혜와 위엄’을 동시에 갖추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동시에 학생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스승이자 친구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냈다. 이름을 잘못 부르거나 인원을 잘못 세는 등의 작은 실수가 생길 때면 선생님은 진심으로 사과했고, 이것은 학생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감정을 보호해 주었다. 선생님의 수업 관리는 매우 뛰어나서, 떠들던 학생들도 금방 조용해졌다. 아주 장난스럽고 반항적인 학생을 마주해도 침착히 대응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선생님은 자신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나까지 지켜 주고 있었다는 것을. 수업 중 가끔 문화적 충돌이나 학생들의 중국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선생님은 이를 능숙하게 풀어내고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그래서 내가 겪은 문화적 충돌은 많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중국어 교사들이 가진 ‘탁월한 문화 간 소통 능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많은 것들은 비교 속에서 더 깊이 이해된다고, 파트너 선생님이 병가를 냈던 기간 동안 새 선생님과 협력하면서 그 품질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쌓이며 더 큰 성숙으로 이어졌다.

제2학교의 파트너 선생님은 아주 활발한 분으로, MBTI가 분명 ENFP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강아지 타입’처럼, 매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피곤해도 또 즐거워한다. 그녀와 학생들의 관계는 거의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에 가깝다. 제2 학교에서 나의 수업 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며, 이들 역시 중국어 완전 초급 학습자이다. 이 선생님은 교재에 엄격히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창의성을 더 많이 발휘해, 중국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실용 내용을 선택적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엄격하지 않고, 활동 수업이 매우 많아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소그룹 경쟁 게임, 카드 놀이, 수수께끼 맞추기, 이름표 뜯기, 그림 이어 그리기 등 게임 종류는 셀 수 없이 많고 다양했다. 선생님은 학생들과 온갖 농담을 주고받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나누며, 생소한 단어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별의별 기발한 표현을 생각해내어 학생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배우도록 했다. 우리는 함께 수업을 구성하고, PPT를 공유하며, 게임 방식과 수행평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은 지각한 학생들을 벌주기 위해 “나에게 사랑 고백하기”를 시키며 장난을 쳤고, 그때 나는 한국 사람들은 좋아함과 환영을 아주 대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나는 한국 학생들이 정말 노래와 춤에 능하다는 것도 느꼈다. 선생님은 별로 노래 부르기를 시키는데, 이는 교실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드는 데 아주 효과적이었고, 학생들 중에는 실력자도 많았다. 수행평가 항목 중에는 ‘배운 중국어로 가사를 쓰고 시로 작곡한 뒤 노래하기’가 있었는데, 모든 노래는 스타일이 제각각이었고, 학생들도 매우 열정적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이곳이 정말 ‘대중음악의 나라’라는 것을 다시 실감했고, 학생들은 앞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반짝일 것이라 느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아주 잘 보호해 주었다.

한국에서의 교수 경험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데, 나는 수업 실천 속에서 많은 경험을 배우며, 나 자신의 교수 능력과 소양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학생들과 처음 만났을 때, 모두가 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나 역시 학생들에 대해 같은 호기심을 품었다. 내가 한국어로 짧은 자기소개를 마치면 학생들은 크게 환호했고, 그 모습이 무척 친근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리고 파트너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이 선생님에게 한국인을 대표하는 존재예요”라고 정중하게 소개하자, 학생들은 금세 자세를 가다듬고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래, 나 역시 그들에게는 ‘중국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접촉할 수 있는 중국인. 그래서 나에게도 나만의 사명감이 있고,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사명감이 있다. 우리의 만남은 두 집단의 만남처럼 자연스럽게 우호적이었고, 우리의 소통은 두 문화의 충돌이자 서로의 인식과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었다. 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호의와 호기심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국경도 편견도 없는 가장 근원적인 문화 교류이다.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마음처럼 열정과 진심이 담긴. CPIK는 양국 교류 중 아주 작은 프로젝트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더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며, 모두에게도 많이 아쉬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아쉬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하고 싶고, 한국에게도 “널 만나서 정말 기뻐”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인생 궤적은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일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삶과 경험 속에서 이어지는 기억의 조각들이 분명 다시 떠오를 것이다. 이 도시는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는 이 도시를 기억한다. 이렇게 성장한 나 자신에게, 앞으로도 무한한 기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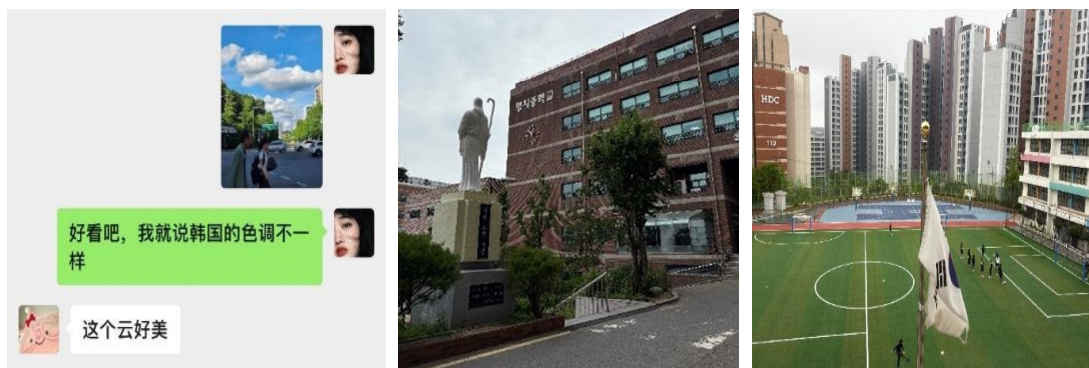




CPIK与我的成长

陈芷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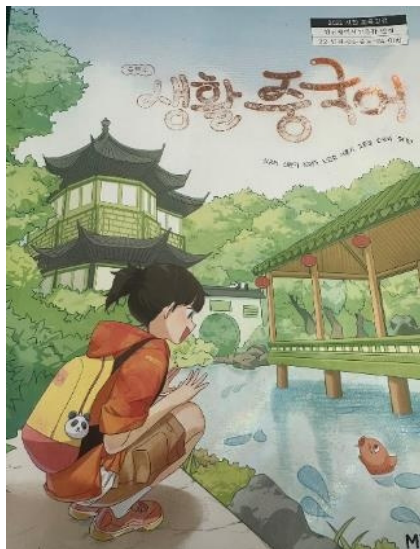
2025年2月19号，我怀着激动和欣喜的感情到了韩国，对即将到来的工作和生活充满期待。韩国的天空很蓝、街道整洁，看起来色彩分明。我常跟朋友说，韩国的风景真的自带滤镜，一切看起来非常地鲜亮明媚，让人的心情也跟着充满朝气。路上的一辆车、一个人、一棵树、一片云都让我充满好奇。如果可以的话，我应该要一辈子保持这样的好奇和朝气，无论是工作还是生活。



2月26号，我离开了釜山的培训基地到达首尔。我的工作在各方人员，特别是在搭档老师的帮助下进入了正轨。每一周都是满满当当的二十节课，我慢慢地适应了我在课堂中的位置和作用，一切也渐渐变得规律起来。作为辅助教师，我很荣幸有这个机会观察和参与课堂，发挥自己的作用，在实践中也学到了很多教学经验，感受到了韩国教育的一些特点。两所学校的教学对象、教学目标、课堂风格都不一样，因此我也大有所获，在此记录一下。

在我工作的学校里，办公室的环境和氛围很好，老师们亲切可爱，常常会关心我的生活，分享美味的食物，在点心区也有吃不完的零食和各种各样的咖啡和茶包。一到工位上我就充满了力量，如果说前期还有怯懦和不适应，到后来只剩舒适的感叹了。安顿好了自己，再充满干劲儿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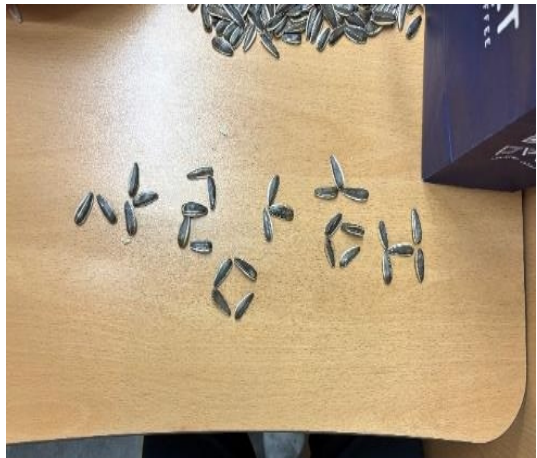
工作。每天除去课堂外，在办公室里我主要的工作是设计和制作课件，完成之后再与搭档老师讨论修改。在主校我的教学对象是刚入门汉语的初中一年级学生，搭档老师常笑着对我说“他们还像小孩子一样，很可爱”。那么制作课件的时候就要符合小孩子的特点，老师会提醒我对字体字号和内容的注意，如保证中心内容与教材的一致，呈现的时候注重对比和突出重点。入门的学习者要遵照教材的主线内容进行学习，才能让知识内容有依据和落地，便于形成系统，发展学生自学的能力。所以在主校我们主要遵照教材进行PPT制作和讲解，在文化内容上依据实际进行拓展。我们所用的教材是新版的《生活中国语》，教材配套的网站资源非常丰富，给学生也配备了U盘，包含电子课本和练习、游戏、视频等，我感觉韩国的学习资源开发系统真的很完善呢，只要学生的学习动机够强烈，那么开发者就会填补资源的空白。我的搭档老师的资历很深，课堂很成熟，她不仅在我的生活适应上给予我帮助，她的课堂也带给我很多启发。



老师会给学生定期换座位，一般是两周一次，利用网站实现随机分配，每次都能让学生热情高涨，调动了学生积极的情绪。老师还会利用资源网站自制练习游戏，学生在课堂上用平板扫码登陆加入游戏竞技，排名在前的学生可以获得零食奖励，学生因此很有热情。当学生在课堂上提出问题，或者有其他分享的时候，老师很少会去阻止学生的奇思妙想，而是用趣味的解答，或耐心的引导让全体学生回到课堂主线上。孩子的奇思妙想为课堂增色不少吧！而老师也能很好把握课堂的进度。老师还能够做到恩威并施，既构建了自己的权威，也与学生关系很好，做到了亦师亦友。如果出现了小失误，例如叫错名字，算错人数，老师也会诚恳地道歉，这样做能够实现与



学生的对话，保护了学生的情感。她的课堂管理很棒，吵闹的学生也能很快安静下来。就算面对很调皮和叛逆的学生，她也能够沉着应对。我后来觉得，老师她不仅捍卫了自己，也捍卫了我。在课堂上偶尔会遇到一些文化冲突，或是学生对中国的误解，老师都能巧妙化解和带过。所以我经受的文化冲突比较少，但我感受到了韩国的中文教师在跨文化交际上的素养！事情往往在对比中理解得更深刻，在搭档老师请病假的一段时间内，我与新老老师的合作让我意识到了那些品质的难得和可贵，在时间的积淀中成熟。



副校的搭档老师是一位非常活泼的人，她的MBTI一定是enfp，就是我们说的“快乐小狗”，每天蹦蹦跳跳的，累了也很快乐。她与学生的关系更倾向于是无话不谈的朋友。在副校我的教学对象是初中三年级的学生，同样也是零基础中文学习者。老师倾向于脱离教材，更多地发挥自己的创造性，选择性地传授一些有利于汉语交际的实践性内容。因此对于学生的要求并不严格，活动课特别多，以提高学生的汉语学习兴趣。小组竞争的游戏形式，玩卡牌、猜谜语、撕名牌、画画接龙，各种游戏多不胜数，花样百出。老师还会和学生开各种各样的玩笑，分享各种趣事、想出千奇百怪的帮助记忆生词的说法，让学生在愉快的氛围中学习。我们共同组织课堂，互相分享课件，探讨游戏形式，以及随行评价的内容和评价等等。上课的第一天老师就以向我表白作为惩罚逗了一些课堂迟到的学生，然后我就明白，韩国人会很大胆地表达喜爱和欢迎。另外，我还感受到韩国的学生真是能歌善舞啊。老师会让学生唱歌作为惩罚，这样能够很好地活跃课堂气氛，而学生中也是高手辈出。随行评价的内容中有一项是让学生用学习过的中文作词，再AI谱曲歌唱，每首歌风格各异，学生也热情高涨，让我感觉到这也是一个流行音乐的国度，学生以后也会在各自的领域熠熠发光，教师很好地保护了学生的创造力。

在韩国的教学体验非常特别和珍贵，我在教学实践中学习到了很多经验，提高了自己的教学能力和素养。跟学生们第一次见面的时候大家都对我充满好奇，我同样也对大家充满好奇。我用韩语做完一个简短的自我介绍，学生都会大声喝彩，让我感到非常亲切和开心。而搭档老师向学生郑重其事地介绍他们是于我而言的韩国人的代表时，学生都整装待发，跃跃欲试。是啊，我于他们而言也是中国人的代表，是他们可以去理解和接触的中国人，所以我也我的使命感，他们也有他们的使命感。我们的接触就像两个群体的接触，友好而且自然；我们的交流是两种文化的碰撞，打开彼此的认知和眼界。学习一门语言是理解一个群体的钥匙，是表达友善和好奇的途径，是无国界无偏见的原始的文化交流，就像我学习韩语那般的热忱和认真。CPIK只是两国交流中的一个小小的项目，但是也在潜移默化地发挥大大的作用，希望这个项目越来越好。



归期将近，我对大家有很多的不舍，对韩国也有很多的不舍。我想对老师和学生们说“很高兴认识你们”，我想对韩国说“很高兴认识你”！我们的人生轨迹也许只发生了短暂的交叉，但在未来的生活和体验中也许会有丝丝缕缕的记忆重现。城市不用记住我，但我记住了这座城市。我对这样成长了的自己，未来也有万般的期待和信心。



허끝에서 피어난 문화 교류의 우정: 나와 한국 학생들의 미식(美食) 기억

송의여자고등학교 리우씨

올해는 내가 한국에서 근무한 지 2년째 되는 해이다. 첫 해에는 학생들과도, 담당 선생님과도 관계가 매우 좋았지만, 수업 이후에는 깊이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아 늘 아쉬움이 남았다. 새 학교로 옮기고 나서는 “이번에는 내가 먼저 바뀌어보자”라고 마음 먹었고, 마침 새 담당 선생님도 학생들과 나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었다. 그렇게 ‘문화를 넘나드는 우정’이 조용히 시작되었다.

미식은 문화 교류에서 최고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중국 음식에 유독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50분 수업 중 15분은 중국 과자, 사탕, 면, 특색 있는 요리 등을 소개하고, 소개가 끝나면 직접 맛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수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수업 후의 ‘미식 약속’을 만들게 되었다.

첫 모임은 담당 선생님이 도와 준비한 휘귀 체험이었다. 학생들과 따로 만나는 건 처음이라 우리 모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식당에 도착하자, 내 격려에 힘입어 학생들은 중국어로 주문하기에 도전했다. 나는 그들에게 소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고, 휘귀를 먹을 때 주의할 점도 설명해 주었다. 뜨거운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냄비 앞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중국어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휘귀 매운데... 맛있어요!” 그들의 빨강계 달아오른 얼굴과 반짝이는 눈빛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식사를 마친 뒤, 학생들은 나를 끌고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생네컷’을 찍자고 했다. 귀여운 소품들을 고르고, 작은 부스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익살스러운 포즈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그 네컷의 사진 속에는 우리가 함께 만든 특별한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어 우리는 한국에 오픈한 중국 밀크티 브랜드 ‘헤이티(喜茶)’로 향했다. 나는 학생들에게 헤이티의 인기 메뉴들을 자세히 설명했고, 학생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맛을 골라 도전했다. 부드럽고 달콤한 밀크티를 마시며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고, 그날의 시간은 말 그대로 ‘달콤한 추억’이 되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또 다른 형태의 ‘회전 샤부샤부(회전형 휘귀)’를 체험했다. 다양한 음식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돌아오니, 자리에서 일어날 필요 없이 먹고 싶은 재료를 바로 집어 올 수 있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모두가 컨베이어 앞에 앉아 음식을 고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재미도 분위기도 한층 더 가벼워져,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중국어

로 “배불러요”라고 말하며, 다시 한국어 표현까지 열심히 가르쳐주었다. 다들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중국 마트에 들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개했던 다양한 과자들을 실제로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나를 붙잡고 “선생님! 이거 수업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거 대백토우(大白兔) 밀크캔디예요! 이건 라토우(辣条!)”라고 말하며 포장지를 가리켰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내가 담당 선생님과 함께 학생들을 데리고 양꼬치 무한리필 가게에 갔다. 불판 위에서 구워지는 양꼬치가 지글지글 기름을 내뿜으며 고소한 향을 퍼뜨렸다. 완성된 꼬치 위에 각자 좋아하는 양념을 뿌려 먹으며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다 먹고 난 후 오늘의 ‘전적(战绩)’을 세어보니 무려 200꼬치를 먹은 셈이었다! 이어 새로 오픈한 밀크티 가게 ‘후상아이(沪上阿姨)’로 이동해 함께 밀크티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매번 만날 때마다 즐거웠고, 마음이 따뜻했다.

학생들과 더 깊이있는 소통을 하고 싶어 나 역시 한국어 공부에 힘을 쏟았고, 결국 TOPIK 시험까지 등록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너무나 친절하게도 내 “한국어 선생님”을 자처하며 나를 가르쳐주었다. 내가 어설픈 발음으로 한국어를 말할 때마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늘 “아주 잘했어요!”라고 격려해 주었다. 그런 서로를 향한 노력 덕분에 우리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내가 그들의 일상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순간들이었다. 담당 선생님과 학생들은 학교 축제에 나를 초대해 함께 부스를 돌며 게임도 하고, 간식도 챙겨주고, 사진도 찍어주었다. 한 학생은 자신의 댄스 공연을 꼭 보러 와달라고 초대했고, 공연이 끝난 뒤 진지하게 “저는 어땠어요?”라고 묻기에, 나는 큰 목소리로, 중국어로 “정말 최고였어!”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그녀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은 생일이었다. 담당 선생님이 잠시 교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학생들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중국어 버전의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해 주었다. 손 편지와 준비한 선물까지 건네는 모습을 보며, 나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고, 언어로 다리를 놓고, 진심으로 우정을 쌓았다. 함께 한 모든 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마음속 깊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담당 선생님과 사랑스러운 학생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의 이 문화적 우정이 앞으로도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舌尖上的跨文化情谊： 我与韩国学生的美食记忆

刘茜

今年是我在韩国任教的第二年，第一年虽然和学生、搭档相处融洽，但课后总少了些深入交流的机会，这一直是我的小遗憾。直到换了新的任教学校，我决定主动做出改变，而我的新搭档也特别支持学生和我多互动，一段珍贵的跨文化情谊就这样慢慢开启了。

美食绝对是跨文化交流最棒的“桥梁”。学生们对中国美食特别感兴趣，所以五十分钟的汉语课，我们经常会留十五分钟，给他们介绍中国的零食、糖果、面条还有各种特色菜，介绍完还会让他们品尝。但课堂上能体验的有限，于是我们有了课后的美食之约。

第一次是搭档帮忙组织的火锅体验，学生们和我第一次单独相处，一起去吃火锅，我们都格外兴奋，还有点小紧张。到达火锅店，在我的鼓励下，大家尝试用汉语和店员沟通，用中文点餐。我也教他们如何调制蘸料，告诉他们一些吃火锅需要注意的地方。大家一边吃着冒着热气的火锅，一边用课上学过的中文和我聊天。学生们边吃边告诉我“火锅好辣，但好吃！”。吃完火锅，学生们拉着我去拍韩国流行的“人生四格”，我们一起挑选可爱的道具，一起进去摆出可爱的pose，拍出了十分有纪念意义的照片，定格住独属于我们的美好回忆。接着我们又去了在韩国开的中国奶茶店“喜茶”，我一一帮他们介绍这家奶茶店的特色饮品，学生们纷纷做出选择并尝试不同口味的奶茶。在品尝甜甜的奶茶时光中，我们的距离又更近了一步。

第二次我和学生们又尝试了不一样的旋转小火锅，多种多样的食物从传送带上转过来，大家不用起身就能随手夹到想吃的食物。不用等菜催菜，大家围着传送带边夹边聊，趣味十足，氛围轻松自在。最后大家还用汉语告诉我说“吃饱了”，并且教我用韩语说，每个人都非常开心。接着我们又一起去了中国超市，学生们看到了很多课堂上介绍过的零食，并拉着我指着包装说“老师！这个上课讲过！这是大白兔奶糖，这是辣条！”

第三次，我和搭档带着学生们去吃了自助烤羊肉串。烤炉上羊肉串滋滋冒油，香味四溢。烤好后大家在肉串上撒上喜欢的调料，一起享受美味的烤串。吃饱后我们还数了一下今天的“战绩”，差不多吃了200串！之后我们还去了新开的奶茶店“沪上阿姨”小坐，一起喝奶茶，一起聊天。每一次相聚都格外开心。

为了能和学生们更好地沟通，我也努力学习韩语，还报名了 TOPIK 考试。没想到学生们得知后，特别热心地当起了我的“韩语老师”，就像我教他们汉语一样耐心。他们认真听我讲不标准的韩语，还总鼓励我说“说得很好”，这份双向的付出让我们的距离越来越近。

更让我感动的是，我慢慢融入了他们的生活。搭档和学生们邀请我参加校庆活动，拉着我去他们的摊位玩游戏、送我零食，和我一起拍合照。有学生特意邀请我去看她跳舞，结束后认真地问我跳得怎么样，我用中文大声夸她“特别好”，她笑得特别灿烂。最意外的是生日那天，搭档让我暂时离开教室，等我推开门时，学生们捧着生日蛋糕，一起唱着中文版的《生日快乐》，还送上了亲手准备的礼物和书信，那一刻我真的感动到哭。

这段时光里，我们用美食传递心意，用语言搭建桥梁，用真诚收获友谊。每一个相处的瞬间都特别珍贵，会永远留在我的心里。最后，想对我的搭档和可爱的学生们说声谢谢，也祝愿这份跨文化的情谊能一直温暖下去。



한국에서, 나는 언어의 다리를 놓았다.

— 교실에서 무대까지 이어진 문화의 여정

중동중학교 허영희

“문화 교류는 세레머니가 아니라 일상에 있다.”

여기에서 1년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모두 언어에서 춤, 교실에서 무대까지 이어지는 또 한 번의 따뜻한 만남이었다. 예전의 저는 문화 교류란 거창한 행사 장소, 완벽한 강단, 그리고 눈에 띄는 놀라운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은 형식이 아니라, 수많은 중국어선생님이 평범한 교실에서 평범한 수업을 통하여 그동안 뿌려놓은 이해와 호기심 속에 있다는 것이다. 보기에는 평범하게 반복되는 수업의 일상이지만 실은 두 개의 문화와 두 개의 세계를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작고 평범한 일이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다는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1. 시작: ‘대장금의 꿈’에서 CPIK으로

세 살 무렵, 나는 <대장금>에 빠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고. 열한 살에는 용돈을 모아 생애 첫 한국어책을 샀다. 그때의 나는 ‘언어’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진 못했지만, 나와 한국의 스토리가 스크린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수년 뒤, 중국어 교사의 신분으로 이 땅을 밟았을 때,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 오래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친밀함이 다시 깨어나는 듯했고— 마치 어린 시절의 동경이 한 줄기 길이 되어 현실 속 나에게로 이어진 느낌이었다. 거창해 보이는 ‘중한 문화 교류’는 사실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세 살에 대장금 옷을 입고 사진을 찍던 나, 열한 살에 한국어를 독학하던 나, 스물두 살에 서울의 교실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문화의 다리 위에 크고 작은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 차츰 깨달았다.

학생 시절부터 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운명처럼 그 관심은 직업으로 이어졌고 나는 국제 중국어 교사가 되어 CPIK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국경을 초월하는 교육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이 경험이 앞으로 내가 ‘수업을 바라보는 방식’,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이렇게 깊이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하지 못했다.

2. 수업 편: 이해의 씨앗이 언어 속에서 싹트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나한테 가장 큰 테스트는 언어와 수업 문화의 차이였다.

처음으로 혼자 강단에 섰던 날, 나는 내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긴장했다. 학생들의 반응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고, 나 역시 그들의 수업 리듬과 표현 습관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다행히 학교 선생님들과 동료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나는 조금씩 나만의 수업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교실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학생들은 나를 따라 읽고 연습했다. 실은 그 과정에서 나도 천천히 배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중국어를 말하며 웃을 때, 수업이 끝난 후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을 때, 그런 평범한 날들이 모두 반짝이는 순간이 되었다.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이 줄어든 것을 안타까워하며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중국어 수업이 제일 재미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내가 가져온 마면 치마를 입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 치마 예뻐요!” 심지어 전 중국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들도 복도를 지나며 나한테 중국어로 인사해 주었다.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나는 언어의 힘을 진심으로 느꼈다. 그리고 수업 중 매 하나하나의 순간들 속에서 나는 비로소 CPIK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속 매번 피드백과 미소 속에 숨어있었다.

3. 교류 편: K-POP이 세계를 이어주다

한국에서 나의 여가 생활은 한 CPIK 선생님 덕분에 한층 다채로워졌다.

그 선생님을 통해 나는 춤을 사랑하는 여러 외국인 친구를 만났다. 퇴근 후 우리는 종종 흥대의 연습실을 향해 함께 공연을 준비하곤 했다. 연습실에는 중국, 미국, 한국, 영국, 루마니아, 독일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다. 언어는 다 다르지만, K-POP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자연스럽게 모였다. 누군가는 루마니아어로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나한테 열심히 중국어를 배우려 했고, 우리가 흘린 땀방울과 음악이 공기 속에서 뒤섞여지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환상의 호흡”이었다.

처음에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 소통이 어려울지 걱정도 했지만, 언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외국인 친구가 중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었고, 내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다. “니하오.” “너 정말 예뻐.”



그 순간부터 연습실에서의 나는 더 이상 교실 속 ‘중국어 선생님’만이 아니었고, 세계의 문화들이 서로 얽히고 가까워지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었다.

10월의 연휴 기간, 우리는 함께 K-WAVE Festival 무대에 올랐고, 조명과 환호 속에서 우리의 무대를 마쳤다. 그때 나는 문화 교류는 교실만도, 언어만도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뺏속 깊이 느꼈다.

CPIK은 내가 ‘중국어의 다리’를 출발점으로 삼아, 더 넓고 광활한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었다.

4. 여행 편: 풍경에서 사람으로

한 나라를 이해하는 방식은 그 나라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행은 나를 교실 창문에서 한국의 일상으로 데려다주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도시는 강릉과 홍천이었다. 바닷가의 아침, 시골 장터,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서울 외 한국의 또 다른 온도와 리듬을 느낄 수 있었다.

강릉이 관광 도시라는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와보니 강릉은 북적이면서도 혼잡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유로웠으며, 도시의 리듬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젊은이들도, 조용하고 평온한 바다도, 소문난 카페들이 있었고 해 질 무렵, 하늘은 분홍빛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물들어 갔다. 친구와 작은 언덕길을 걸으며 내 휴대폰에서는 〈City of Stars〉 음악이 흘러나왔고, 밤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배경 음악이 〈Talking to the Moon〉으로 바뀌었다. 강릉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여행지였다.

홍천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이곳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큰 도시로 떠나고, 남아 있는 것은 학생들과 어르신들이다. 고요함 속에 따뜻한 인정이 흐르는 곳이었다. 몇분만 걸으면 웬만한 목적지에 도착했고, 길가에는 신호등이 거의 없었으며, 드문 사람들과 차량은 서로 자연스럽게 양보했다. 이곳의 가게들은 주말 낮이 되어야 천천히 문을 열고, 멀리에는 맑은 물과 푸른 산에 둘러싸인 하늘이 펼쳐졌다. 엇갈린 전선들은 마치 횡단보도 그리듯 ‘하늘의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홍천은 나로 하여금 고향인 양강(阳江)을 떠올리게 했다. 여기도 역시 강의 이름을 따서 지은 작은 도시이다, 길옆에는 끝없는 논밭이 이어지고, 멀리에는 낮은 구릉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도 없고, 고층빌딩도 없고, 도시의 소음도 없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친근했다.

강릉의 바다와 홍천의 산을 보며 나는 “다른” 아름다움을 보았고, 동시에 “닮은” 온기를 느꼈다. 문화의 차이는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었다. 바로 이러한 차이 속에서 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이 가진 진짜 의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것(美美与共)’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5. 올림 편: 문화가 역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내 영향을 받아 EPIK 선생님도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문화의 씨앗이 반대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그중에 수많은 한자어가 들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중국어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친구가 되었고, 우리의 일상 대화는 자연스럽게 중국어, 한국어, 영어가 섞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자의 모국어 속 흥미로운 언어 현상, 단어의 유래, 문화적 차이를 공유했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다. 그 대화들은 언제나 새롭고 공감으로 가득했고, 나는 CPIK이 내게 가져다준 것은 단순히 ‘중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넘나드는 ‘양방향의 이해’였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

물론 이런 ‘올림’은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나는 국제 중국어의 날 행사에 참여해 자원봉사 교사 대표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 CPIK덕분에 나는 무대에 섰고, 언어 교육이라는 범주를 넘어선 더 넓은 세계를 직접 볼 수 있었다.

맺음말

‘중국어를 가르친다(教中文)’라는 세 글자 뒤에는,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는 countless 이야기가 담겨 있다. CPIK덕분에 나는 언어의 힘을 보았고, 그 다리가 되는 여정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어가 교실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문화가 일상의 틈새에 스며들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 여정의 종점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이해와 연결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在韩国，我用汉语搭起一座桥

——从课堂到舞台的CPIK文化旅程

何泳希

“文化交流，不在仪式，而在日常。”

在CPIK的这一年，我在韩国的日子，从语言到舞蹈，从课堂到舞台，都是一次次温柔的相遇。我曾以为，文化交流需要隆重的场合、完美的讲台和惊艳的成果。后来才明白，CPIK最动人的地方，从来不是形式，而是无数普通中文教师在平凡课堂里播下的理解与好奇，那些看似普通反复的教学日常，其实正在悄悄连接着两种文化、两个世界——让“认真教书”这件平凡小事，拥有了跨越语言与国界的意义。

一、缘起：从“长今梦”到CPIK

三岁那年，我迷上《大长今》拍下了穿着韩服的照片，十一岁时，攒下零花钱买了人生第一本韩语书。那时的我或许并不懂语言的意义，却隐约知道，自己与韩国的故事不会止于屏幕。

多年后，当我以中文教师的身份踏上这片土地，既陌生又熟悉，久远藏于心间的亲切感被重新唤醒——仿佛童年的憧憬一路延伸，带我走进现实。我渐渐明白，看似宏大的“中韩文化交流”，其实离我很近。

三岁穿上大长今服装拍照的我，十一岁自学韩语的我，二十二岁在首尔课堂上教中文的我，早已在那座文化之桥上留下大小不一的脚印。

从学生时代起，我就对语言与文化的差异充满好奇。机缘让这份兴趣延伸为职业——我成为一名国际中文教师，加入CPIK项目，开始了跨越国界的教育旅程。

那一刻，我并未预料到，这段经历会如此深刻地改变我看待教学、看待世界的方式。



二、课堂篇：理解的种子在语言中萌芽

初到韩国时，最先考验我的，是语言和课堂文化的差异。

第一次独立站上讲台，我几乎能听见自己心跳的声音。学生的反应比我预想中安静得多，我也花了一段时间，去理解他们的课堂节奏与表达习惯。好在学校的老师和同事们都给予了我很多支持，让我逐渐找到教学的步调。

在课堂上，我教学生中文，他们跟着我朗读、练习，其实我也在慢慢学习——学习如何成为更好的老师。他们说中文时的笑声，课后依依不舍的表情，都让那些平凡的日子闪闪发光。

有学生因为课程时间缩短而难过，对我说：“中文课是最有趣的课。”也有学生穿上我带来的马面裙，笑着说：“老师，裙子，漂亮！”甚至上一任老师教过的学生，也会在走廊上朝我用中文打招呼。

这些微小的瞬间，让我真切地感受到语言的力量。

也是在教学的一个个瞬间里，我真正明白了CPIK的意义——它不是宏大的口号，而是藏在日常的每一次回应和微笑之中。



三、交流篇：KPOP将世界连接

我在韩国的业余生活，因为一位EPIK老师而变得丰富多彩。

正是通过她，我认识了几位热爱舞蹈的外国朋友。下班后，我们常常赶往弘大的练习室，一起准备演出。练习室里有来自中国、美国、韩国、英国、罗马尼亚、德国的朋友——我们说着不同的语言，因为同样热爱K-POP而相聚。有人说着罗马尼亚语，有人兴致勃勃向我学汉语，汗水与音乐在空气中交织，那是一种奇妙的默契。



刚开始，我曾担心英语不够好会难以沟通。但很快我发现，语言并不是障碍。很多外国朋友



都有学习中文的经历，得知我是中国人时，他们会主动打招呼：“你好”“你很漂亮。”于是，在练习室里，我不再只是课堂上的中文教师，而是看见世界文化交织、互相靠近的见证者。

十月长假，我们一起登上K-WAVE Festival的舞台，在灯光与掌声中完成表演。

那是我第一次真切地感受到：文化交流，不止于课堂，也不止于语言。

CPIK让我以“汉语之桥”为起点，走向了一个更辽阔的世界。

四、旅途篇：从风景到人情



理解一个国家的方式，是走入它的生活。旅行让我从教室的窗口，走进了韩国的日常。

印象最深的城市是江陵和洪川，海边的清晨、乡镇的集市、人们的微笑，让我领略到首尔之外，韩国的另一种温度与节奏早有耳闻江陵是一座旅游城市。可真正来到这里却发现江陵热闹却不拥挤，人们依旧悠闲，街道上的节奏与首尔截然不同。这里有结伴的年轻人、宁静安逸的大海，以及名不虚传的网红咖啡厅。日落时分，天空从粉色渐变到紫色。我和朋友走在小坡上，手机里播放着《City of Stars》，晚上的海边，背景音乐换成了《Talking to the Moon》。江陵，是理想的旅游地。

洪川则完全不同。这里的年轻人大多去大城市闯荡，留下的多是学生和老人，平静中流淌着温暖的人情味。步行几分钟就能抵达大部分目的地，路边几乎没有红绿灯，稀少的行人和车辆默契地互相让路。这里的店家周末中午才慢慢开门，远处

是被绿水青山环抱的蓝天白云，交错的电线像斑马线划分天空之城的界限。

洪川让我想起家乡阳江。这里同样是以江河命名的小城市，路边是一片片田地，远处是一团团山丘。没有早晚高峰的地铁，没有摩天大楼，也没有都市的喧嚣，一切都显得亲切自然。

走过江陵的海与洪川的山，我看见了“别样”的美，也感受到“相似”的温度。文化的差异不是界限，而是彼此了解的起点。正是在这些差异之间，我更理解了“和而不同”的真正含义——“美美与共”。

五、回响篇：当文化开始反向流动

让我惊喜的是，在我的影响下，EPIK老师也开始学习中文——文化的种子，开始反向发芽。她在学韩语时发现其中有许多汉字词，于是对中文生出兴趣。我们成为朋友后，日常交流常常混合着中文、韩语和英语。我们时常分享各自母语中有趣的现象，从词语的由来到文化的差异，再回到彼此的生活故事。这些对话总是充满了新奇与共鸣，也让我更深刻地意识到，CPIK带给我的，不仅仅是“教中文”的经历，更是一次跨越语言与文化的双向理解之旅。



当然，这种“回响”并未止步于课堂。我曾有幸参加了国际中文日活动并作为志愿者教师代表登台表演。感谢CPIK，让我站上舞台，也让我看见语言教学之外更广阔的世界。

结语

“教中文”三个字背后承载的故事，远超过其本身。

CPIK让我看见语言的力量，也让我成为那座桥的一部分——

让中文不止于课堂，让文化在日常中交融生根。

这段旅程的终点，不是结束，而是更多理解与连接的开始。



나의 CPIK성장 이야기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오설영

한국에 와서 CPIK중국어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된 것은 내가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에 서서 직접 수업을 이끌게 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기대보다 긴장이 더 컸다. 이전 근무자로부터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그 수준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2학년 중국어반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한목소리로 “환영합니다!”라고 중국어로 인사했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하다. 그 순간, 나도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으로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울산 지역에는 CPIK중국어 보조교사가 나 혼자뿐이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도 낯설고 생활 환경도 익숙하지 않아 거의 매일 숙소와 학교만 오갔다. 그때 3학년 학생 두 명이 먼저 다가와 “선생님, 주말에 같이 시내 구경 가요.”라고 제안했다. 그 학생들은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고, 나에게 버스타는 법, 택시 타는 법, 편의점 이용법, 식당에서 주문하는 법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 있으니까 빨리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학생들이 단순히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친구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스승의 날과 중국의 교사절에도 학생들은 정성껏 나를 축하해 주었다. 스승의 날에는 칠판에 나의 모습과 담당 교사의 모습을 그려 놓았고, 중국 교사절에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축하해요!”라고 말해 주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낯선 나라에서 교사로 살아가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동료 교사들도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다. 담당 교사뿐 아니라 외국어 교사들, 그리고 외국인 교사를 관리하는 행정 선생님들까지 생활과 업무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한 재무과 선생님은 유창한 중국어로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다.

어느 날, 일본어 교사 영어 교사와 함께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인 세 분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웃으며 막 산 막걸리 두 병을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서툰 영어로 “No poison!”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웃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이 짧은 순간의 따뜻함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가진 포용력을 느끼게 해 주었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반응을 맡으며 학생들의 개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활발한 반도 있었고, 조용한 반도 있었지만, 조용한 학생들이라고 해서 흥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학생이 중국어 수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게임, 중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 학생들의 관심사와 연결된 주제 수업 등을 통해 수업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 있게 중국어로 말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다. 특히 한 학생이 전국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또 어떤 학생이 유창하게 중국어로 대화할 때 등 그들의 성장을 보며 나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자연스럽게 교단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학생들과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생활에서도 더 이상 숙소에만 머물지 않고, 시장을 구경하거나 카페를 찾아다니며 한국의 일상을 즐기게 되었다.

이 모든 경험은 나를 한층 성숙한 교사로 성장시켰다. CPIK프로그램의 시간은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었다. 수많은 배움과 만남 속에서 나는 학생들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의미를,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교사의 가치를 배웠다. 앞으로도 나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중국어 교육의 길을 계속 걸으며,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문화의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



我的CPIK成长日记

吴雪莹

来到韩国担任CPIK中文助教，是我第一次以“老师”的身份站上讲台、亲自带领一堂课。最初，我的紧张远远超过期待。虽然从前任老师那里听说学生们的中文水平很好，但真正开始上课后我才意识到，他们的水平远超我的想象。第一次走进二年级中文班时，学生们齐声用中文说“欢迎您！”，那一刻的感动至今仍记忆犹新。就在那一瞬间，我也暗下决心——一定要用更好的课堂来回报他们。

在蔚山地区，CPIK中文助教只有我一人。刚到韩国时，语言陌生、生活环境也不熟悉，我几乎每天都是在宿舍和学校之间往返。那时，有两名三年级的学生主动走过来，对我说：“老师，周末我们一起去市中心逛逛吧。”她们曾在中国生活过，便一点一点地教我如何乘坐公交、怎么打出租车、怎样使用便利店、以及在餐厅如何点餐等。“怕您一个人会孤单，希望您能早点适应。”这一句话，让我心里瞬间暖了起来。那一刻，学生们不再只是我教学的对象，而更像是与我一起分享、一起成长的朋友。

不管是韩国的教师节还是中国的教师节，学生们也都用心为我庆祝。韩国教师节那天，他们在黑板上画了我的样子和搭档老师的样子；中国教师节时，他们准备了一个小蛋糕，对我说：“老师，祝贺您！”他们这份真挚的关心与温暖，让我在异国当老师的日子获得了巨大的安慰。

同事老师们也非常亲切温暖。不仅是负责我的指导教师，外语课老师们，以及负责外籍教师事务的行政老师们，都在生活与工作给了我很多帮助。特别是一位财务科老师，她用流利的中文对我说：“我在中国学习时受到了很多帮助，所以现在我也想帮助您。”听到这句话的瞬间，我再次深刻地感受到：教育并不仅仅是知识的传递，更是心与心之间的连接。

有一天，我和日语老师、英语老师一起吃饭后回学校的路上，偶然遇到三位韩国人主动与我们搭话。他们得知我们都是外国人后，笑着把刚买的两瓶米酒送给我们，还用生疏的英文说了一句“No poison!”然后哈哈大笑。虽然语言不通，但他们真诚的笑容让我久久难忘。那一刻的温暖，让我深深感受到韩国社会所具有的包容力。

在课堂上，我负责了不同的班级，也逐渐理解了学生们各自的个性。有的班活泼开朗，也有

的班安静沉稳，但安静的学生并不意味着他们没有兴趣。因此，为了让所有学生都能享受中文课，我尝试了各种教学方式：利用多媒体资料设计游戏、播放介绍中国文化的视频、开展与学生兴趣相关的主题课程等，让课堂变得更加生动有趣。每当学生们越来越积极参与、大方地用中文表达时，我都会感到无比欣慰。尤其是当某位学生在全国中文演讲比赛中获奖，或某位学生能够流利地与我用中文交流时，他们的成长也让我意识到——我也正在与他们一同成长。

随着时间流逝，我也能越来越自然地站上讲台。最初的紧张逐渐消失，与学生对视时我也能从容地微笑。在生活中，我不再只待在宿舍，而是开始逛市场、探访咖啡馆，慢慢享受起韩国的日常。

所有这些经历，都让我成长为一名更加成熟的教师。CPIK项目的这段时间，对我来说不仅仅是一份工作，更是一段“成长”的旅程。在无数次学习与相遇中，我通过学生的变化理解了教育的意义，也通过自身的变化体会到教师的价值。未来，我也将以这段经历为基础，继续走在国际中文教育的道路上，把中文和中国文化的魅力带给更多的学生。



2025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CPIK) 활동수기집

2025年CPIK教师活动手记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TEL. 02) 3668-1385 FAX. 02) 742-1064